

2022 한국인의 통일의식

기रो에 선 평화, 다시 묻는 통일

일 시 | 2022년 9월 27일(화), 13시 20분~16시 50분

장 소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509호





2022 한국인의 통일의식

기रो에 선 평화, 다시 묻는 통일

일 시 | 2022년 9월 27일(화), 13시 20분~16시 50분

장 소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509호

프로그램

제1부 | 조사결과

사회: 천해성(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3:20 ~ 14:50	개회사		김병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발표1	통일의식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발표2	북한인식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3	대북정책인식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4	주변국인식	황수환 (통일연구원)
	발표5	북한이탈주민인식	최은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토론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 정동준 (인하대학교)	

13:20~ 14:50

휴식

제2부 | 심화분석

사회: 김병연(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15:00 ~ 16:00	발표1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북정책 인식의 효과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표2	세대 간 통일의식 차이	김성희 (수원대학교)
	토론	김은경 (국민대학교) 임수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제3부 | 종합토론 - 평화의 기로에서 통일을 다시 묻다

사회: 김병연(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16:00 ~ 16:50	종합토론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김현경 (MBC통일방송연구소장,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박종철 (대전대학교 객원교수)	
---------------	------	---	--

참가신청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
☎ kjkl3@snu.ac.kr로 연락 바랍니다.



G 사전참가 신청



YouTube



목 차

세션1 조사결과

- 1 김범수 | 통일의식
- 2 김병로 | 북한인식
- 3 김학재 | 대북정책인식
- 4 황수환 | 주변국인식
- 5 최은영 | 북한이탈주민인식
- 토론문 김규철 | 통일의식, 북한인식, 대북정책인식

세션2 심화분석

- 6 이성우 |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대북정책 인식의 효과
- 7 김성희 | 세대 간 통일의식 차이
- 토론문 임수진 | 세대 간 통일의식 차이







통일의식

▣ 김범수 ▣

통일에 대한 인식 (요약문)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자유전공학부)

1. 통일의 이미지, 필요성과 이유

1) 통일의 이미지

통일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이미지는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으로 2022년 조사에서 그 비중은 58.1%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궁극적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즉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자유롭게 왕래·교류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을 통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통일의 필요성

2022년 조사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줄어들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가 특히 20대와 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조사에서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46.0%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21년 4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전혀”와 “별로”를 합해 통일이 필요없다는 응답의 비중은 26.7%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21년 29.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대(19~29세)의 경우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27.8%에 불과한 반면 “별로”와 “전혀”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39.6%에 달하고 있으며, 30대의 경우도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34.0%로 40대와 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32.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20대와 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난 몇 년간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 현상으로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어떠한 추세로 변화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통일의 이유

통일의 이유와 관련하여 2022년 조사에서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중은 42.3%이며, “남북한 간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31.6%,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한 비중은 10.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당위 차원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와 관련하여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1.5%,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라고 응답한 비중이 20.3%로 나타났다.

2. 통일의 추진 방식과 가능 시기

1) 통일의 추진 방식

통일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현재대로가 좋다”라는 응답 비중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실제로 “현재대로가 좋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8년 16.8%에서 2019년 19.7%, 2020년 21.4%, 2021년 25.5%, 2022년 26.3%로 계속 상승하여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응답 또한 2018년 5.5%에서 2019년 5.8%, 2020년 6.8%, 2021년 8.0%, 2022년 8.9%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2) 통일의 가능 시기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2022년 조사에서 통일이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1.3%, “10년 이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9%로 두 항목 모두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31.6%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각각 40.9%와 35.3%로 40대(27.7%)와 50대(23.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통일이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현재의 분단 체제를 선호하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3. 통일의 편익에 대한 기대

1) 통일의 이익 기대감: 개인과 공동체

통일이 남한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50%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이 보다 약 2~30% 정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2)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념갈등, 지역갈등, 범죄문제에 있어 통일 이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4. 통일한국의 체제와 통일정책의 시급성

1) 통일 한국의 체제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와 관련하여 2022년 조사 결과는 2007년 조사 이래 다수 국민이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2년 조사에서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택한 응답의 비중은 45.5%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남북한 체제의 절충”을 선택한 응답은 2009년 최고치인 39.1%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2) 통일 정책의 시급성

국민들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북한 비핵화, 북한의 인권 개선, 군사적 긴장해소 등의 순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북한 핵 문제를 통일을 이루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2022년 조사 결과는 북한 비핵화가 “매우 시급하다”라는 응답의 비중이 2018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음을, 반면 “별로 시급하지 않다”라는 응답의 비중은 2018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데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한 대화 국면 속에 북한이 핵실험을 자제함에 따라 북한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지난 몇 년간 상승 추세를 보여주었던 북한의 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올해는 37.9%로 상승하여 200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미군 철수와 관련하여



여 “전혀 시급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32.4%로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보수화된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남북 간 회담의 시급성과 관련하여 “매우” 또는 “다소 시급하다”는 응답이 각각 10.8%와 46.1%로 201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별로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은 39.7%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 시기 수 차례 개최된 남북 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한 상황에서 남북 회담의 효능감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주요 특징 및 경향

요컨대 2022년 조사 결과는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 통일 이후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거나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통일 한국의 체제와 관련하여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통일정책의 시급성과 관련하여서도 북한 비핵화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보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보수 정부로의 정권 교체 이후 북한 인권 개선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과 미군 철수가 시급하지 않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2년 조사에 나타난 이러한 경향들이 앞으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변화 속에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통일의식조사

김범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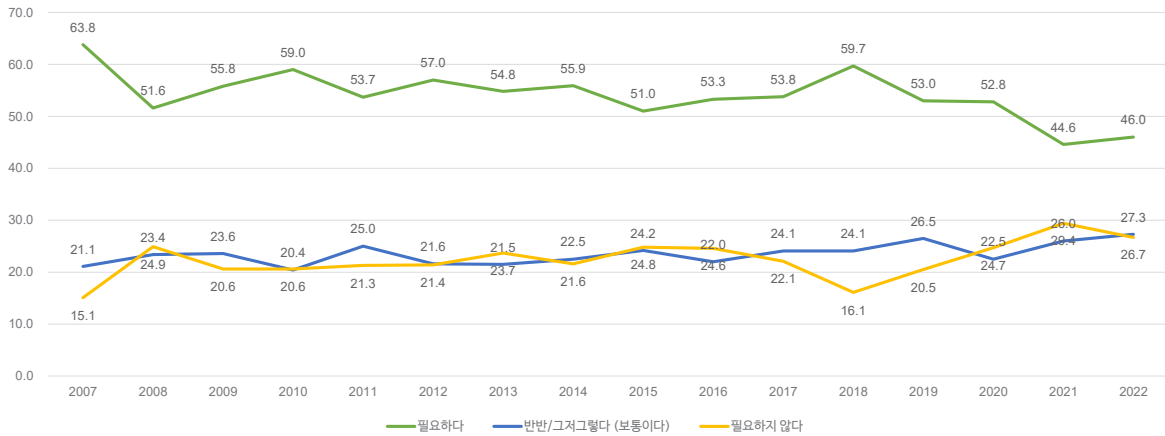
- 통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통일의 이미지	2018	2019	2020	2021	2022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58.1	60.6	62.9	64.3	58.1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	14.8	15.0	13.3	11.6	13.2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19.3	20.0	17.7	17.8	20.0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	7.5	4.1	5.8	6.3	8.8
기타	0.3	0.3	0.3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필요성

•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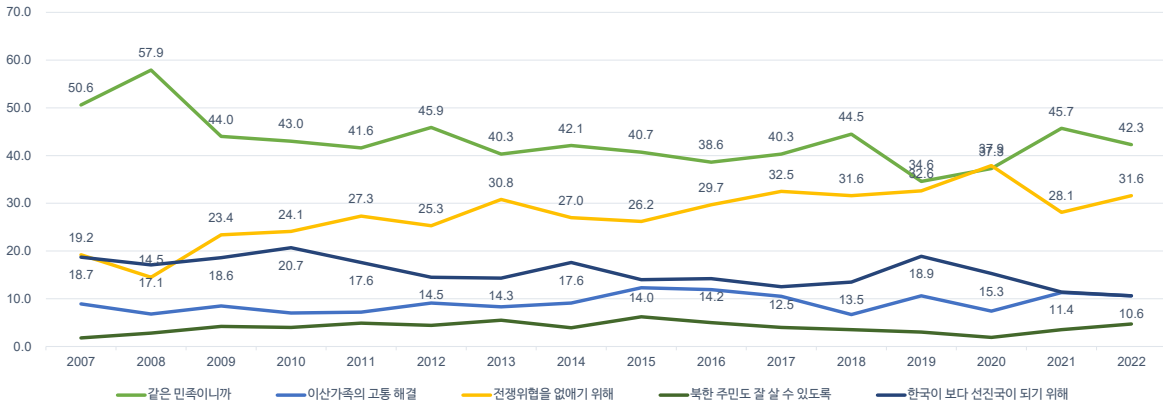
• 통일의 필요성 세대별 응답 비율

연령대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8	'19	'20	'21	'22	'18	'19	'20	'21	'22	'18	'19	'20	'21	'22	'18	'19	'20	'21	'22	'18	'19	'20	'21	'22
19~29 세	13.3	14.4	7.6	5.0	6.1	40.8	26.7	27.7	22.8	21.7	28.3	33.7	29.5	29.2	32.5	14.0	17.6	28.6	36.1	29.0	3.6	7.7	6.7	6.8	10.6
30대	17.3	11.7	16.8	9.6	7.3	35.6	26.5	26.2	31.3	26.7	27.4	36.9	26.2	24.5	33.8	17.5	21.5	23.8	28.8	24.2	2.3	3.4	7.0	5.8	8.1
40대	23.2	21.7	23.0	16.5	13.4	35.4	32.3	35.9	30.0	36.9	26.4	27.0	21.8	29.6	24.3	13.8	14.4	16.5	20.2	20.6	1.1	4.6	2.8	3.7	4.9
50대	27.2	25.9	28.0	15.1	18.6	42.2	36.1	34.9	31.8	31.8	16.0	21.0	18.4	26.4	30.3	13.3	14.6	13.0	22.5	16.3	1.2	2.5	5.8	4.3	3.0
60대 이상	24.6	25.1	26.9	20.6	23.8	37.5	41.7	33.6	36.4	37.4	23.4	15.6	18.2	21.0	18.4	9.3	11.4	18.6	18.0	16.5	5.2	6.2	2.8	4.0	3.9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이유

•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가장 큰 이유 교차 분석

통일 필요성	통일의 이유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 간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모름/무응답	합계 (N)
매우 필요		50.3 (89)	14.1 (25)	19.2 (34)	5.7 (10)	10.2 (18)	0.6 (1)	100.0 (177)
약간 필요		49.1 (183)	9.7 (36)	26.8 (100)	4.8 (18)	9.7 (36)	0.0 (0)	100.0 (373)
반반/보통이다		37.7 (127)	10.1 (34)	35.6 (120)	2.7 (9)	13.1 (44)	0.9 (3)	100.0 (337)
별로 필요하지 않다		37.0 (92)	10.4 (26)	41.0 (102)	4.8 (12)	6.8 (17)	0.0 (0)	100.0 (249)
전혀 필요하지 않다		23.4 (15)	10.9 (7)	35.9 (23)	9.4 (6)	18.8 (12)	1.6 (1)	100.0 (64)
합계		42.2 (506)	10.7 (128)	31.6 (379)	4.6 (55)	10.6 (127)	0.4 (5)	100.0 (1,200)

Pearson chi2(24) = 68.8231 Pr = 0.000

통일의식조사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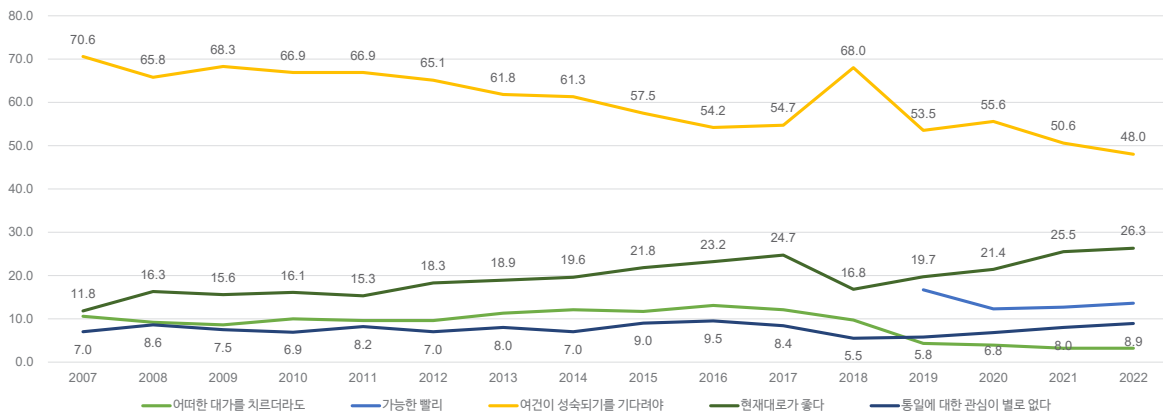
-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2018	2019	2020	2021	2022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	19.2	17.9	21.1	21.3	21.5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13.7	12.7	13.4	16.3	20.1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35.2	38.8	34.8	32.1	34.1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26.8	25.4	27.6	26.7	20.3
통일로 인한 주변국 경제의 불안정	4.5	4.6	2.6	3.3	4.0
기타	0.2	0.2	0.3	0.1	0.0
무응답	0.5	0.3	0.3	0.4	0.1
합계 (N)	1,200	1,200	1,200	1,200	1,200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추진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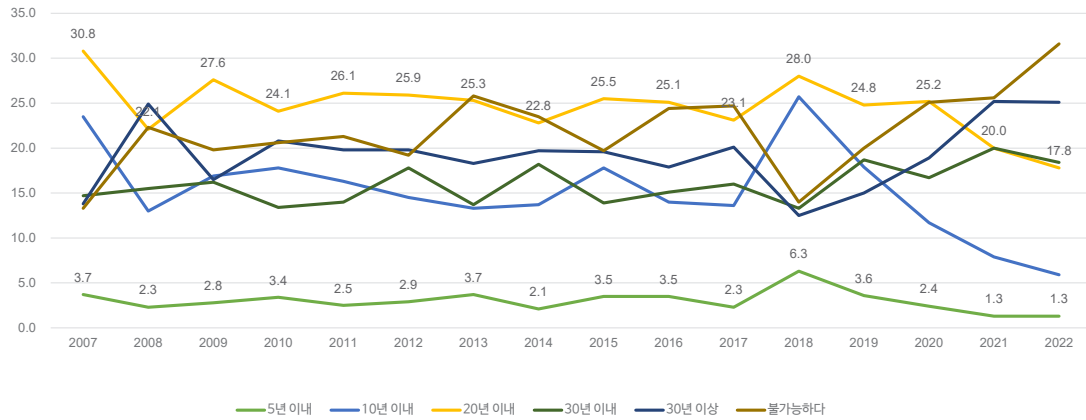
- 통일에 대한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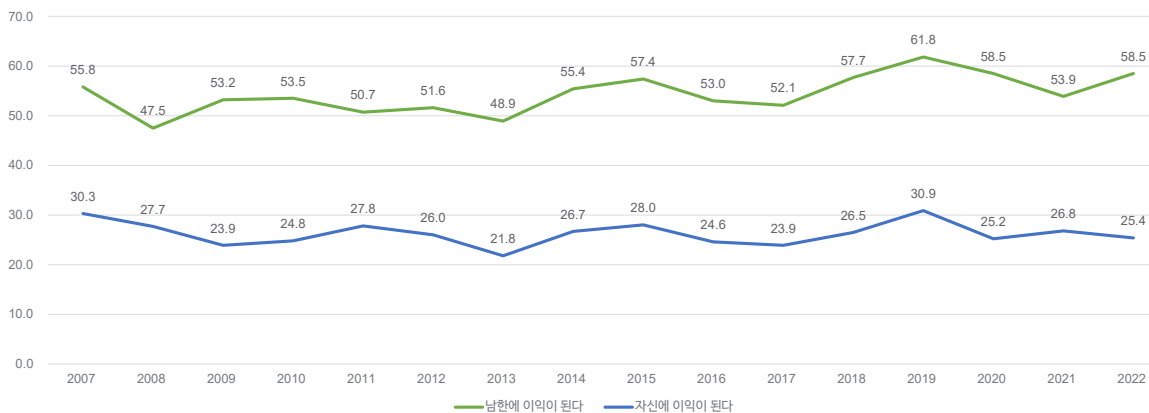
• 통일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이익: 전체와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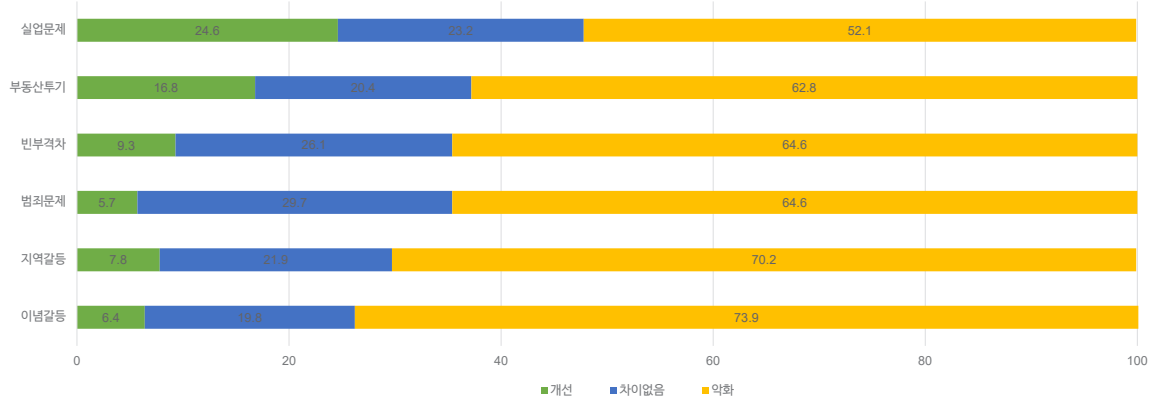
• 통일이 남한에 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식조사

☉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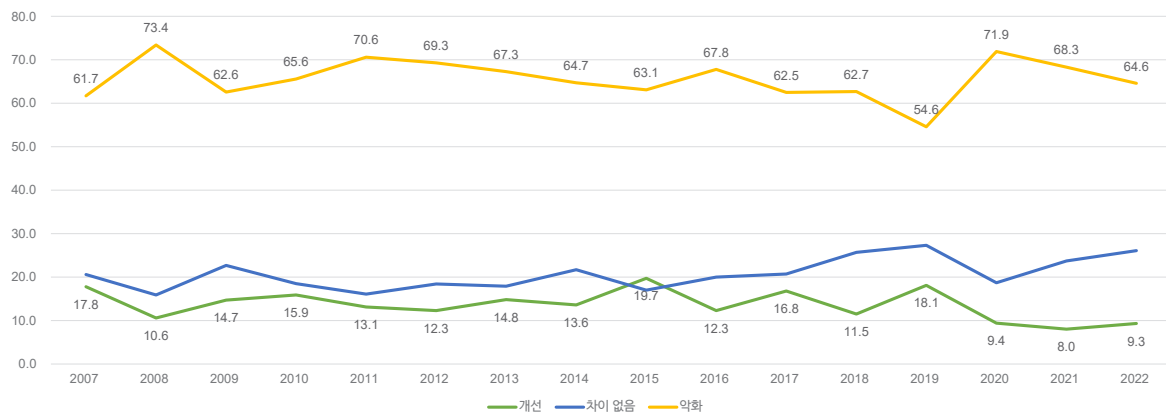
- 통일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통일의식조사

☉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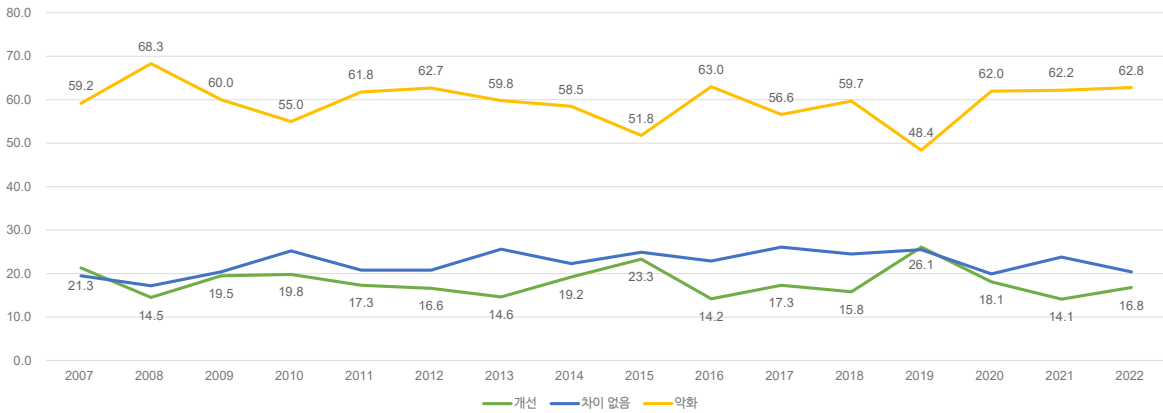
- 통일이 빈부격차 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통일의식조사

☉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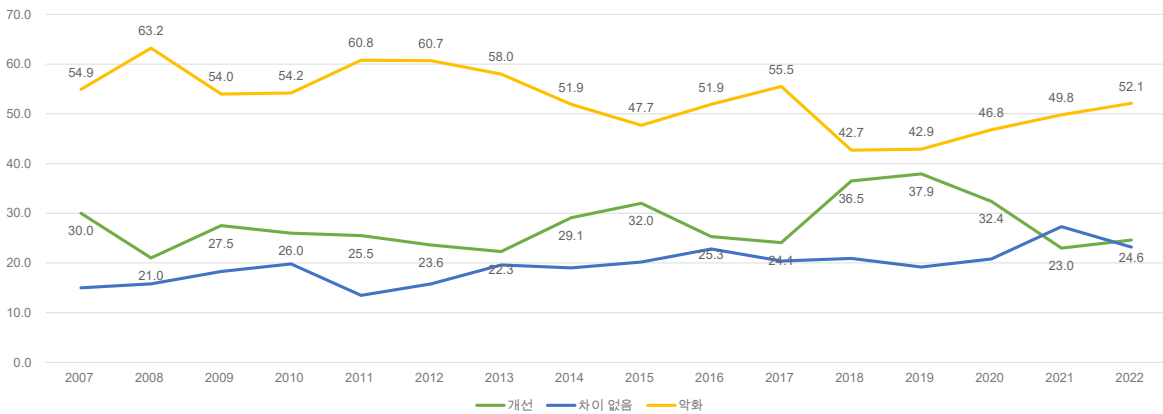
- 통일이 부동산투기 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통일의식조사

☉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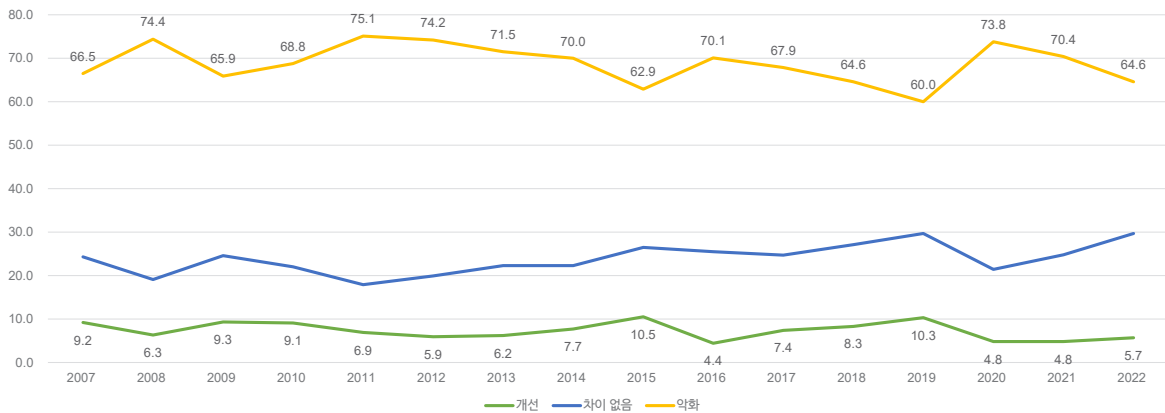
- 통일이 실업 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통일의식조사

📍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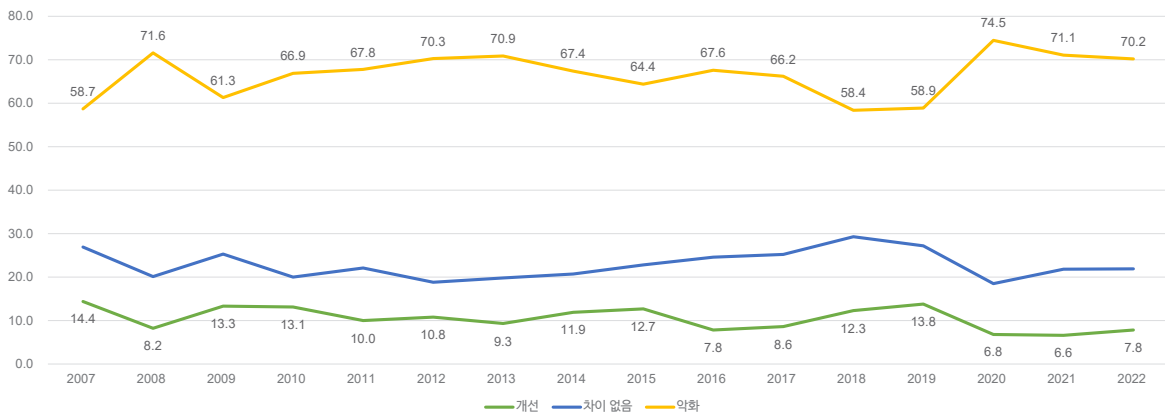
- 통일이 범죄 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통일의식조사

📍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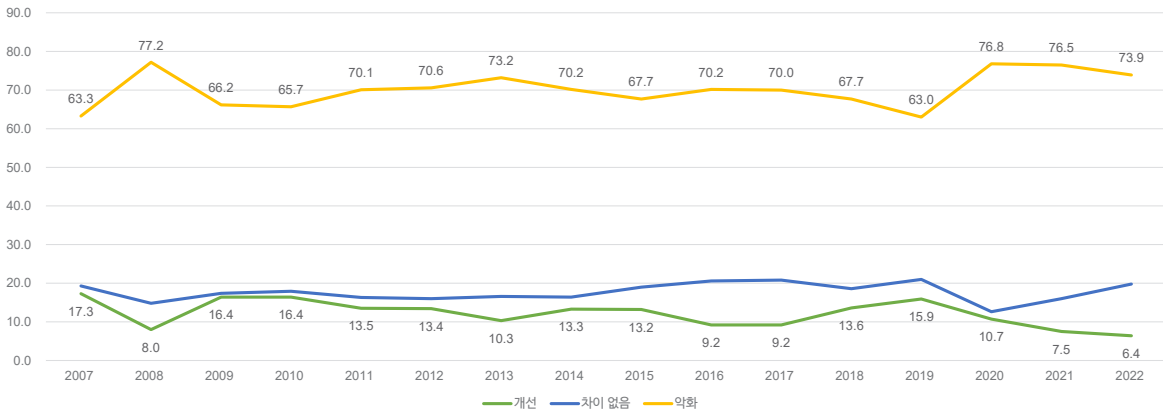
- 통일이 지역갈등 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통일의식조사

📍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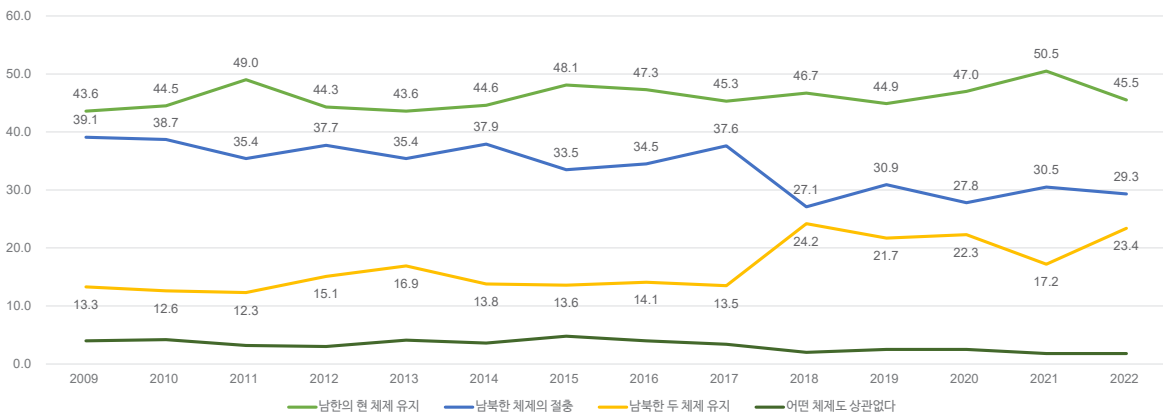
- 통일이 이념갈등 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통일의식조사

📍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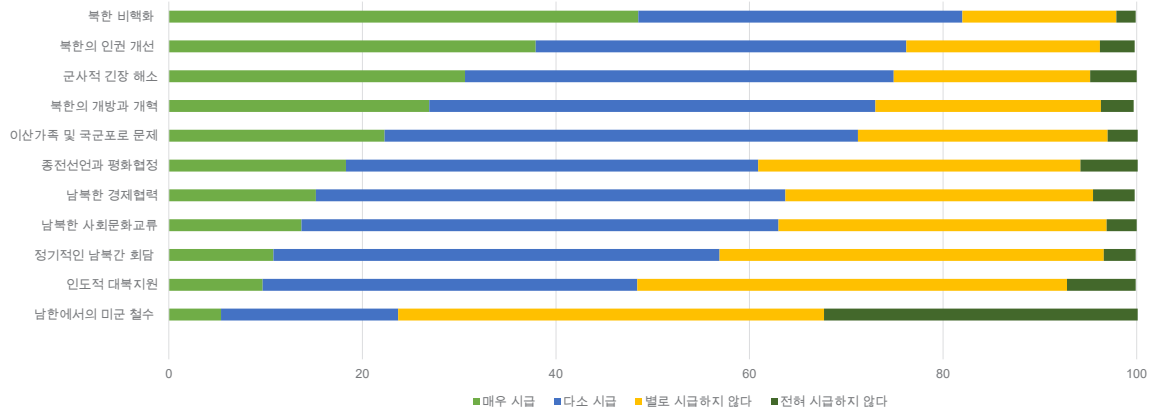
-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식조사

시급성에 대한 인식

-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특징 및 경향

통일의 필요성

-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줄어들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가 특히 20대와 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속
-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46.0%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21년 4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하락
- “전혀”와 “별로”를 합해 통일이 필요없다는 응답의 비중은 26.7%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21년 29.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상승
- 특히 20대(19~29세)의 경우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27.8%에 불과한 반면 “별로”와 “전혀”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39.6%에 달함
- 30대의 경우도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34.0%로 40대와 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32.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주요 특징 및 경향

● 통일 추진 방식

- 남북이 2국가로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 응답 비중이 최근 증가 추세
- “현재대로가 좋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8년 16.8%에서 2019년 19.7%, 2020년 21.4%, 2021년 25.5%, 2022년 26.3%로 계속 상승하여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비슷한 맥락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응답 또한 2018년 5.5%에서 2019년 5.8%, 2020년 6.8%, 2021년 8.0%, 2022년 8.9%로 계속 상승

주요 특징 및 경향

● 통일의 가능 시기

-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2022년 조사에서 통일이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1.3%, “10년 이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5.9%로 두 항목 모두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31.6%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각각 40.9%와 35.3%로 40대(27.7%)와 50대(23.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통일이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현재의 분단 체제를 선호하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

주요 특징 및 경향

● 통일정책의 시급성: 북한 핵 문제

-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북한 비핵화, 북한의 인권 개선, 군사적 긴장해소 등의 순서로 인식
- 이러한 결과는 북한 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북한 핵 문제를 통일을 이루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
- 그러나 이와 동시에 2022년 조사 결과는 북한 비핵화가 “매우 시급하다”라는 응답의 비중이 2018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음을, 반면 “별로 시급하지 않다”라는 응답의 비중은 2018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한 대화 국면 속에 북한이 핵실험을 자제함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시사

주요 특징 및 경향

● 통일정책의 시급성: 북한 인권 개선 문제, 미군 철수 문제, 정기적 남북 회담 등

- 한편 지난 몇 년간 상승 추세를 보여주었던 북한의 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올해는 37.9%로 상승하여 200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반면 미군 철수와 관련하여 “전혀 시급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32.4%로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이러한 결과는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보수화된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의 시급성과 관련하여 “매우” 또는 “다소 시급하다”는 응답이 각각 10.8%와 46.1%로 201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 반면 “별로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은 39.7%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 시기 수차례 개최된 남북 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한 상황에서 남북 회담의 효능감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결론

- **2030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지속**
 - 2022년 조사 결과는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 통일 이후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거나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줌
 -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비슷한 맥락에서 통일 한국의 체제와 관련하여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통일정책의 시급성과 관련하여서도 북한 비핵화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보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동시에 보수 정부로의 정권 교체 이후 북한 인권 개선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과 미군 철수가 시급하지 않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북한인식

김병로

북한에 대한 인식 (요약문)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

1. 대북 인식 전반적 정체 및 표류

- 북한발 안보불안의 상승과 북한 핵포기 불가능 최고조 상황에서 북한인식은 예년과 비슷한 정체 내지 표류하는 양상
 - 무력도발 가능성 56.3%→60.9%로 4.6%p 상승, 핵포기 불가능 89.1%→92.5%로 2007년 조사 이래 최고 수준
 - 협력/적대인식 정체, 2018년 고조된 대북협력의식이 2020년 약화 후 2년 연속 정체
 - 경계의식 완화(22.4%→17.7%), 지원의식 상승(10.9%→17.7%)
 - 정권신뢰도 33.7%→32.9%→32.9%로 정체
- 이러한 대북인식의 표류 및 혼재 양상은 높은 수준의 북한 핵위협 및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남한의 정권교체로 대북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핵위협 82.9%→81.9%로 높은 수준에서 정체
 - 북한 코로나19발생으로 대북 지원의식 상승
 - 영남권 대북협력의식 34.6%→42.5%로 급상승

2. 북한관련 경험, 인지도, 이질성 인식의 혼재

- 북한관련 경험과 인지도, 이질성 인식에서도 의식의 일관성 보다 혼재 양상 진행
 - 북한인지도 31.3%→32.6%로 소폭(1.3%p) 상승/정체 및 이질성 68.9%→71.2%로 2.3%p 상승
 - 북한방송,영화,음악 접촉 경험 소폭 하락, 유튜브,SNS 매체 접촉 소폭 증가

3. 세대, 지역, 이념 차이 유지 및 일부 수렴 현상 진행

- 작년(2021년)에 가장 큰 폭으로 진행된 세대/지역/이념에 따른 인식 분화가 금년(2022년)에는 부분적 유지 및 일부 수렴현상 진행으로 혼재 양상
- 전반적으로 20대보다 30대에서 대북 비판의식 및 부정적 인식이 상승하여 MZ세대 내 분리 진행
 - 20대의 대북 협력의식은 37.6%→42.9%로 높아진 반면, 30대는 50.3%→45.9%로 하락
 - 대북 정권신뢰도도 20대는 24.6%→29.3%로 증가한 반면, 30대는 29.3%→25.2%로 하락
- 지역적으로는 대북 인식의 수렴현상이 진행된 한편, 북한발 안보불안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충청/영남권이 수도/호남권에 비해 높은 안보불안 유지
 - 영남권 대북협력의식 34.6%→42.5% 급상승은 새정권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로 정권교체 효과

- 이념별로는 북한의 실체, 국가성 인식, 정권신뢰도, 북한발 안보위협 등 전반적 대북인식에 뚜렷한 차이 존재로 전형적인 대북인식 지형 형성
 - 진보와 중도는 보수보다 협력대상 의식 높고, 정권 신뢰도는 중도가 진보로 조금 기울어 있으며, 안보불안에서는 보수>진보>중도의 순으로 높음
 - 진보의 안보불안 급상승은 정권교체 효과가 작용한 것.
- 대북의식의 분화가 세대, 지역, 이념 간 유지 및 일부 수렴 현상이 진행된 데는 남북관계 경색 지속과 정권교체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
 -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대북의식의 변수별 분화가 유지되는 한편, 정권교체의 효과로 일부 변수의 수렴현상 진행

4. 전망

-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과 농촌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물리적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바,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이 없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대북의식의 정체와 세대/지역/정치성향별 의식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의 책임을 남한에 돌리며 보복을 예고하고 있어, 북한의 도발로 대북 부정/비판 인식이 재상승할 가능성 높으며, 세대/지역/정치성향별 의식은 다시 수렴할 가능성이 있음



북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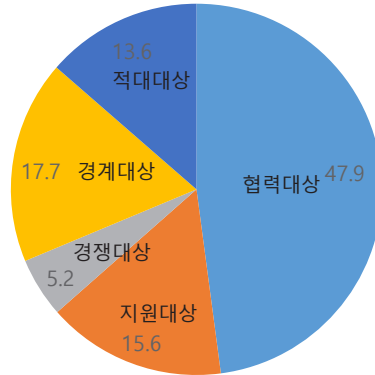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목 차

- I. 북한의 실체와 국가성 인식
- II. 북한정권 신뢰도
- III. 북한발 안보위협
- IV. 북한사회 인지도와 이질성
- V. 결론

I. 북한의 실체와 국가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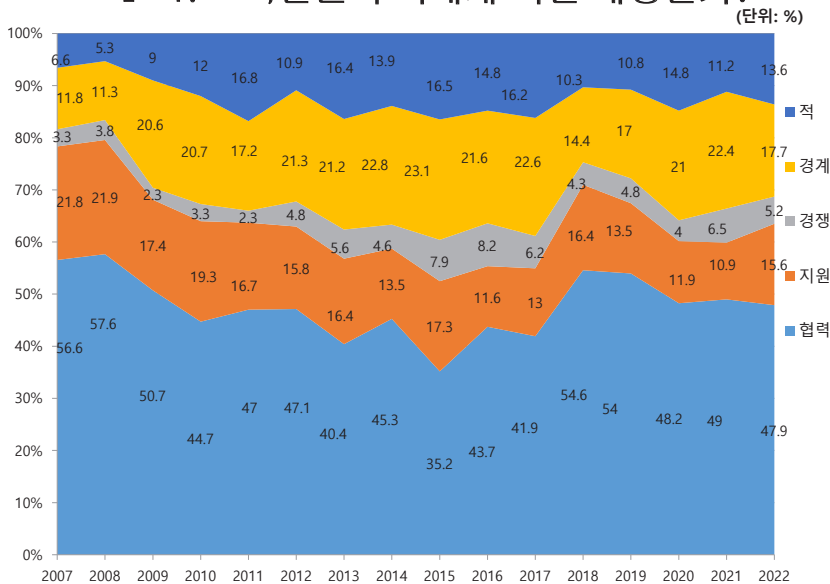
I-1.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실체인식) ^(단위: %)



- 협력대상+지원대상=63.5%, 적대대상+경계대상=28.9%
- 2021년, 협력+지원=59.9%, 적대+경계=33.6
- 협력/지원 의식 상승, 적/경계 의식 감소

I. 북한의 실체와 국가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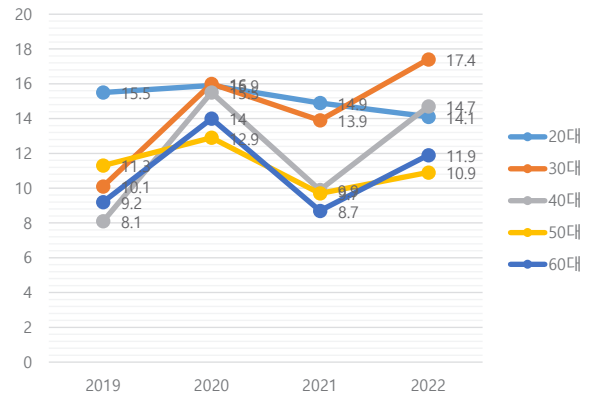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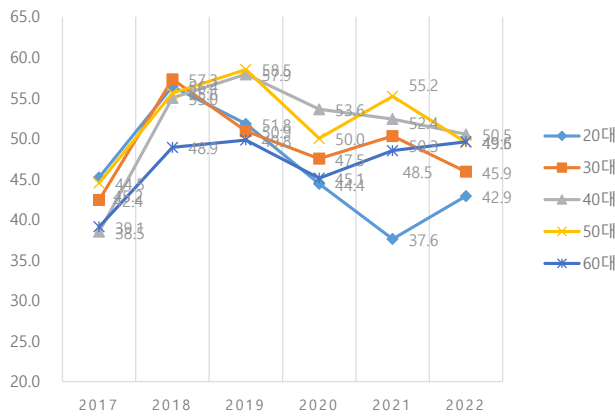
I-1.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 2018년 이후 협력의식 하락세 및 정체
- 하지만 **지원의식 상승** (10.9%→15.6%)
- 적대의식 소폭 상승, 경계의식 완화 (22.4%→17.7%)
- 지원의식 상승, 경계의식 완화는 북한 코로나19 사태 영향과 경색국면 속 정권교체로 대북 협력에 대한 기대 효과?
- 북한 미사일 도발 및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논란 지속 등 결과

I. 북한의 실체와 국가성 인식

I-1(1) 연령별 '협력대상' 및 '적대대상'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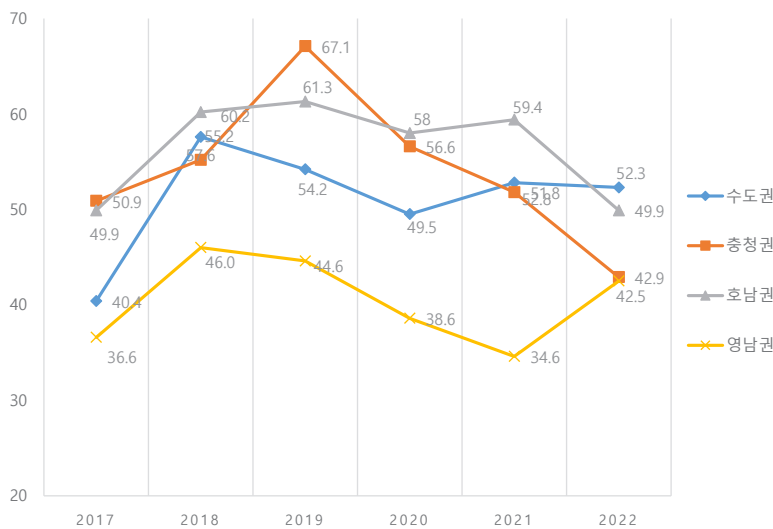


- 남북관계 경색 지속 국면 하, 세대별 대북 협력의식 수렴 현상 (p=0.031, 유의미한 차이 없음)
- 20대/60대 상승, 30대/50대 하락

- 전 연령층 대북 적대의식 상승, 20대만 소폭 하락(적대의식 완화)
- 30대와 20대, 즉 M세대와 Z세대의 분리

I. 북한의 실체와 국가성 인식

I-1(2) '지역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단위: %)



- 지역, 소득, 정치성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 하지만 지역별 인식 차이는 수렴 (좁혀짐)
- 호남/충청 하락 (충청은 대북 지원 13.4%→31.6%로 상승)
- 영남 34.6%→42.5%로 급상승, 수도권 정체, 새정권에 대한 기대, 정권교체 효과
- 강원권 대북경계/적대의식 상승, 16.3%→37.8%, 11.9%→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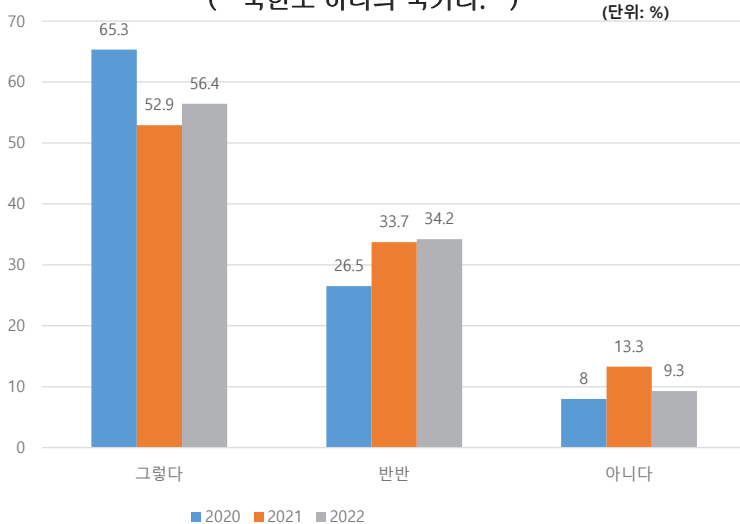
정치적 성향에 따른 대북인식 (단위: %)

구분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매우진보	24.1	60.3	3.4	6.9	5.2
약간진보	19.2	51.1	3.9	14.3	11.4
중도	12.3	50.3	7.6	17.4	12.3
약간보수	16.5	39.2	1.7	24.5	18.1
매우보수	15.2	17.4	6.5	37.0	23.9

p=0.000

I. 북한의 실체와 국가성 인식

I-2. 북한의 국가성 인식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비율 소폭 상승, 52.9%→56.4%

- 탈냉전 이후 북한의 국가성 강화 추세 (57.9%->58.8%->61.2%->65.3%로 2020년 정점 후 소폭 하락)

- 국가성 인정은 지역, 정치적 성향과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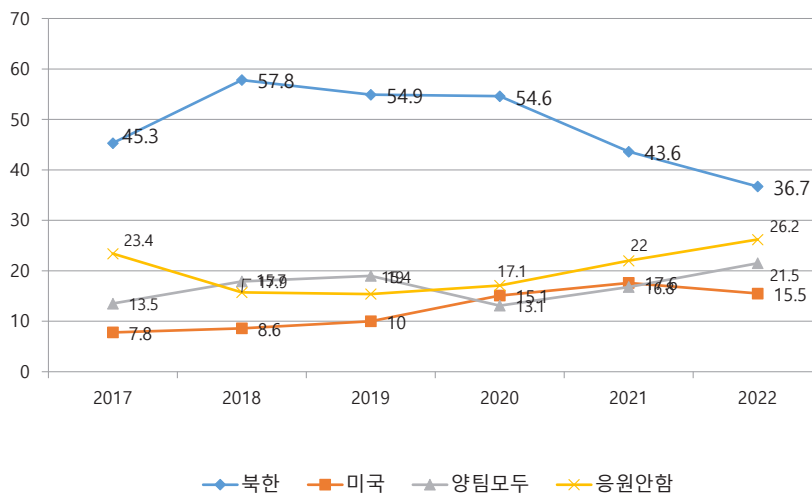
- 지역: 호남(68.4%)>수도권(59.2%)>제주(56.1%)>충청(54.2%)>영남(49.6%)>강원(35.2%)

- 수도권 49.3%→59.2% 급상승, 강원 60.2%→35.2% 급락이 대조적

- 정치성향: 진보(61.7%)>중도(57.7%)>보수(47.0%)

I. 북한의 실체와 국가성 인식

I-3. 북한의 국가성 인식: 민족의식 "북미 월드컵 경기사 응원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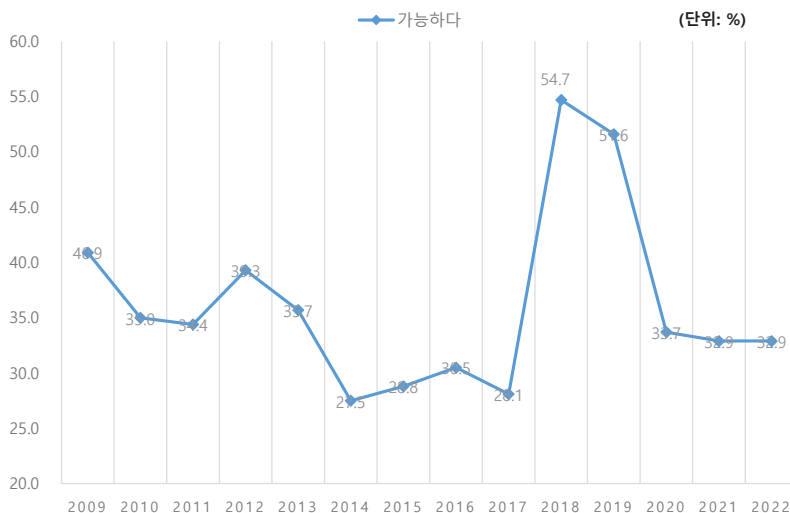


- 북한, 미국 단일국 응원 감소, 북한 감소폭 더 큼
- 양팀 모두 응원, 양팀 모두 응원안함 동시 증가
- 민족의식 약화

교육연구회회장

II. 북한정권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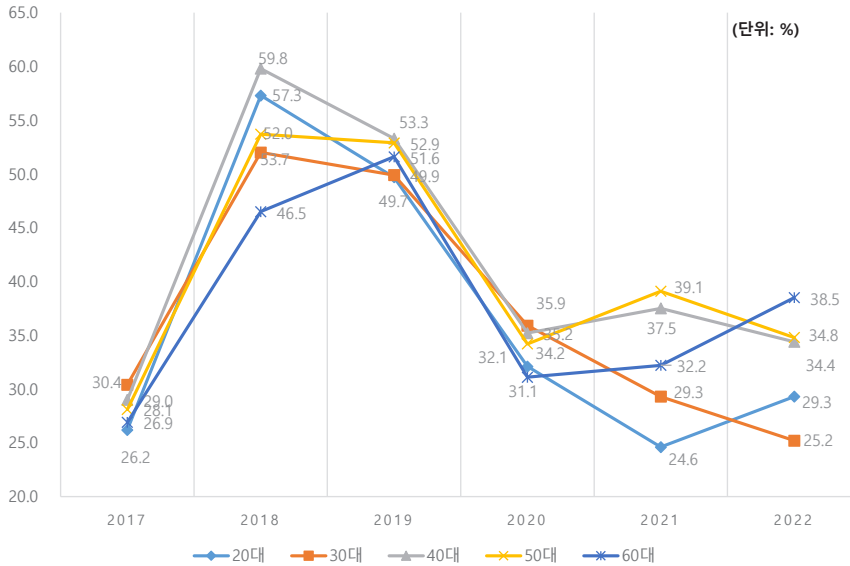
II-1. 대화와 타협의 상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



- 32.9% 남한주민,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
- 2018년 기록적인 신뢰상승 및 급락 후 3년간 지속,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 상실
- 연령, 지역, 소득, 정치성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존재

II.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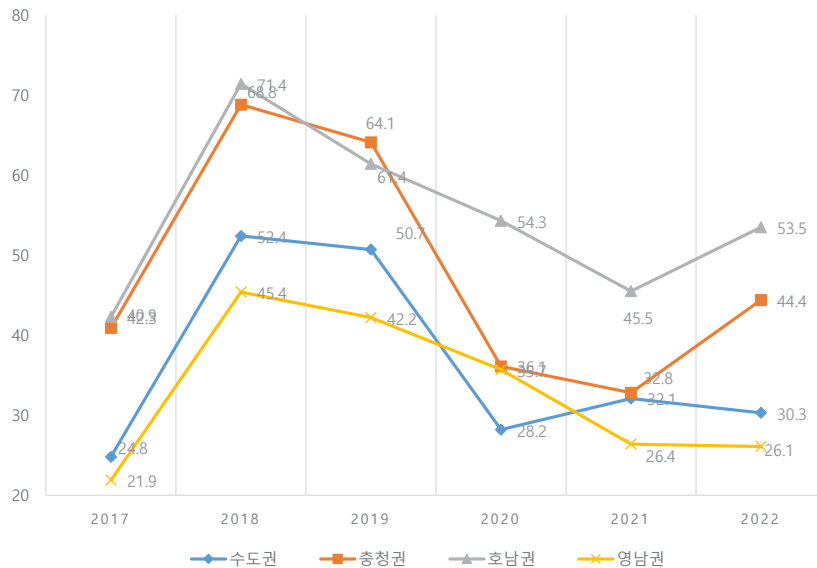
II-1(1) 연령별 북한정권 신뢰도: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 가능



- 북한 정권 신뢰도 연령별 의식 분화 진행(유지)
- 2021년 가장 큰 폭으로 분화된 후 올해도 추세 유지
- 하지만 연령별 지형은 큰 변화
- 20대/60대 상승
- 30대/40대/50대 하락
- 30대의 북한정권신뢰도 가장 낮음 (30대의 대북 비판의식 형성이 특이한 현상)

II. 북한정권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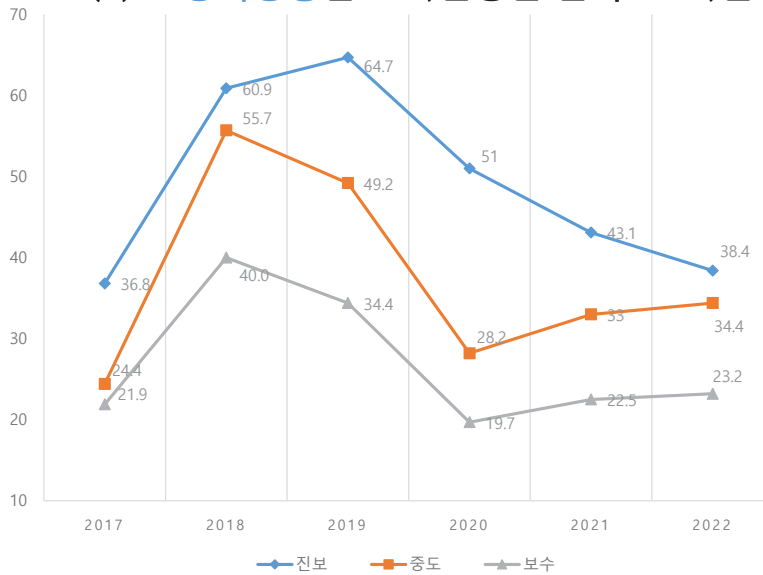
II-1(2)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 가능



- 북한정권 신뢰도 지역별 차이 뚜렷
- 호남/충청 높은 신뢰
- 수도/영남 낮은 신뢰
- 변화 추이는 호남/충청/강원 상승
- 수도/영남/제주 하락/정체

II. 북한 정권 신뢰도

II-1(3)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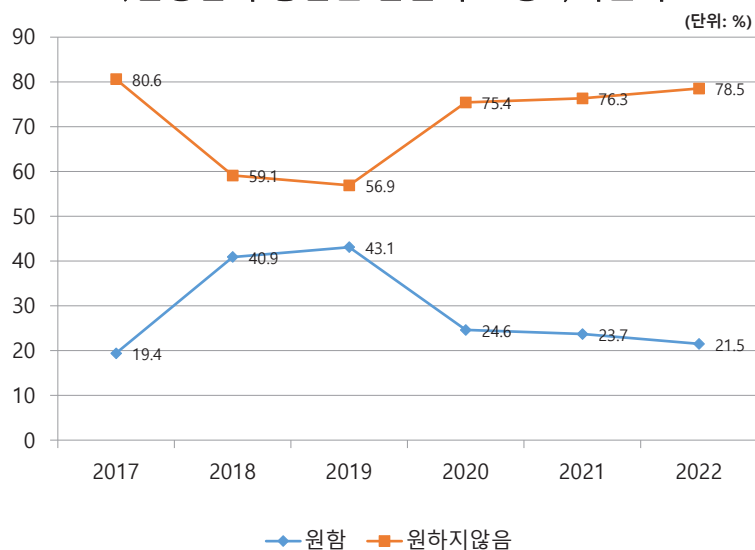
-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는 정치성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진보-중도-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

- 남북관계 극도로 경색된 2014년과 2017년 중도의 보수화, 평화조성 국면의 2018년 중도의 진보화 진행

- 2021년 중도가 진보와 보수 정중앙에 위치, 2022.4대선 박빙 예상 적중
- 2022년 중도가 진보로 이동하는 경향

II.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II-2.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 2018-2019년 상승 후 하락 추세, 최근 2년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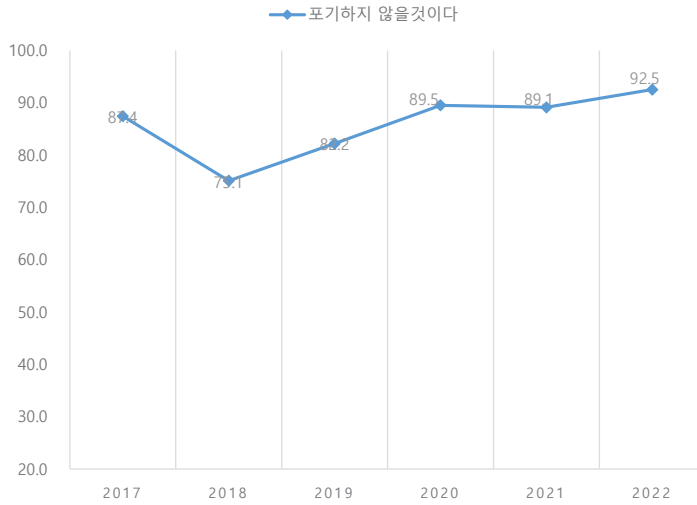
- 지역, 소득수준, 정치적 성향과 상관관계

- 호남(29.15%) > 충청(28.2%) > 수도(22.6%) > 강원(15.6%) > 제주(14.7%) > 영남(14.1%)
- 진보(27.1%) > 중도(20.1%) > 보수(16.7%)

II.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II-3. 북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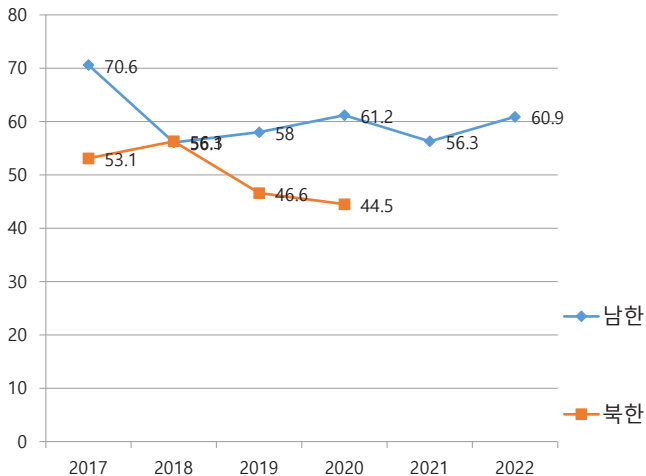


-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은 **92.5%**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
- 국민들 북한 비핵화 가능성 인식 최저, 북한 실질적 핵보유 상태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 변수별 차이 없이 수렴현상

III. 북한발 안보위협 인식

III-1.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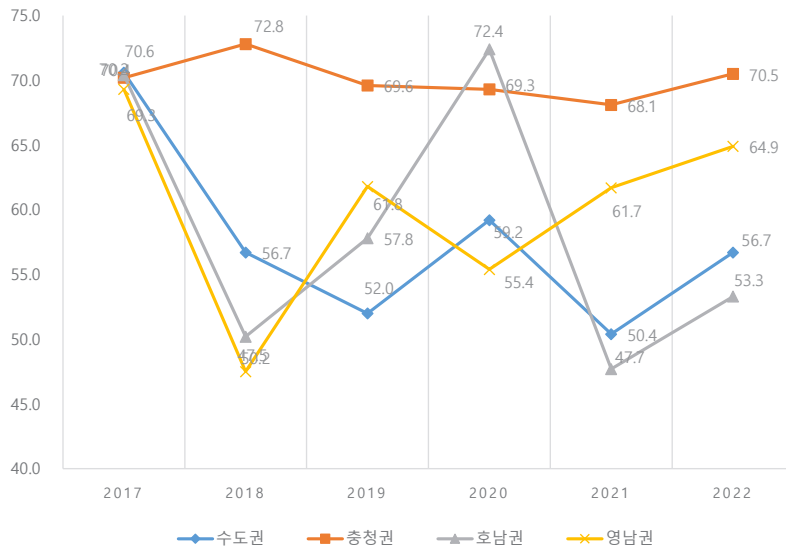


-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61.2%→56.3%→60.9%로 **상승**, 안보불안정
- 시계열로 보면, 남북관계 안정적인 1993년 47.7%, 1999년 44.3%, 2005년 43%, 2011년 78.3% 등으로 지난 30년 간의 경험 속에서는 북한발 안보불안 중간 수준.
- 북한주민의식과 비교하면 대칭적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의식
- **지역, 교육, 소득, 정치성향**과 상관관계

Ⅲ. 북한발 안보위협 인식

Ⅲ-1(1)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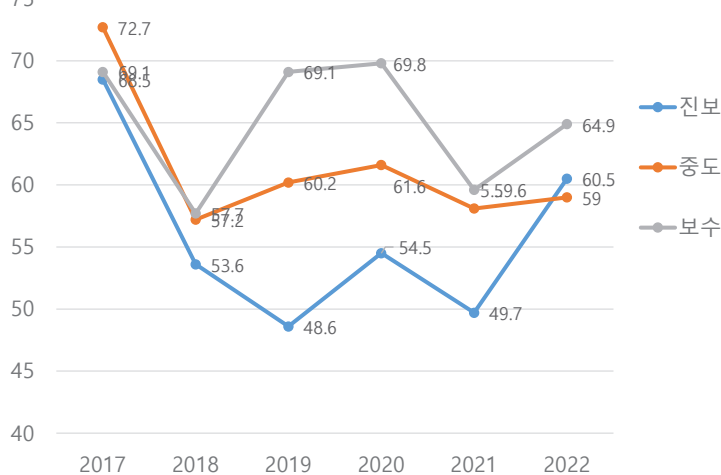


- 무력도발 전반적 상승
- 충청이 가장 높게 예상, 영남, 수도권, 호남 순 (작년과 동일)

Ⅲ. 북한발 안보위협 인식

Ⅲ-1(2) '이념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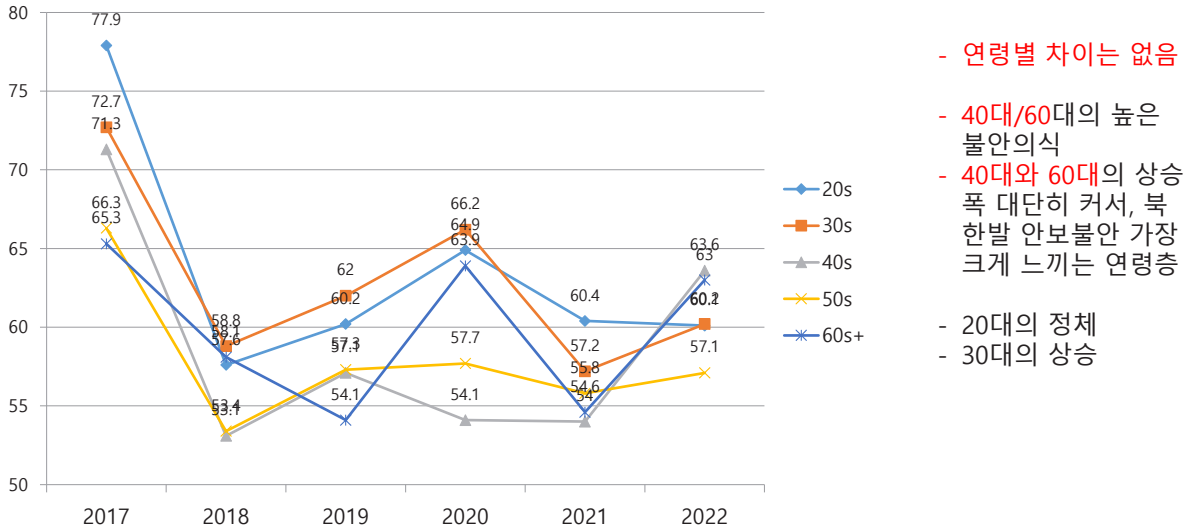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있다



- 진보의 안보불안 급상승. 정권교체 효과, 즉 보수정권에 대한 진보정권의 안보불안의식 반영 (진보에 적용).
- 하지만 보수의 안보불안은 그럼에도 완화되지 않아, (보수에게는) 정권교체 효과보다 북한발 안보불안이 더 강력하게 작용.
- 따라서 정권교체로 인한 효과는 부분적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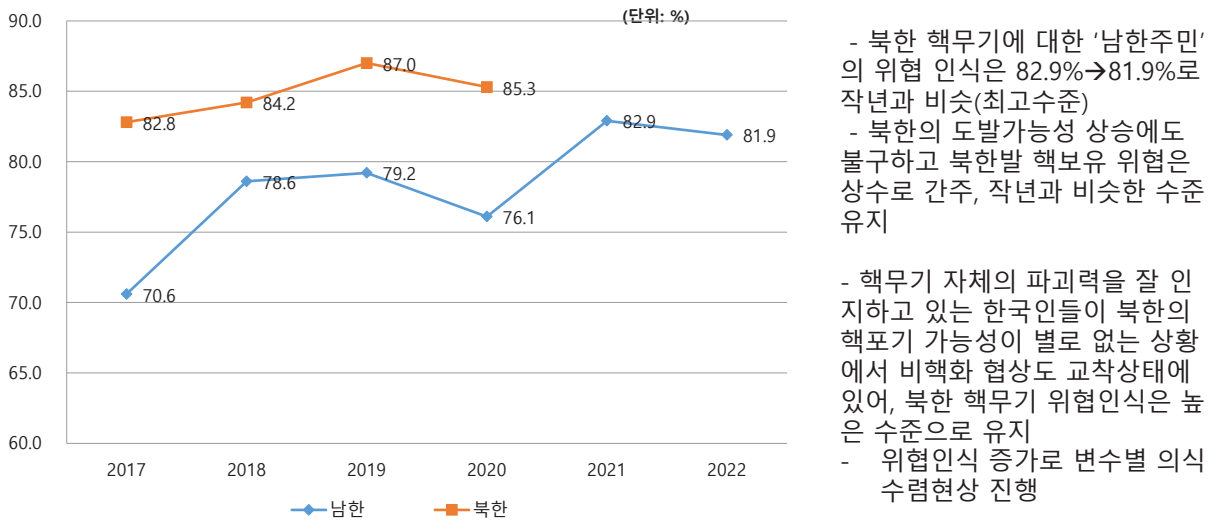
Ⅲ. 북한발 안보위협 인식

Ⅲ-1(3) '연령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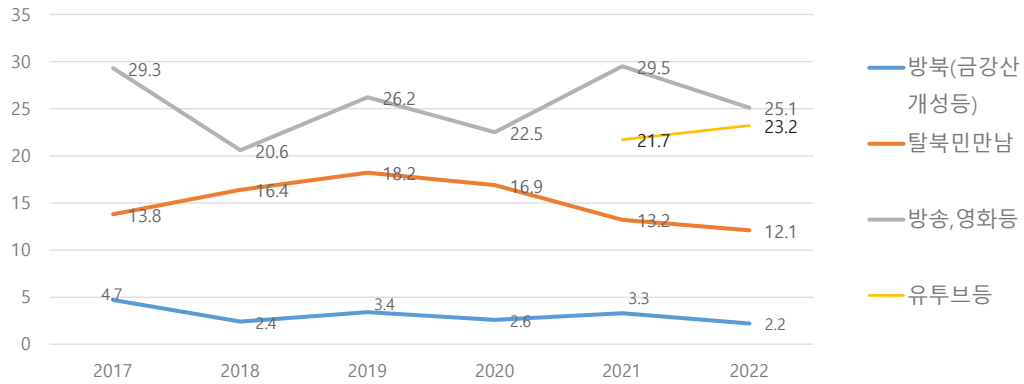
Ⅲ. 북한발 안보위협 인식

Ⅲ-2. 북한 핵보유 위협 인식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는가?”)



IV. 북한 관련 경험, 인지도 및 이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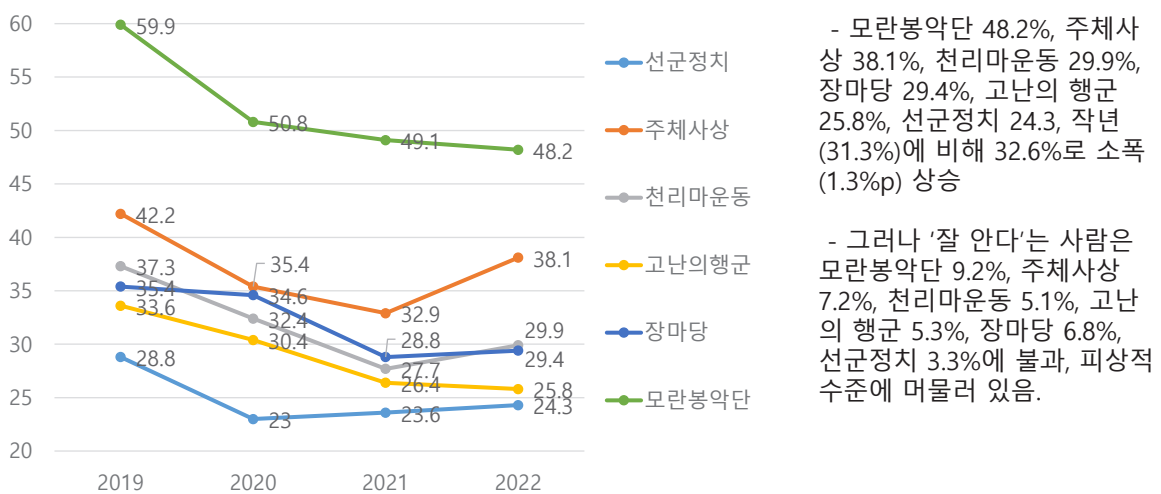
IV-1. 북한 관련 경험 유무 (“경험한 적이 있다”)



- 북한관련 경험은 북한방송, 영화, 음악 등 접촉경험 25.1%, **유튜브, SNS 매체 통해 접촉 23.2%**, 탈북민 만남 12.1% 등.
- 국내입국 탈북자수 급감 1,047명(19)→229(20)→63(21)→19(22.6)

IV. 북한사회 인지도와 이질성

IV -2. 북한사회 인지도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잘안다+조금안다)



- 모란봉악단 48.2%, 주체사상 38.1%, 천리마운동 29.9%, 장마당 29.4%, 고난의 행군 25.8%, 선군정치 24.3, 작년(31.3%)에 비해 32.6%로 소폭(1.3%p) 상승
- 그러나 '잘 안다'는 사람은 모란봉악단 9.2%, 주체사상 7.2%, 천리마운동 5.1%, 고난의 행군 5.3%, 장마당 6.8%, 선군정치 3.3%에 불과,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IV. 북한사회 인지도와 이질성

IV-3. 남북 이질성 (“남북간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단위: %)

	남한(2022)	북한(2020)
선거방식	90.1	97.2
사회복지	90.1	93.6
언어사용	79.9	92.7
생활풍습	69.4	82.5
가족중시	42.8	69.7
돈중시	55.1	72.5
평균	71.2	84.7

- 남북한 주민 이질성 인식 평균 남한 71.2%(작년 68.9%)
- 2011년 91.9%에서 지속 감소 추세
- 2019~2021년, 81.8→77.4→68.9→71.2%로 이질성 재상승
- 북한 84.7%(2020)
- 북한도 2014년 95.7%에서 지속 감소 추세

V. 결론(1)

- 첫째, 북한발 안보불안 상승, 북한 핵포기 불가능 최고조 상황에서 북한인식 예년과 비슷한 **정체, 표류 및 혼재 양상**
 - 무력도발 가능성 56.3%→60.9%로 4.6%p상승, 핵포기 불가능 89.1%→92.5%로 2007년 조사 이래 최고 수준
 - 협력/적대의식 정체, 경계의식 완화(22.4%→17.7%), 지원의식 상승(10.9%→15.6%)
 - 2018년 고조된 대북협력의식, 2020년 악화 후 2년 연속 정체
 - 정권신뢰도 33.7%→32.9%→32.9%로 정체
- 북한 핵위협 높은 수준 정체 및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남한의 정권교체로 대북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북한 코로나19발생으로 대북 지원의식 상승
 - 영남권 34.6%→42.5%로 대북 협력의식 급상승

V. 결론(2)

- 둘째, 북한관련 경험과 인지도, 이질성 인식에서도 의식의 일관성보다 혼재 양상 진행
 - 북한방송,영화,음악 접촉 경험 소폭 하락, 유튜브,SNS 매체 접촉 소폭 증가
 - 북한 인지도 31.3%→32.6% 소폭(1.3%p) 상승/정체 및 이질성 68.9%→71.2%로 2.3%p 상승
- 셋째, 세대, 지역, 이념에 따른 의식 분화는 작년에 가장 큰 폭으로 진행, 금년에 부분적 유지 및 일부 수렴 현상
 - 20대보다 30대의 대북 비판,부정 의식 상승, MZ세대 내의 분리
 - 영남권 대북 협력의식 급상승(34.6%→42.%)은 정권교체 효과
 - 진보-중도-보수의 이념 간 편차 확연, 전형적인 대북의식 지형
-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세대, 지역, 이념 간 의식 분화 유지 및 정권교체 효과로 부분 수렴 현상 진행

V. 결론(3)

- 넷째,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과 농촌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물리적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바, 대북의식의 정체와 세대/지역/이념별 의식분화가 유지될 가능성
- 하지만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의 책임을 남한에 돌리며 보복을 예고하고 있어, 북한의 도발로 대북 부정/비판 인식 재상승 가능성 높으며, 세대/지역/이념별 의식은 다시 수렴할 가능성 존재



감사합니다.

대북정책인식

김학재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요약문)

김학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조교수)

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가. 2022년 정권교체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는 상승하였다.

- 1)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2021년 35.1% 대비 10.5% 상승한 45.5%였다.
- 2) 지난 15년간 대북정책 만족도는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18년 가장 높던 만족도가 점차 하락하여 2021년에 2012년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2022년에 다시 상승하였다.
- 3) 2022년의 정책만족도 상승은 보수층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진보의 만족도가 낮아진 결과이다.

나. 2007~2022년까지 16년간 대북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이념, 나이, 지역이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

- 1) 정책 만족도 자체는 2007년 이후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시기별로 만족도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는 변인은 이념성향, 나이, 그리고 거주 지역이었다.
- 2) 2차 남북정상회담이 2007년에는 진보의 만족도가 높고 호남과 강원이 만족, 기독교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 3)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수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은 영남이 만족도가 높았다. 보수 정부 시기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기독교 만족(2012년까지)도가 높았다.
- 4) 보수 정부 기간 동안 호남은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낮았고, 시기에 따라 중부권, 강원, 제주등도 만족도가 낮아졌다.
- 5)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2017년부터는 5년간 진보의 만족도가 높고 호남이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 6) 결국 대북 정책만족도는 매우 뚜렷하게 한국의 이념-지역 정치지형을 반영하고 있다.

2.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의견

가. 최근 4년간 핵무장 찬성 의견 급증하는 추세로 2022년에는 작년 대비 10%가 증가했다.

- 1) 핵무장 찬성여론이 2013~2017까지 반대여론이 더 높았으나, 2018~2019년에 찬성여론이 매우 낮아졌으나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22년에 최고 수준인 55.5%를 보였다.

나. 해외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핵무장 찬성의견은 71%에 달하고 있다.

- 1) Chicago Council의 2022년 2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1%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으며 국민의 힘 지지층의 81%, 민주당 지지층의 66%가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다.
- 2) 한국의 단독 핵무장 찬성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계분석한 결과 보수일수록, 국민의 힘 지지자 일수록,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수도권에 비해 대구경북 거주자일수록 찬성여론이 높았다.
- 3) 여러 제재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계분석한 결과 국민의 힘 지지자일수록, 남성일

세션 1 | 조사결과

수록 지지할 확률이 높았고, 정의당 지지층과 여성,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핵무장에 대한 찬성도가 낮았다. 교육, 소득은 통계적 영향이 없었고, 현재 가장 큰 위협을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보는 경우, 미래의 위협을 미국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핵무장에 반대했다.

다. 통일평화연구원의 여론조사 자료예를 통해 10년간(2013~2022)의 여론을 확인한 결과 핵무장 찬성의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나이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인식이었다.

- 1) 지지 정당, 이념, 성별, 나이, 거주 지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인식(대화와 타협 가능, 북한의 핵포기 여부)을 포함한 결과 Chicago Council 조사 결과와 달리 이념, 성별의 통계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일시적이었으며, 가장 큰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는 변인은 나이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인식이었다.
- 2) 일관된 정당의 입장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며, 단 2014-15년, 2019년, 2020년에만 정당의 입장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3) 지역여론은 일관되지 않으며 예상과도 달랐다. 10년간 핵무장 찬성의견을 보인 지역의 빈도는 호남 4, 강원 4, 영남 2, 중부권 2회 순이며, 핵무장 반대 의견을 보인 지역의 빈도는 중부권 3, 호남 2, 제주 2, 영남 1, 강원 1회 순이었다. 즉 호남은 강원과 함께 핵무장에 있어서 보수적, 비관적 입장을 보이며, 핵무장 반대의견이 가장 자주 확인되는 지역은 중부권이었다.
- 4) 지역의 여론은 남북관계, 비핵화 협상에 큰 기대와 비관을 오가는 것으로 보이며, 핵문제라는 특수하고 큰 과제에 대해 일시적인 의견 결집이나 변화가 이루어지는 양상으로 보인다.

3. 통일과 평화공존 지향에 대한 여론

가. 대북정책의 목적으로 통일, 평화공존, 개혁개방과 통합중 가장 선호하는 방향은 평화공존과 평화정착으로 나타났다.

- 1)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로 통일을 선택한 여론은 전년 대비 2.2%감소했고 (18.6→16.8), 평화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착 여론은 7% 증가했다. (56.8% → 62.7%)
- 2) 2021년과 2022년의 조사 결과를 통계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통일을 정책 목표로 선택할 가능성은 2021년에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2022년에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았고,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은 부정적이었다.
- 3) 평화공존의 경우 2021년에는 교육수준 높을수록, 중부권 영남 거주자일수록 평화공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고, 2022년에는 자영업, 블루칼라, 전업주부일수록 영남권 거주자일수록 기독교인일수록 평화공존 지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7. 결론

- 가. 2022년 정권 교체 이후 대북정책 만족도가 상승하였고, 보수층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상승했음
- 나. 지난 16년간 대북정책 만족도는 이념-여야-지역 차원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한국 정치 지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다. 최근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최고치로 증가했음
- 라. 핵무장 찬성 여론은 이념, 정당, 지역, 나이 차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큰 영향
- 마. 정부 정책 목표로 통일에 비해 평화공존-평화구축 여론이 상승했음
- 바. 통일여론은 소득과 관련된 현실의 희망을 반영하고, 평화공존은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직업과 지역 여론을 반영
- 사. 정책 만족도, 핵무장-비핵화 찬반 여론은 한국의 이념-정치-지역 구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대북정책 만족도 자체를 올려 가면서도 가급적 이념과 지역 만족도를 모두 높여가는 정치,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
- 아. 한국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면 일본의 핵무장, 대만의 전략 인식 변화 및 미중간의 큰 긴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핵무장 반대 여론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필요

2022. 9. 27. 2022 통일인식조사

대북정책 분야

김학재(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년의 대북정책 여론

• 2022년 조사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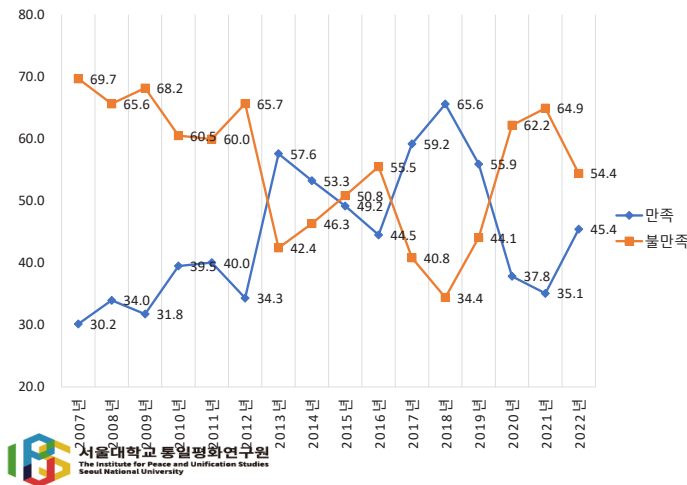
-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해
- 코로나19의 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경제 상황 악화
- 탈북주민 북송 논란이 제기되던 시기의 여론조사
- 대부분 기존 설문 항목 유지

• 2022년 분석 내용

- ① 대북정책 만족도
- ② 한국의 핵무장 관련 의견
- ③ 통일과 평화공존 의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 대북 정책 만족도 전년 대비 10.5% 상승
- 15년간 정책 만족도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2021년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
- 2022년 정책만족도 상승은 보수층의 만족도가 상승한 결과
- 지역별 영남 만족도 상승, 충청 만족도 하락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 ✓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언제, 왜 상승/하락하며 정권 교체와 정책방향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가?
- ✓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는 이념, 연령, 소득, 지역, 종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 ✓ 통일의식조사 2007~2022년 16년간의 대북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순위로지스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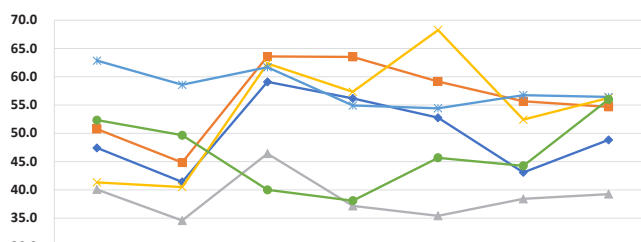
[표 1] 대북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 순위로지스틱 분석 결과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이념	0.494 ***	- 0.200 **	- 0.133 *	- 0.237 ***	- 0.114	- 0.399 ***	- 0.235 ***	- 0.496 **	- 0.186 **	- 0.796	- 0.274 ***	0.647 ***	0.788 ***	0.946 ***	0.722 ***	- 0.301 ***
	0.073	0.070	0.069	0.071	0.072	0.073	0.072	0.076	0.075	0.073	0.073	0.081	0.080	0.077	0.076	0.071
나이	0.005	0.023 ***	0.007	0.015 **	0.017 **	0.009	0.217 ***	0.019 **	0.017 **	0.018 ***	- 0.003	- 0.007	0.006	0.005	0.002	0.008
	0.006	0.006	0.006	0.006	0.006	0.006	0.006	0.006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지역 만족	호남 0.778 *** (0.204) 강원 0.848 ** (0.332)	영남 0.955 *** (0.140)	영남 0.432 ** (0.144)	영남 0.518 *** (0.145)	영남 0.279 ** (0.141)	영남 0.551 *** (0.139)	영남 0.437 ** (0.143) 제주 0.994 * (0.549)	영남 0.294 ** (0.149)	-	영남 0.339 ** (0.145)	호남 0.341 ** (0.193)	호남 1.261 *** (0.207) 충부 0.400 ** (0.201)	호남 1.006 *** (0.198) 충부 0.475 ** (0.198)	호남 1.570 *** (0.199) 영남 0.285 ** (0.150) 제주 0.889 ** (0.396)	호남 0.956 *** (0.203)	영남 0.352 ** (0.145)
불만 족		호남 0.607 ** (0.197)	호남 0.897 *** (0.203) 충부 0.402 ** (0.200)	호남 0.996 *** (0.206) 강원 0.362 ** (0.347) 제주 1.099 ** (0.538)	호남 0.067 *** (0.202) 충부 0.373 ** (0.197) 제주 1.099 ** (0.538)	호남 0.784 *** (0.210)	호남 0.992 *** (0.204) 강원 0.382 ** (0.386)	호남 0.765 *** (0.190)	호남 0.984 *** (0.191)	호남 0.886 *** (0.199) 0	영남 0.388 ** (0.148) 강원 0.822 ** (0.303)	-	영남 0.400 ** (0.145)		영남 0.540 *** (0.147) 강원 0.572 ** (0.335)	충부 0.866 *** (0.187)
종교	기독교 - 0.312 *	기독교 - 0.494 **	기독교 - 0.369 **	기독교 - 0.290 *	-	기독교 - 0.346 *	-	-	-	-	-	기독교 0.412 *	-	-	-	-
	0.167	0.172	0.170	0.176		0.181						0.215				

- 정책 만족도에 지속적 영향을 주는 변인: **이념, 나이, 지역**
-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에는 진보, 호남, 강원, 기독교의 만족
- 2008~2016년 사이는 보수의 만족도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영남이 만족 (기독교)
- 2008~2016년 사이 호남은 만족도가 낮고, 충부, 강원, 제주 등도 낮아짐
- 특히 2010-2011년에 여러지역 만족도 낮아짐
- 정권 교체후 5년간 진보, 호남이 만족도가 높음
- 2018~2020 정상회담시 충부, 영남, 제주 만족도 상승
- 이후 보수, 중도 만족도 하락

⇒ 한국의 대북정책 만족도는 매우 뚜렷하게 한국의 이념-지역 정치지형의 영향을 받는다

대북 정책별 찬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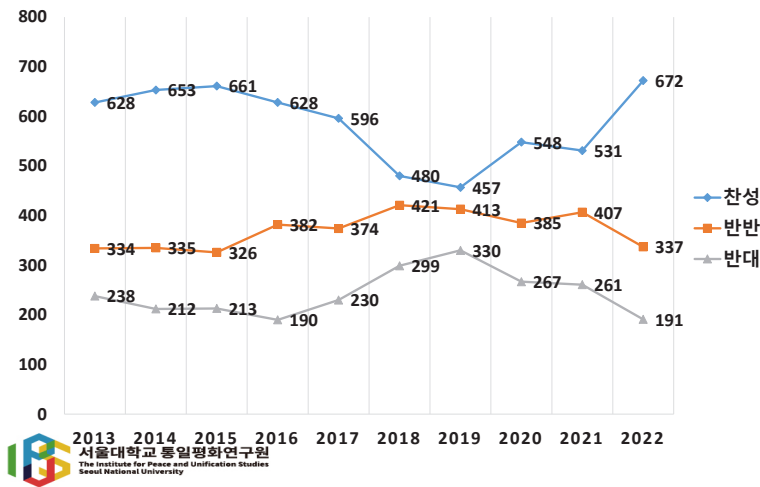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개성공단 재가동	47.4	41.4	59.1	56.2	52.8	43.1	48.8
금강산 관광	50.8	44.8	63.6	63.5	59.2	55.7	54.7
남북교류협력	40.1	34.6	46.4	37.2	35.4	38.4	39.3
배라 살포 금지	41.3	40.5	62.3	57.3	68.3	52.4	56.3
북한인권 문제제기	62.8	58.6	61.7	54.9	54.4	56.8	56.4
핵무장	52.3	49.7	40.0	38.1	45.7	44.3	56.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 정책별 찬반의견은 북한인권 56.4%
배라살포 금지 56.3%
금강산 관광 재개 54.7%
찬성의견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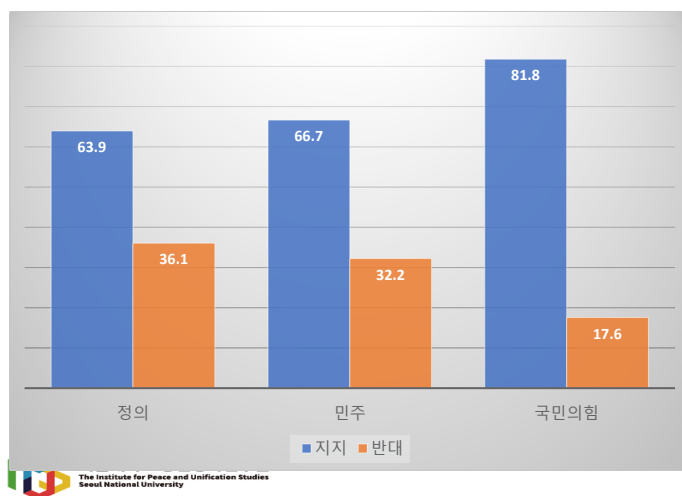
- 최근 4년간 핵무장 찬성의견 급증 추세 56% (10%?)

핵무장 찬성 의견 (통일의식조사 2013~2022)



- 핵무장 찬성여론이 2013~2017까지 더 높다
- 2018~2019년에 매우 낮아졌다
- 2020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22년에 최고 수준 (55.5%)

핵무장 찬성 의견 (Chicago council 2021.12)



- Chicago Council의 2021년 12월 조사
- 한국인의 71%는 한국의 핵무장 찬성(국힘 81% 민주 66%)
- 56%는 미국 핵무기 배치 찬성(국힘 71% 민주 47%)
- 둘중 선택은 미국 무기 (9%)보다 자체 핵무장 (67%) (반대는 24%)

한국의 핵무장 찬성 의견

- ✓ 핵무장 찬성의견은 왜 상승했는가?
- ✓ 핵무장 찬성의견에는 이념, 지지정당, 연령, 소득, 지역, 종교의 영향이 있는가?
- ✓ 핵무장 찬성의견에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외부 위협에 대한 인식의 영향이 있는가?
- ✓ Chicago Council 서베이(2021, 12, 1,500명)와 통일의식조사(2013~2022, 1200명) 자료의 변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표 2] 한국의 핵무장 여론 설명변인 순위 로지스틱 분석 결과(시카고 국제협회)

	한국의 자체 핵무장	제재가 있어도 핵무장	외부위협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이념	0.074*** 0.030	0.015 0.040	0.076** 0.030
지지정당	국민의 힘 0.477*** (0.145)	정의당 -0.620* (0.357)	국민의 힘 0.422*** (0.147)
나이	0.005 0.006	0.038 0.063	0.125*** 0.042
한국 군사력이 우위	-0.112 (0.070)	-0.260*** (0.092)	-0.129* (0.071)
여성	-0.112 (0.070)	-0.375** (0.169)	-0.464*** (0.118)
지역	대구 경북 0.401* (0.229)	광주 호남 0.867*** (0.296) 부울경 0.764*** (0.281)	대구경북 0.407* (0.231)
교육	-0.001 0.088	-0.027 0.125	-0.008 0.088
소득	-0.036 0.031	0.025 0.042	-0.049 0.031
현재 위협			일본 -0.526** (0.231)
미래 위협			미국 -0.516** (0.257)
	정당은 민주당 기준, 지역은 수도권 기준, 외부 위협은 북한 위협 기준		

① 한국의 단독 핵무장 찬성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보수, 국민의 힘 지지, 남성, 나이가 많을 수록, 대구경북 찬성

② 여러 제재/문제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국민의 힘 지지, 남성 찬성
- 정의당 지지, 여성,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 찬성도가 낮음
- 교육, 소득은 통계적 영향 없음

③ 외부 위협 변수 추가 모델

- 현재 가장 큰 위협을 일본이라고 보는 경우, 미래의 위협을 미국이라고 인식하면 핵무장 반대

[표 3] 한국의 핵무장 찬성 여론 설명변인 (통일외식조사 2013~202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이념	0.049 (0.066)	-0.136* (0.072)	-0.037 (0.071)	-0.000 (0.072)	0.042 (0.067)	0.269*** (0.079)	0.142* (0.076)	0.047 (0.074)	0.121 (0.074)	-0.057 (0.074)
정당	-	민주당 -0.426** (0.176) 무당파 -0.387** (0.141)	민주당 0.481** (0.195) 무당파 -0.239* (0.136)	-	-	-	바른미래 0.650** (0.330) 민주당 0.993* (0.556)	국민의당 -0.850 (0.366) 무당파 반대 -0.328** (0.136)	정의당 반대 -0.617* (0.356) 무당 찬성* 0.270 (0.143)	-
나이	0.012** (0.004)	0.006 (0.004)	0.006* (0.004)	0.010** (0.004)	0.009** (0.003)	-	-	-	0.006* (0.004)	-
남성	-	-	-	-	0.242** (0.105)	-	-	-	0.298** (0.108)	0.208* (0.108)
북한대 화	0.391** * (0.075)	0.244** (0.079)	-0.034 (0.078)	0.040 (0.075)	0.259*** (0.074)	-	-	0.225** (0.085)	-	0.339*** (0.082)
북한 핵포기	0.283** * (0.064)	0.274** * (0.073)	0.535** * (0.075)	0.190** (0.064)	0.092 (0.073)	0.204** (0.074)	0.314*** (0.071)	0.350*** (0.072)	0.247** * (0.074)	0.154* (0.081)
지역 찬성	영남 0.294** (0.127) 호남 0.897** * (0.214)	영남 -0.298** (0.133)	강원 0.637* (0.331)	강원 0.956** (0.318)	호남 0.032* (0.177)	강원 0.511* (0.304)	충부 0.443** (0.175)	호남 -0.494** (0.182)	-	충부 0.383** (0.173) 호남 0.461** (0.194) 강원 0.811** (0.333)
지역 반대	-	호남 0.365* (0.181)	충부 - 0.388** 호남 -0.310* 영남 - 0.368** 제주 -0.665*	충부 0.635*** (0.170)	-	-	강원 - 0.943*** (0.289)	-	충부 0.736** (0.186) 제주 -0.575* (0.329)	-

① 한국의 핵무장 찬성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북한 비핵화 전망

- 지지 정당, 이념, 성별, 나이, 지역, 북한 인식 포함한 결과 '나이'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큰 영향

② 정당의 입장차이는 일시적, 상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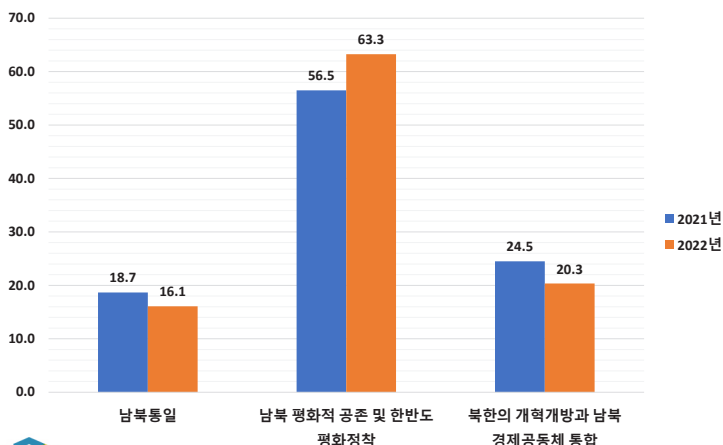
- 2014-15년, 2019년, 2020년에만 지지 정당별 성향 부각

③ 지역 여론은 예상과 다르고 변화

- 호남, 강원지역이 찬성, 중부권이 반대 한 빈도가 높음

⇒ 한국의 핵무장 여론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적 의견과 정치-외교 상황 변동의 영향을 받는다

남북 통일과 평화공존 여론



- 2021년부터 추가한 문항
- 대북정책 목적에서 평화공존 및 평화정책 의견 증가
- 통일 18.6%→16.8%
- 평화공존 및 한반도 평화정책 56.8%→62.7%

[표 4] 통일과 평화공존 여론의 특징 순위로지스틱 분석 결과 (2021~2022)

	통일		평화공존	
	2021	2022	2021	2022
이념	-0.065 (0.094)	-0.0009 (0.098)	-0.82 (0.075)	0.027 (0.074)
나이	-0.001 (0.007)	0.006 (0.007)		-0.006 (0.005)
소득	-0.133 (0.088)	-0.241** (0.096)	-0.001 (0.071)	0.041 (0.075)
교육	-0.296** (0.138)	-0.017 (0.154)	0.211* (0.111)	-0.190 (0.119)
직업	-	-	-	1.151** (0.454) 0.805* (0.447) 1.043** (0.459)
지역	-	중부 -0.0468* (0.268) 호남 -0.778*** (0.299) 영남 -0.591*** (0.211)	영남 0.266* (0.153)	영남 0.331** (0.160)
종교	-	-	-	기독교 0.346* (0.208)
n	1153	1165	1153	1165

- 정부의 정책목표에 대한 의견 차이는 이념, 나이, 소득, 교육, 직업, 지역의 영향을 받는가?
- 2021-22년 자료 분석
- 이념, 나이, 소득, 교육, 직업, 거주지역, 종교 변수
- 통일 여론에는 교육(-, 2021)과 소득(- 2022), 지역(- 중부, 호남, 영남)의 영향
- 평화공존 여론에는 교육(+, 2021), 직업(+자영업, 블루칼라, 전업주부), 지역(+영남)의 영향

소결

- ✓ 2022년 정권 교체 이후 대북정책 만족도가 상승하였고, 보수층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상승했음
- ✓ 지난 16년간 대북정책 만족도는 이념-여야-지역 차원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한국 정치 지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 최근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최고치로 증가했음
- ✓ 핵무장 찬성 여론은 이념, 정당, 지역, 나이차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큰 영향
- ✓ 정부 정책 목표로 통일에 비해 평화공존-평화구축 여론이 상승했음
- ✓ 통일여론은 소득과 관련된 현실의 희망을 반영하고, 평화공존은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직업과 지역 여론을 반영

함의

- ✓ 정책 만족도, 핵무장-비핵화 찬반 여론은 한국의 이념-정치-지역 구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대북정책 만족도 자체를 올려가면서도 가급적 이념과 지역 만족도를 모두 높여가는 정치,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
- ✓ 한반도 주변국의 긴장이 안보 딜레마를 높여 억제력을 확충하는 것을 넘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면 일본의 핵무장, 대만의 전략 인식 변화 및 미중간의 큰 긴장을 초래
- ✓ 세계 초강대국이 인접해 있는 동북아시아가 국제 핵비확산 규범 질서에 반하는 예외적인 지역이 되어 국제질서에 큰 파장
- ✓ 안보 딜레마가 상호 핵무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핵무장 반대여론을 경청하고 협상에 나설 필요



주변국인식

▣ 황수환 ▣

주변국 관계 인식(요약문)

황수환 (통일연구원)

1.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 ①: 친밀국과 위협국

1) 가깝게 느끼는 국가

한국인들이 주변국 가운데 가장 친밀하게 인식하는 대상은 본 조사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압도적으로 미국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2022년 응답자의 80.6%가 미국을 선택했다. 미국에 대한 친밀감은 처음으로 80%대를 넘어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미국 다음으로 북한 9.7%, 일본 5.1%, 중국 3.9%, 러시아 0.5%의 순으로 선택했다. 2021년 대비 북한에 대한 친밀감은 3.7% 하락했고,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친밀감이 감소하고 있다.

2) 위협적인 국가

한국인은 주변국 가운데 중국을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022년 응답자의 44.0%가 중국을 선택했다.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상당기간(2007-2017년) 한국인들이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상대는 북한이었다. 2018년과 2019년 최대 위협국이 중국으로 나타났고, 2020년 북한으로 바뀌었으나 2021년 조사에서는 다시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는 것이 2022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중국 다음으로 36.9%가 북한을 위협국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다음으로 응답자의 8.5%가 러시아를 위협적인 국가로 선택했고 7.3%가 일본을 위협적인 국가로 응답했다. 러시아에 대한 위협적 인식은 1%대 이거나 그 미만이었지만, 2022년 2월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위협적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 ②: 인식과 태도

1) 미국

한국인의 대다수는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였다.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16년 이래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8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86.3%로 역대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주변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6%는 미국은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보았다.

2) 중국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2022년 응답자 가운데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0.1%로 가장 높았고, 경쟁대상이 28.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협력대상은 11.3%, 적대대상은 9.9%이다. 20대가 55.7%로 경계대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대상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2017년부터는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015년 33.9%로 최고치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중국은 ‘북한을 도울 것이다’는 응답이 59.4%, ‘한국을 도울 것이다’ 1.1%로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경계적 인식이 나타났다.

3) 일본

한국인들은 일본을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일본에 대한 경쟁대상 이미지는 4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계대상이 26.6%로 조사됐다. 주목되는 부분은 일본을 협력대상 응답한 비율이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19.1%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의 50.2%가 경쟁대상으로 응답했고, 50대의 23.5%가 협력대상으로 응답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일본은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가 7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을 도울 것이다' 13.1%로 2021년 대비 3%가 증가했다.

4) 러시아

러시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은 경계대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응답자 가운데 경계대상 52.8%로 가장 높았으며, 경쟁대상 23.9%, 적대대상 12.0%, 협력대상 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를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조사 이래 2~6%대였던 것에 반해 2022년에는 12.0%로 처음으로 10%대를 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발생이 적대적 인식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가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은 35.9%로 2021년 대비 14.7%가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1)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희망 정도

주변국 중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고 보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변국이 어느 정도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국은 40.7%가 원할 것으로 봤고, 59.3%가 원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중국, 러시아, 일본은 각각 93.3%, 90.0%, 89.3%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2) 주변국에 대한 통일의 협조 필요성

조사 응답자들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변 4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3.6%로 2008년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통일 협조에 대해서는 2022년 73.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일본 63.9%, 러시아 57.9%의 순으로 협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국은 통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조사 이래 80%대를 유지한 것이 2021년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70%대로 떨어졌고 2022년에도 0.4% 협조 필요성이 하락했다. 일본에 대한 통일의 협조 필요성은 2021년 57.7%에 비해 6.2% 상승했다.

4. 주변국과의 협력

1) 통일: 남북/한미/한중 협력

"남북한 통일을 위해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022년 조사에서는 '모두 중요하다'가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북 간 협력'이 27.1%, '한미 간 협력'이 26.9%의 순으로 조사됐다. 2021년 조사에서는 '한미 간 협력'이 '남북 간 협력'보다 3.2% 높게 나타났지만, 2022년 조사에서는 2020년에는 근소한 차이로 역전됐다. 해당 문항의 조사가 진행된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남북 간 협력'이 '한미 간 협력'보다 높게났다.

2) 비핵화: 한미/한중 협력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한중협력 모두 강화해야 하다' 51.9%, '한미 간 협력 강화'는 40.0%, '한중 간 협력 강화' 8.1%로 조사됐다. '한미 간 협력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1년 44.1%에서 2022년에는 4.1% 감소한 반면, 한미와 한중 모두 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21년에는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미중경쟁 관련

1)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

중국의 부상 즉 중국의 강대국화, 주변국 영향력 확대가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2021년 72.4%, 2022년 71.5%로 높게 나타났다.

2) 북중협력 인식

북중협력에 대한 인식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 86.7%로 대다수가 북중협력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 미중 갈등 심화 시 한국의 입장

미중갈등 심화시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 54.0%,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39.9%,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6.1%로 조사됐다. 중립적 입장에 대해서는 2021년 48.7%에 비해 5.3% 증가했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5.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6. 결론: 주요 특징 및 경향

2022년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조사를 통해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여론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협력대상 이미지는 역대 최고 수치를 나타냈다.

둘째, 중국에 대한 적대적이고 경계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반중정서와 북중협력 강화의 우려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이고 경계적인 인식이 크게 증가했다. 러시아를 협력대상보다 적대대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처음이다.

넷째,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여 소위 전략적인 균형을 취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미중갈등시 한국의 중립적 입장, 남북/한미/한중 모두 협력의 중요성,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와 한중 간 모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균형입장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중국, 일본, 러시아의 이미지와 한반도 전쟁시 태도, 남북/한미/한중 협력, 미중 갈등 문제 등 이슈에 대해 세대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2022 통일외교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2022.09.27

황수환(통일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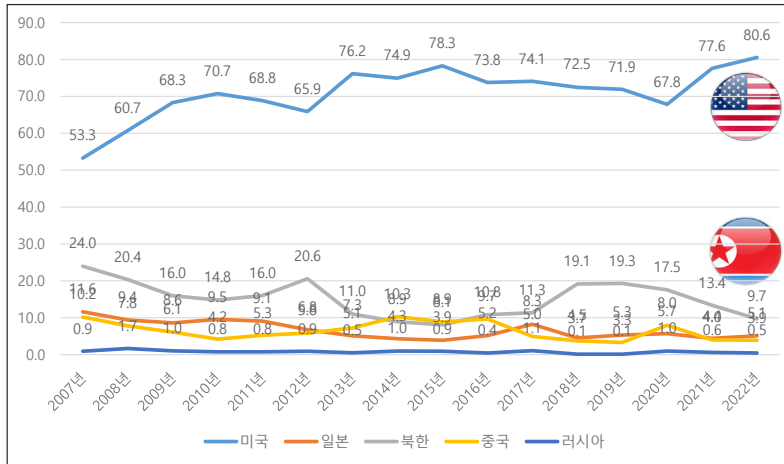
[2022 통일외교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2022년 한반도 주변 정세현황

- 1월: 북한, 1월 5일부터 8월까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시험발사
-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2.24), 중러 전화 회담(2.25)
- 3월: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에게 여객기 추락사고 관련 위로 전문(3.22)
- 4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4.1), 유럽의회 북한인권규탄 합동결의안 채택(4.7)
- 5월: 윤석열 정부 출범(5.10), 한미 정상회담(5.21), 미일정상회담(5.23)
- 6월: 나토(NATO)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6.30)
- 7월: 미중 전화 회담(7.28)
- 8월: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8.3),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 지원 가능성 제기

[2022 통일인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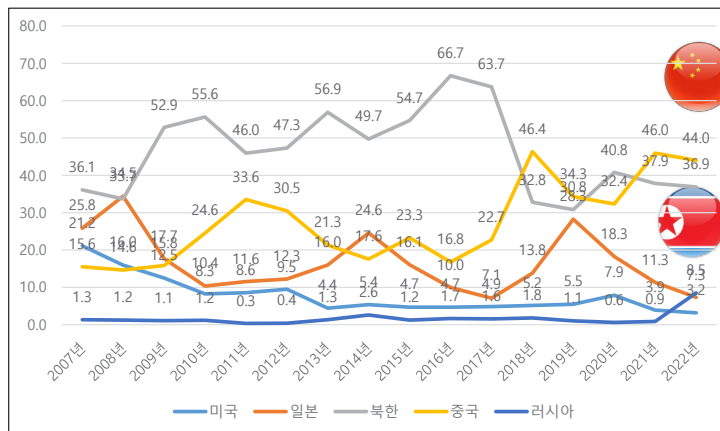
주변국 친밀감



- 미국(80.6%) > 북한(9.7%) > 일본(5.1%) > 중국(3.9%) > 러시아(0.5)
- 2021년 대비 미국 친밀감 3.0% 상승, 북한 친밀감 3.7% 하락
- <세대별 구분: 20-30대 vs. 40대 이상>
- 일본에 대한 친밀도: 20대(7.7%), 30대(7.1%) 평균 이상. 40대(3.7%), 50대(3.8%), 60대 이상(4.1%) 평균 이하
- 북한에 대한 친밀도: 20대(8.4%), 30대(6.6%) 평균 이하. 40대(10.0%), 50대(11.3%), 60대 이상(11.4%) 평균 이상

[2022 통일인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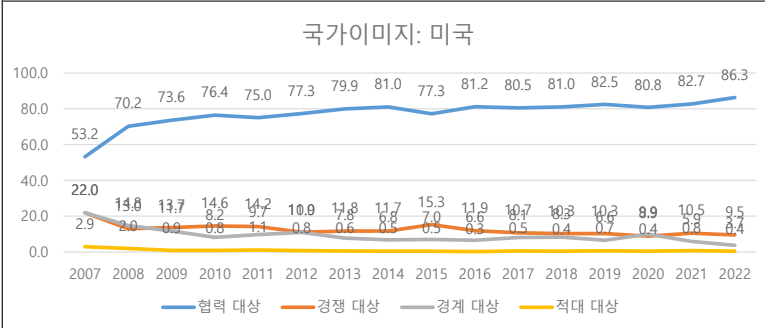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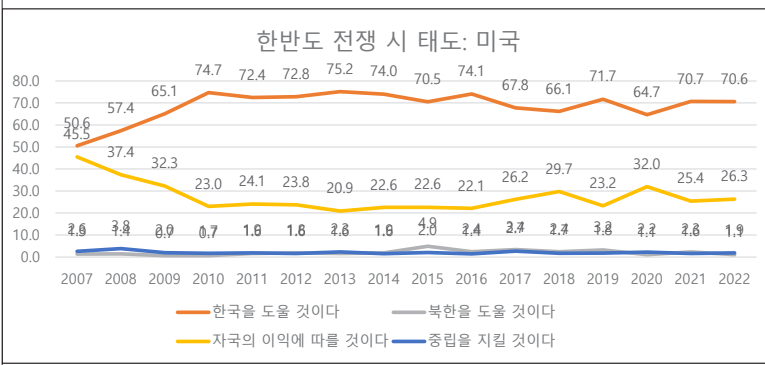
- 중국(44.0%) > 북한(36.9%) > 러시아(8.5%) > 일본(7.3%) > 미국(3.2%)
- 2021년 대비 러시아 위협인식 7.6% 상승, 일본 위협인식 4.0% 하락
- <세대별 구분>
- 미국의 위협인식: 20대(0.5%) vs. 40대(4.3%), 50대(5.7%)
- 일본의 위협인식: 20대(5.8%) vs. 50대(8.2%)
- 북한의 위협인식: 20대(36.5%), 50대(33.2%) vs. 60대 이상(41.0%)
- 중국의 위협인식: 60대 이상(39.6%) vs. 20대(49.0%)

[2022 통일의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국가 이미지/태도: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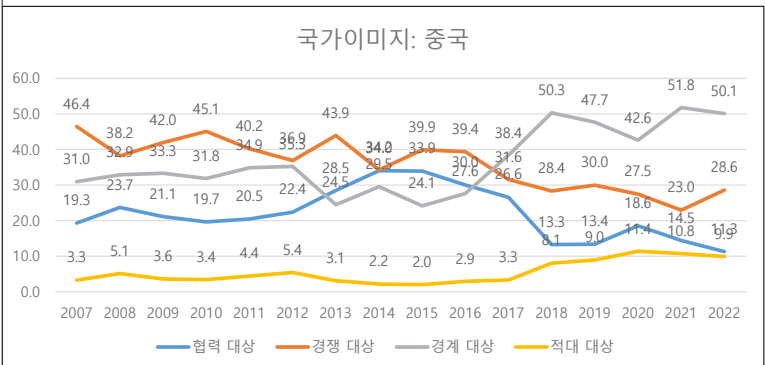
-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80%대 이상으로 협력대상



- 한국전쟁 시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 7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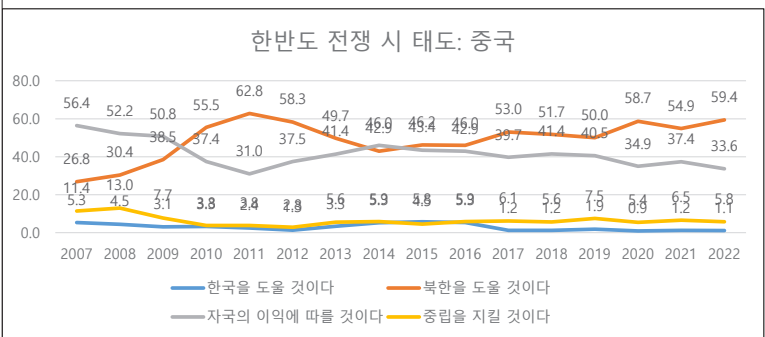
[2022 통일의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국가 이미지/태도: 중국



<국가이미지>

- 경계대상(50.1%), 경쟁대상(28.6%/ 2021년대비 5.6% 상승), 협력대상(11.3%, 2021년대비 3.2% 하락)
- 세대별 구분
 - ⇒ 경계대상: 20대(55.7%) vs. 40대(45.8%), 30대(48.1%)
 - ⇒ 협력대상: 20대(7.7%) vs. 30대(15.1%)
 - ⇒ 적대대상: 20대(13.1%), 40대(11.6%) vs. 50대(8.1%), 60대 이상(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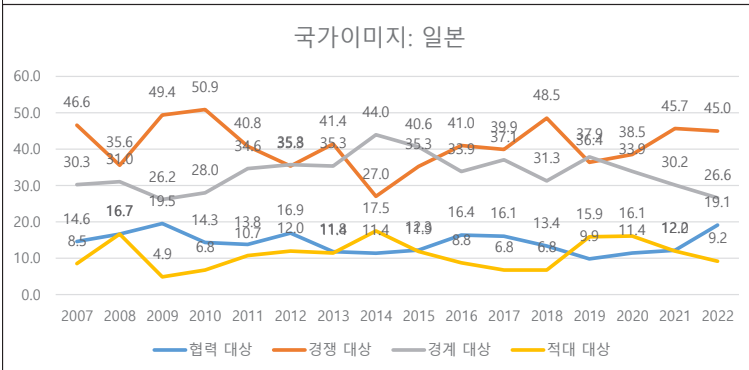


<한국전쟁 시 태도>

-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 작년 대비 4.5% 상승
- "자국의 이익을 따른 것이다" 20대(39.7%) vs. 40대(32.9%), 50대(32.1%), 60대 이상(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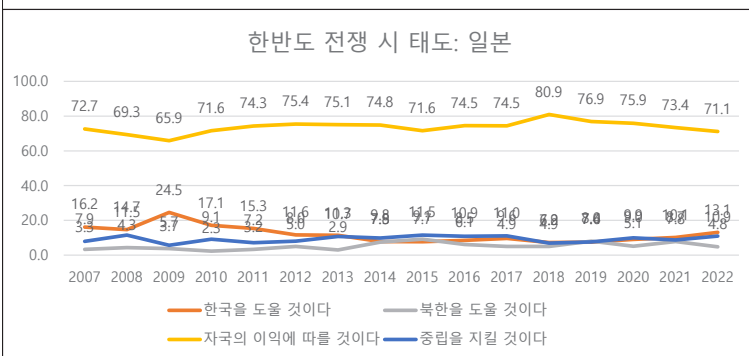
[2022 통일인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국가 이미지/태도: 일본



<국가이미지>

- 경쟁대상(45.0%), 경계대상 (26.6%/ 2021년대비 3.6% 하락), 협력대상(19.1%, 2021년 대비 7.1% 상승)
- 세대별 구분
 - ⇒ 경쟁대상: 20대(50.2%) vs. 50대(38.4%), 30대(43.1%)
 - ⇒ 협력대상: 20대(14.7%), 60대 이상(16.8%) vs. 50대(23.4%), 30대(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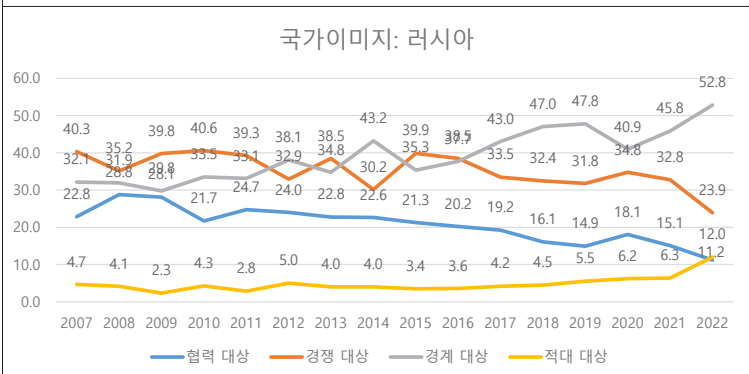


<한국전쟁 시 태도>

- 일본의 이익에 따른 것이다 70%대 유지
- 세대별 구분
 - ⇒ "자국의 이익을 따른 것이다" 20대(77.2%) vs. 40대(68.4%), 50대(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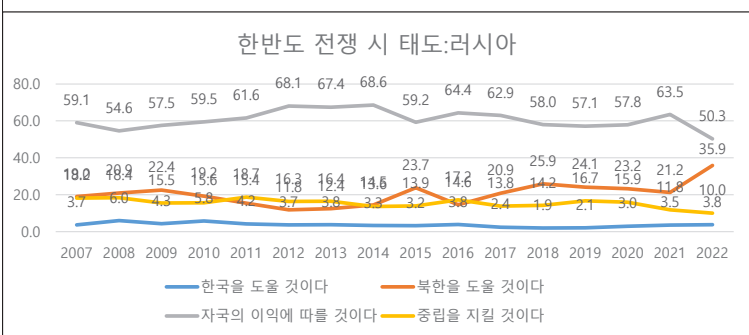
[2022 통일인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국가 이미지/태도: 러시아



<국가이미지>

- 경계대상(52.8%/ 2021년 대비 7.0% 상승), 적대대상(12.0%, 2021년 대비 5.7% 상승), 경쟁대상(23.9%, 2021년 대비 8.9% 하락), 협력대상(11.2%)
- 세대별 구분
 - ⇒ 경계대상: 30대(56.0%) vs. 40대(50.2%), 50대(53.1%), 60대 이상(52.7%)
 - ⇒ 적대대상: 20대(14.2%) vs. 30대(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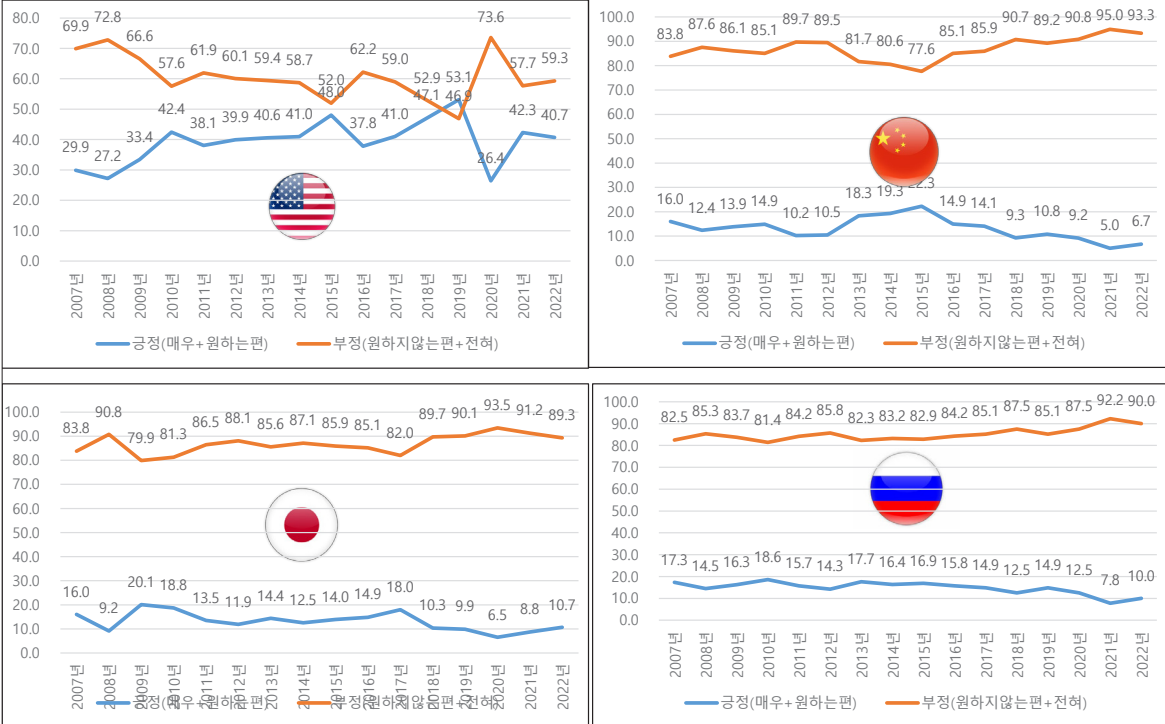


<한국전쟁 시 태도>

- "자국의 이익을 따른 것이다" (50.3%) 2021년 대비 13.2% 하락
- "북한을 도울 것이다"(35.9%) 2021년 대비 14.7%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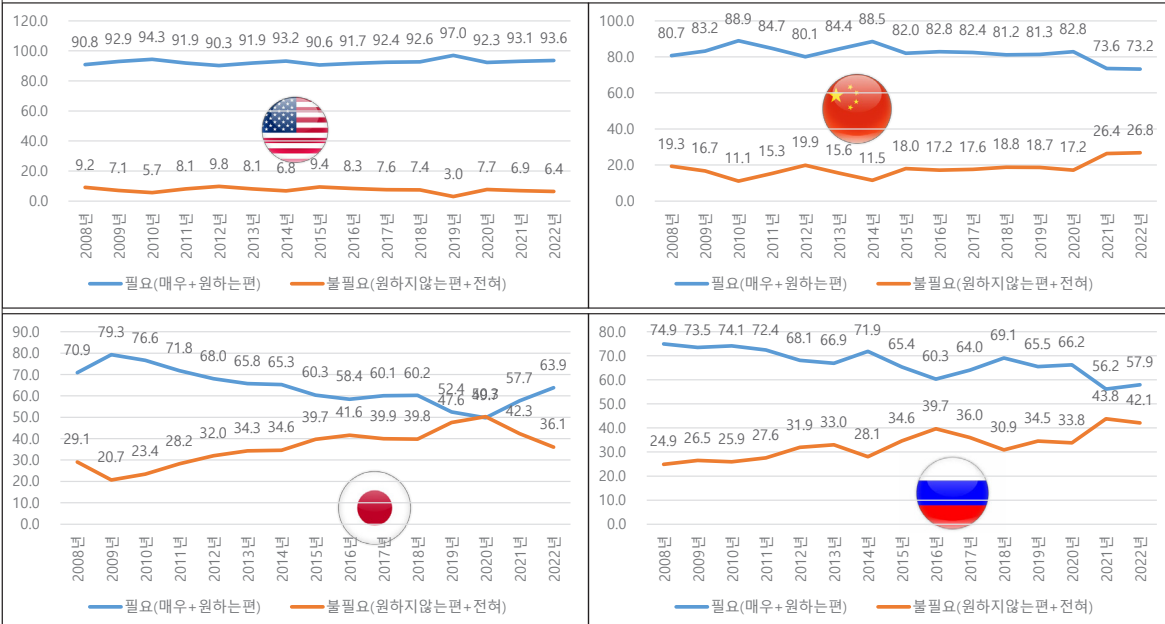
[2022 통일의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희망 정도



[2022 통일의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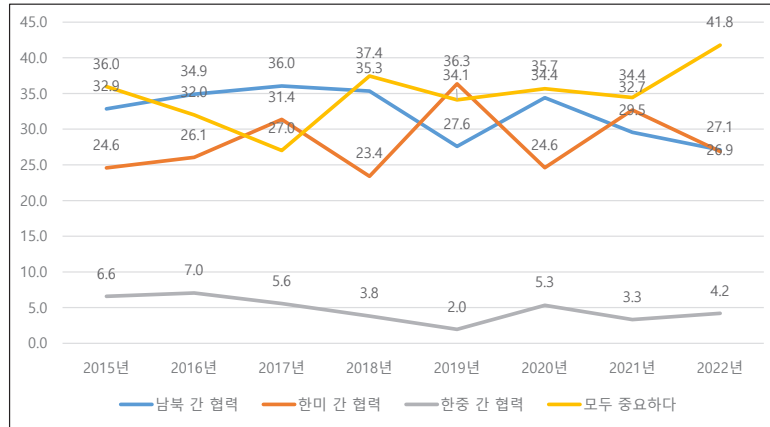
통일 협조 필요성



- 일본에 대한 한반도 통일협조 필요성: 2020년 이후 14.2% 증가
-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한반도 통일협조 필요성: 2020년 이후 각각 9.5%, 8.3% 감소

[2022 통일인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남북 / 한미 / 한중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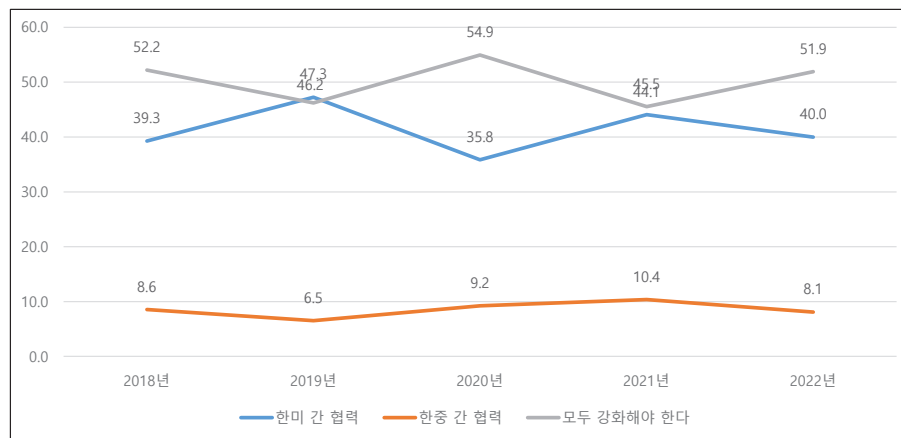
- 모두중요(41.8%) > 한미간 협력(27.1%) ≥ 남북간 협력(26.9) > 한중간 협력(4.2%)

<세대별 구분>

- 한미간 협력: 20대(22.7%), 50대(24.2%) vs. 30대(33.4%)
- 남북간 협력: 30대(22.1%), 20대(26.8%) vs. 40대(28.0%), 50대(28.2%), 60대 이상(29.2%)
- 한중간 협력: 20대(6.5%) vs. 50대(2.4%)

[2022 통일인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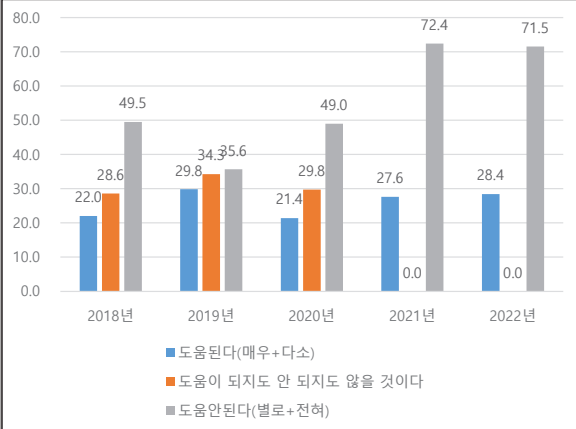
북한비핵화를 위한 한미/한중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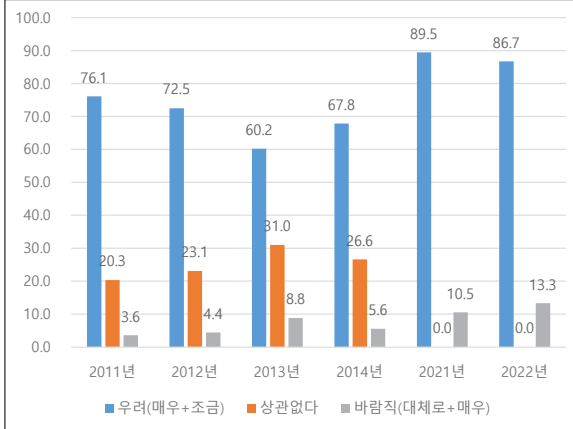
- 한미/한중 모두 강화하여 협력: 2021년 45.5% → 2022년 51.9% (6.4% 증가)
- 한미협력: 2021년 44.1% → 2022년 40.0% (4.1% 감소)
- 한중협력: 2021년 10.4% → 2022년 8.1% (2.3% 감소)

[2022 통일의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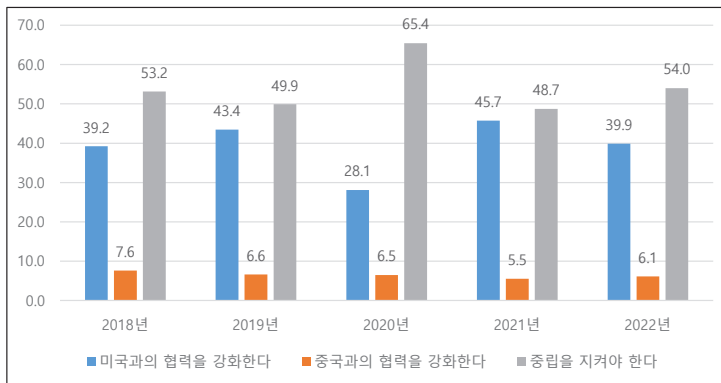
북중협력 인식



- 중국의 부상(강대국화, 주변국 영향력 확대)이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2021년 72.4%, 2022년 71.5%)이 다수
- 북중협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2021년 89.5%, 2022년 86.7%)이 다수

[2022 통일의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미중 갈등과 한국의 입장



- 중립적 입장: 2021년 48.7% → 2022년 54.0% (5.3% 증가)
- 미국과의 협력 강화: 2021년 45.7% → 2022년 39.9% (5.8% 감소)

<세대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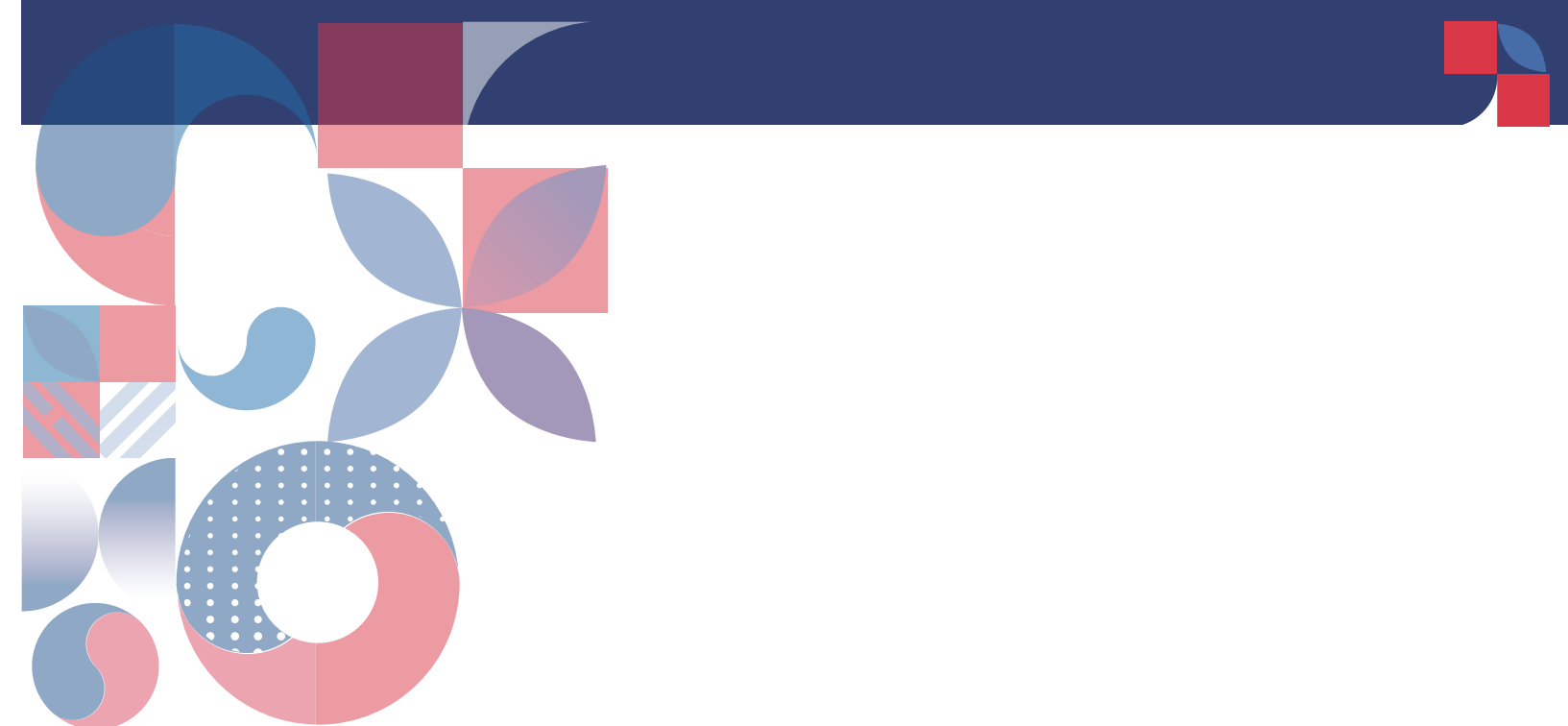
- 미국과의 협력 강화: 60대 이상(44.2%) vs. 40대(37.6%)
- 중립적 입장: 20대(55.5%), 30대(55.4%), 40대(55.8%) vs. 60대 이상(50.2%)

[2022 통일인식 조사 결과: 주변국 관계 인식]

소결

-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여론 증가 추세
- 일본에 대한 협력대상 이미지, 한반도 통일협조 필요성 증가
- 중국에 대한 적대적이고 경계하는 여론 증가 추세
- 러시아에 대한 경계, 적대 인식 증가(위협, 적대 이미지 역대 최고)
- 미중 갈등 시 중립적인 입장을 통해 전략적인 균형 도모 선호
- 이슈별(중국, 일본, 러시아의 이미지와 태도, 남북-한미-한중 협력, 미중 갈등 문제, 등)로 세대 간 입장 차이가 발견





북한이탈주민 인식

❖ 최은영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요약문)

최은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등락은 있으나 증가추세였지만, 2019년 이후 감소추세로 변화. 2022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이 최고치(32.3%)로 친근하게 느낀다는 비율(23.1%)보다 9% 이상 높게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전년도 대비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낮아짐.
- 연령이 높아질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증가: 19세-29세(17.8%) < 30대(22.8%) < 40대(22.9%) < 50대(24.1%) < 60대 이상(26.4%).

2. 한국거주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조사는 2007년 시작하여 2015년까지 독립적인 조사로 이루어졌으나, 2016년부터 한국 거주 다른 이주민들과 비교하는 조사 문항으로 바뀜.
- 친근하게 느끼는 순: 미국인(44.5%) > 동남아시아인(23.5%) > 북한이탈주민(23.1%) > 일본인(22.1%) > 조선족(16.4%) > 고려인(11.9%) > 중국인(11.4%)
- 2022년도에는 미국인을 친근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한 이가 전체 조사자의 44.5%로 전년도 36.7%에서 약 8% 정도 급상승. 일본인에 대한 친근감도 22.1%로 전년도 17.8%에 비해 크게 증가. 신냉전 시기에 미국과 일본을 협력대상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이 국가 출신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 동남아시아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한 시점에는 모든 이주민 그룹에서 가장 낮은 친근감을 보였으나, 2022년도에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앞서고 미국 다음의 순위.
- 20대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일본인에 대한 친근감이 가장 높게 나타남.

3.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유형 따른 사회적 거리감

- '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의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는 다음의 순위로 북한이탈주민과 관계 맺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남: 결혼상대자(56.8%) > 지역대표(55.7%) > 학교교사(48.6%) > 사업동반자(38.2%) > 직장동료(14.1%) > 동네이웃(12.0%).
- 친밀한 관계 맺기인 결혼상대자로 관계 맺기를 가장 경계. 결혼상대자로 관계 맺기를 '전혀 꺼리지 않는다'는 2007년 7.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 2.0%. '매우꺼린다'와 '다소꺼린다'는 합한 비율은 2007년 47.7%에서 2022년 56.8%로 증가 추세. 특히, 20대와 30대는 각각 60.4%, 60.1%로 다른 세대에 비해 결혼상대자로 북한이탈주민과 관계

맺기를 매우 꺼리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대표로 관계맺기는 60대 이상(48.2%)이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꺼리지 않으며, 그 이하 세대는 비슷한 수준(57.4% ~ 58.6%)에서 상당히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4. 북한이탈주민 수용 및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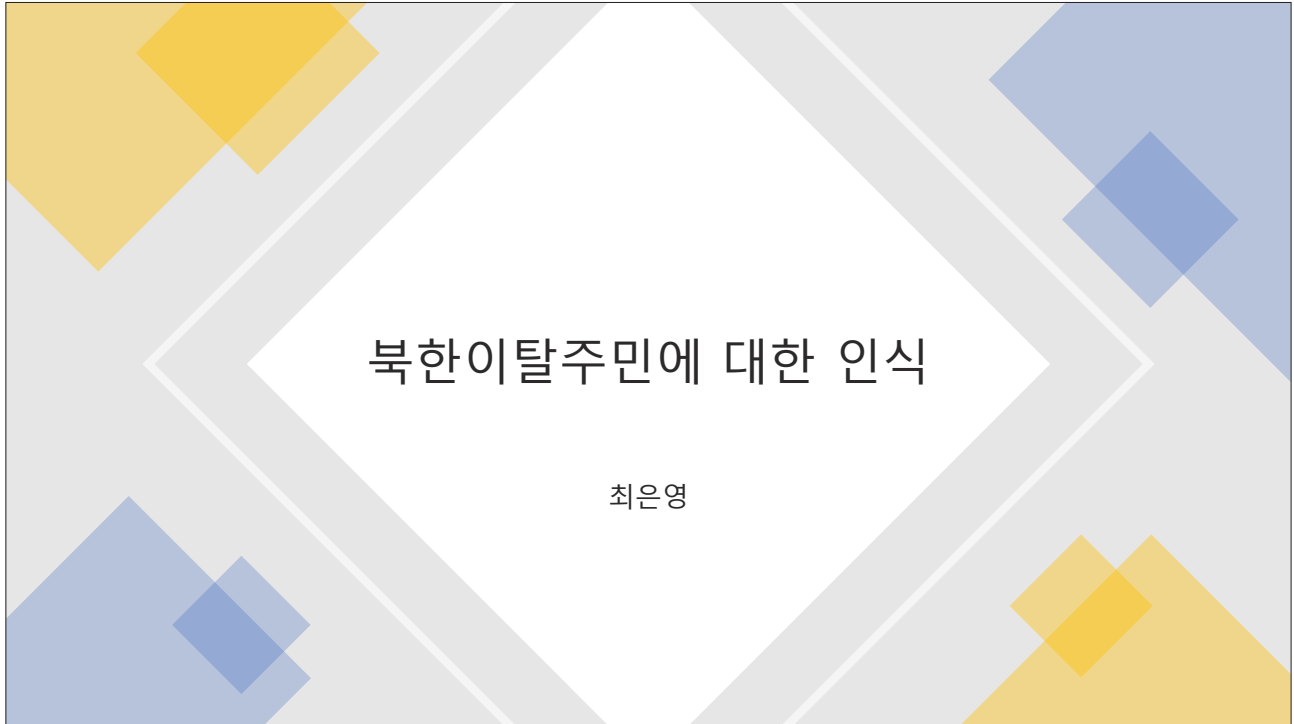
- 2019년 11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조사를 받고 귀순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탈북선원 두 명의 강제송환 당시의 사진이 통일부를 통해 2022년 7월 12일 공개되었다. 강제 송환된 두 명의 남한 수용 및 북한에서의 처형 여부를 둘러싼 인권 담론이 정치화되고 이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에 대한 기사가 널리 유포된 시기는 <2022년 통일의식조사>의 조사시기와 겹치기에 이에 대한 언론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의 탈북민 수용인식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
- 탈북민 중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은 2007년 52% 이래로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에는 24.7%까지 줄었지만 2022년에 29%로 상승. 반면,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은 2007년 응답자의 37.2%, 이후 연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조사 기간 최고치인 60.6%의 응답자가 선택적 수용을 지지. 2022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56.1%. '더 이상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응답은 2007년 10.8%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 14.6%였고 2022년에도 비슷한 14.3%.
- 탈북민의 적극적 수용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증가한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이 늘었음.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전년도 41.3%에서 2022년도에 43.35로 소폭 증가. 그러나 추가지원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2020년도에 68.5%로 최고치를 찍고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56.7%로 과반 이상.
- 북한이탈주민 추가 지원에 대해 20대(39.7%), 30대(36.4%)가 동의하는 비율에 비해 40대(46.5%), 50대(44.9%), 60대 이상(47.1%)의 동의 비율 높음. 20대와 30대는 60% 넘게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추가지원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
- 북한이탈주민 수용 및 정부지원에 대해 정치적으로 진보성향이라고 밝힌 이들이 중도 또는 보수에 비해 긍정적으로 답변. 북한이탈주민의 수용 및 지원에 대한 의견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정도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다문화 수용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보수성향의 응답자가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수용과 지원에 대해서는 진보성향의 응답자가 더 긍정적으로 답변.

5. 소결 및 전망

-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이주민의 출신국가와의 국제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신냉전의 정치지형으로 2022년에는 미국인 및 일본인에 대한 친근감이 급격히 상승.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조선족에 대해 가지던 친근감이 감소하고 오히려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친근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민족적 동질성이 친근감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대에게는 영향이 더 적은 것으로 파악 됨.
- 연령이 낮아질수록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경험이 감소하고 이들에 대한 친근감이 감소. 특히 MZ세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낮고, 북한이탈주민의 무조건적 수용과 정부의 추가 지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
- 2022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수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소폭 증가하고 정부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이는 북한선원 강제 복송 관련 뉴스가 조사시점에 널리 유포된 영향으로 일시적 현상일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감소하고, 이들과 결혼 등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꺼리는 현상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북한이탈주민 수용인식도 전체적인 추세로는 원하는 사람 모두를 수용하기보다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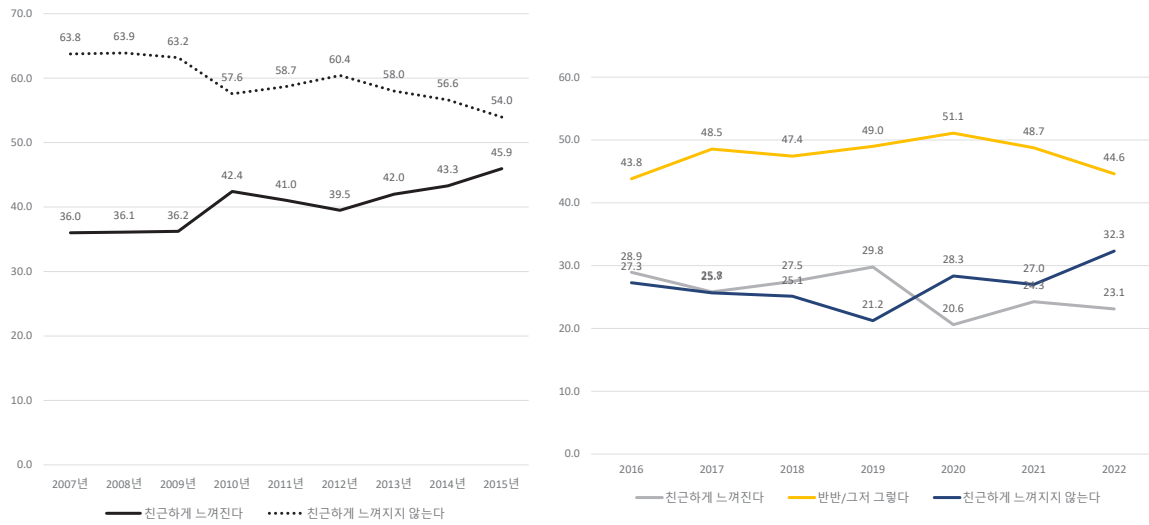


조사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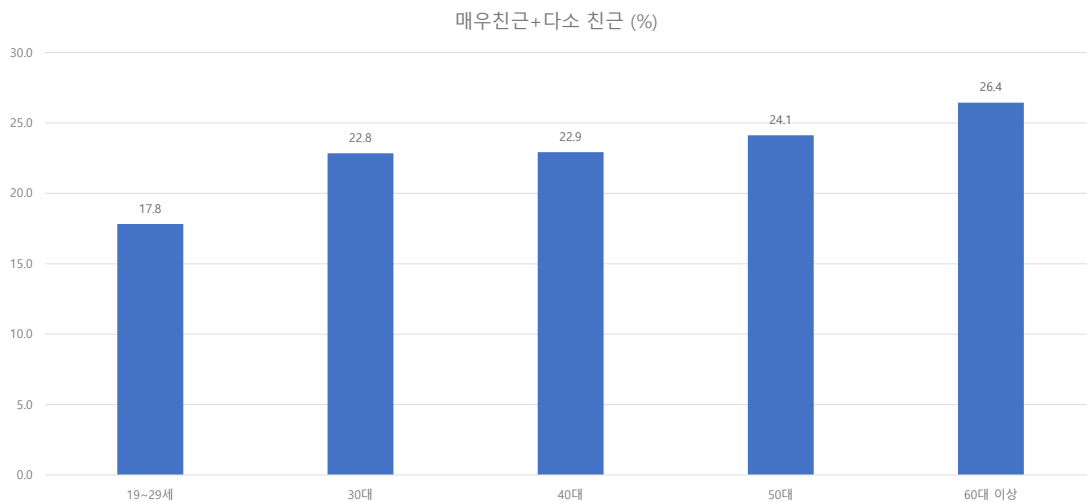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탈북민 수용에 대한 의견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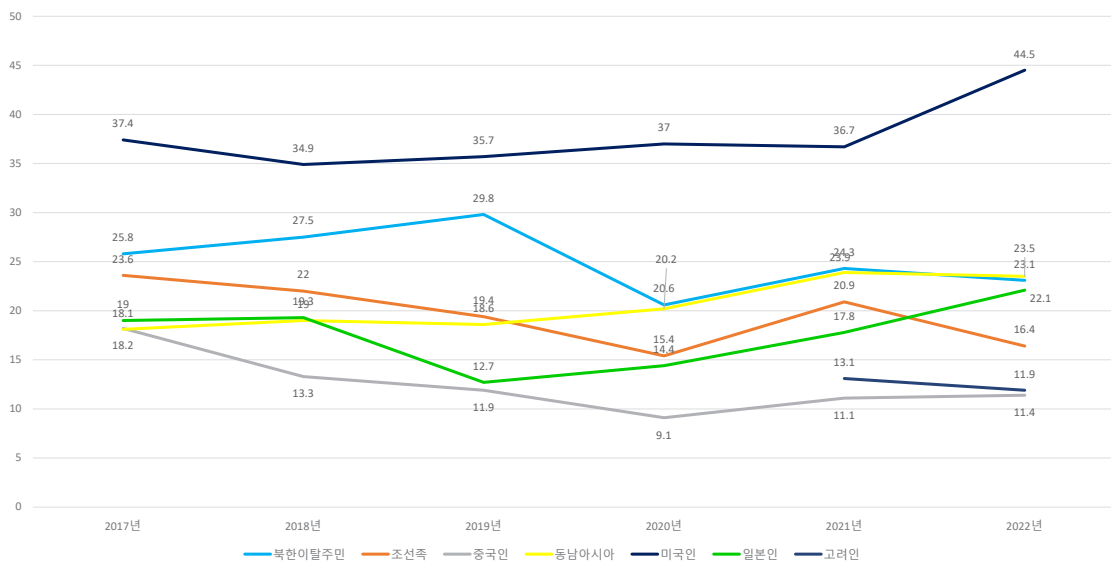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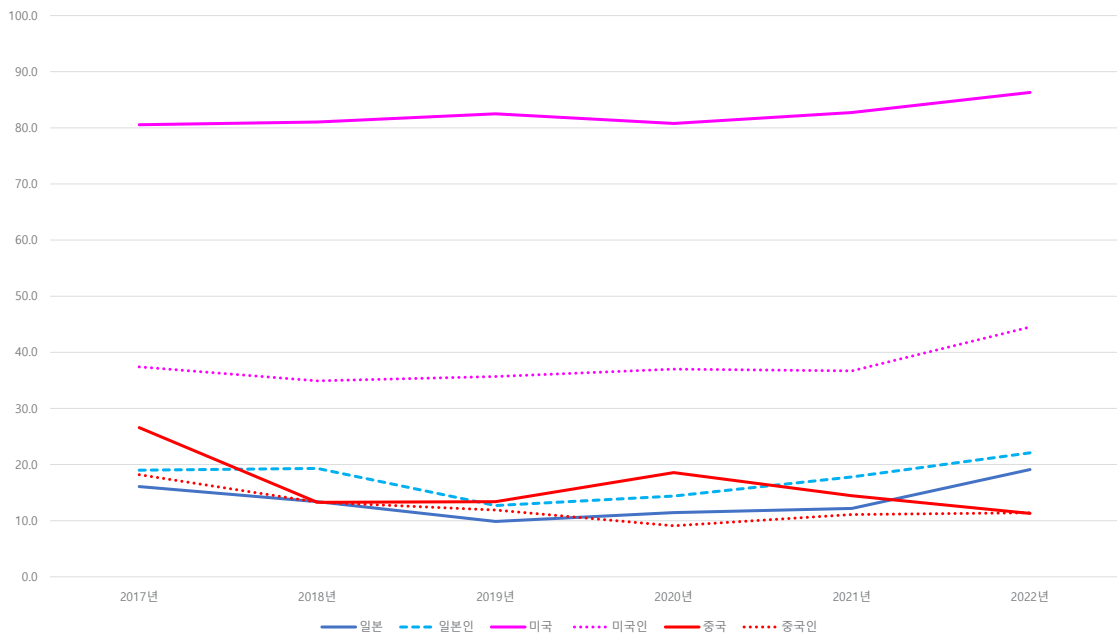
세대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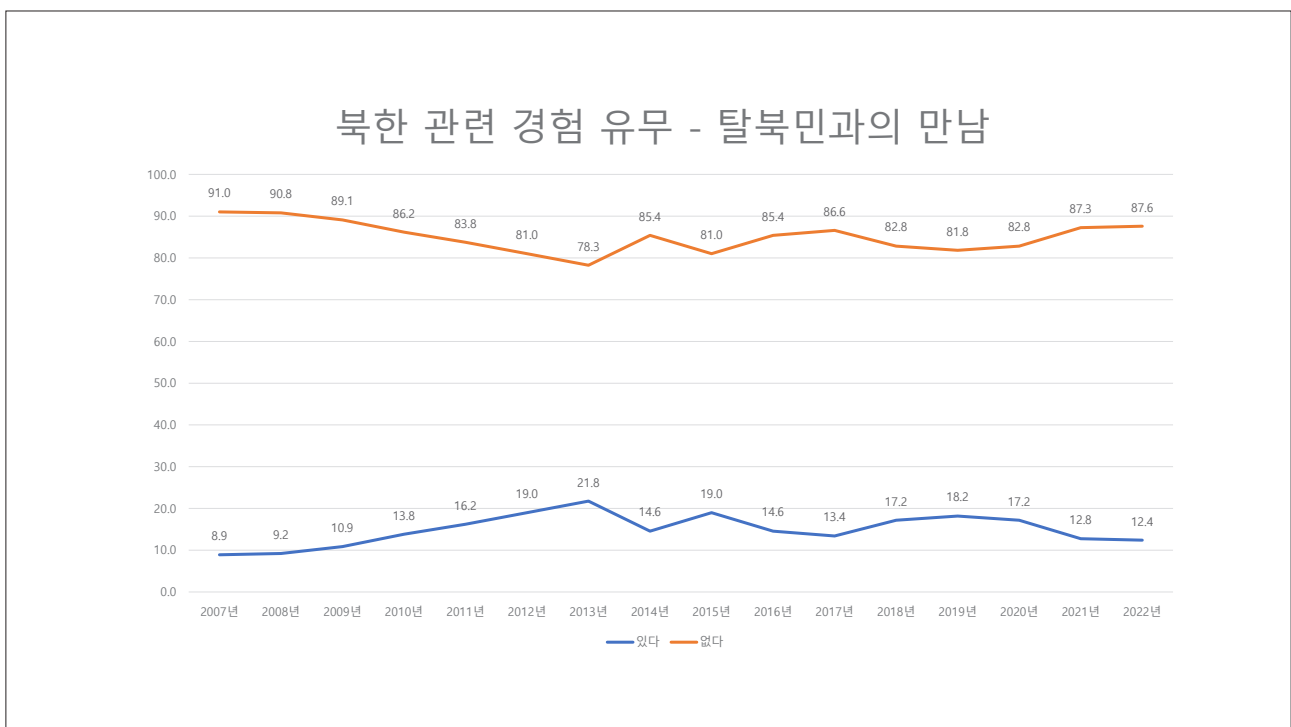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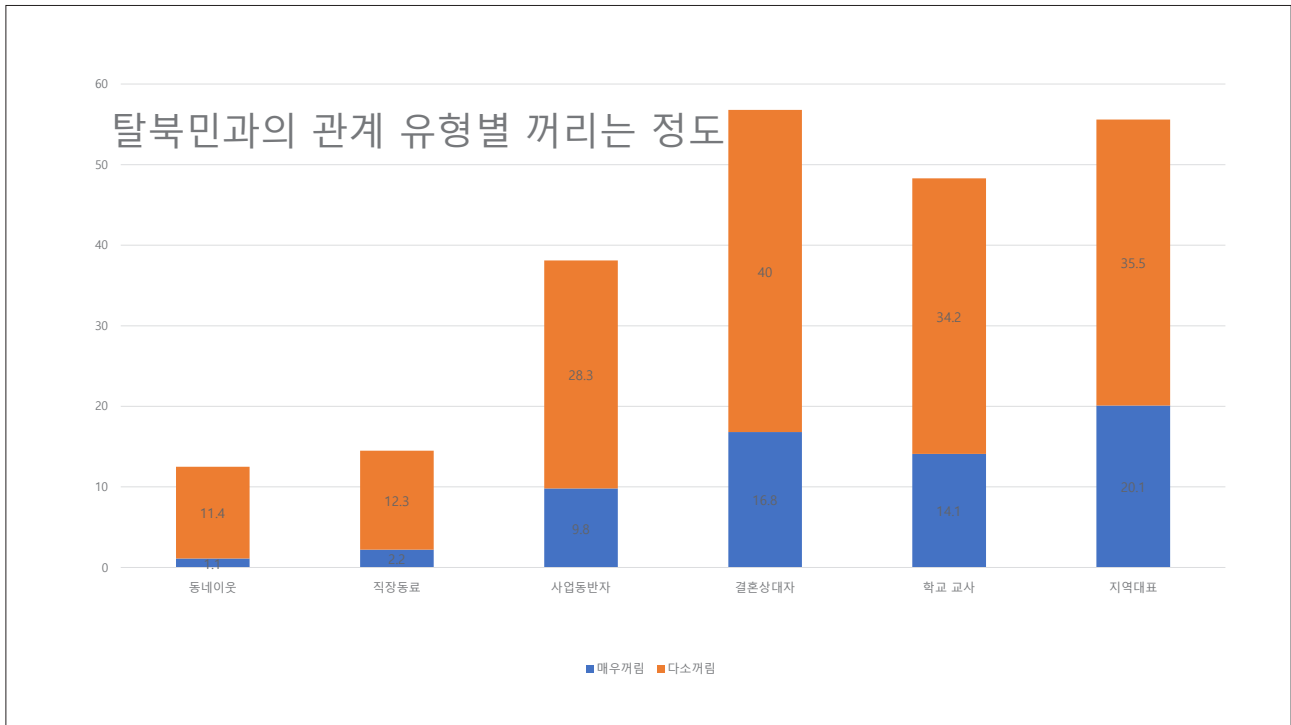


한국거주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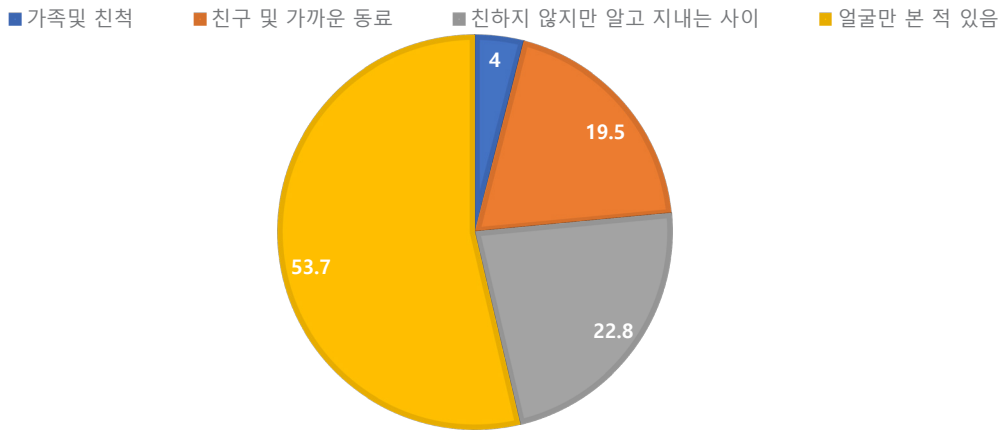


주변국 인식(협력대상)과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총149명)의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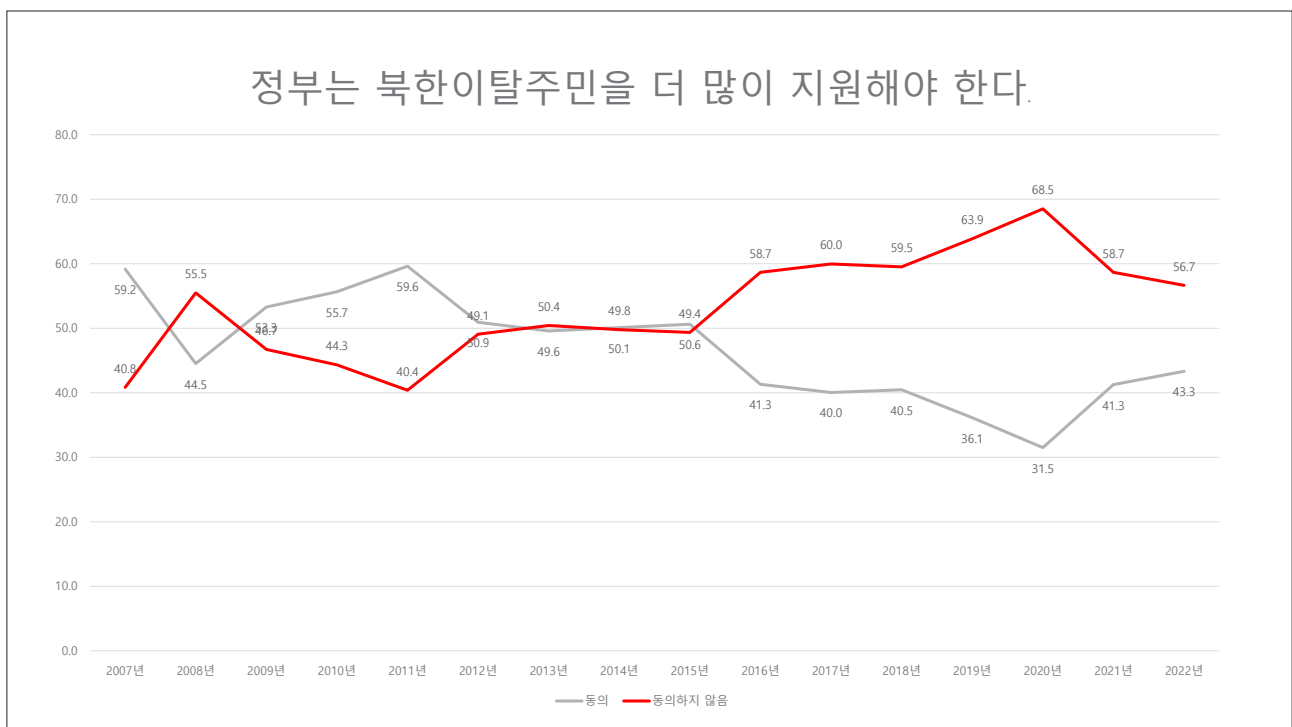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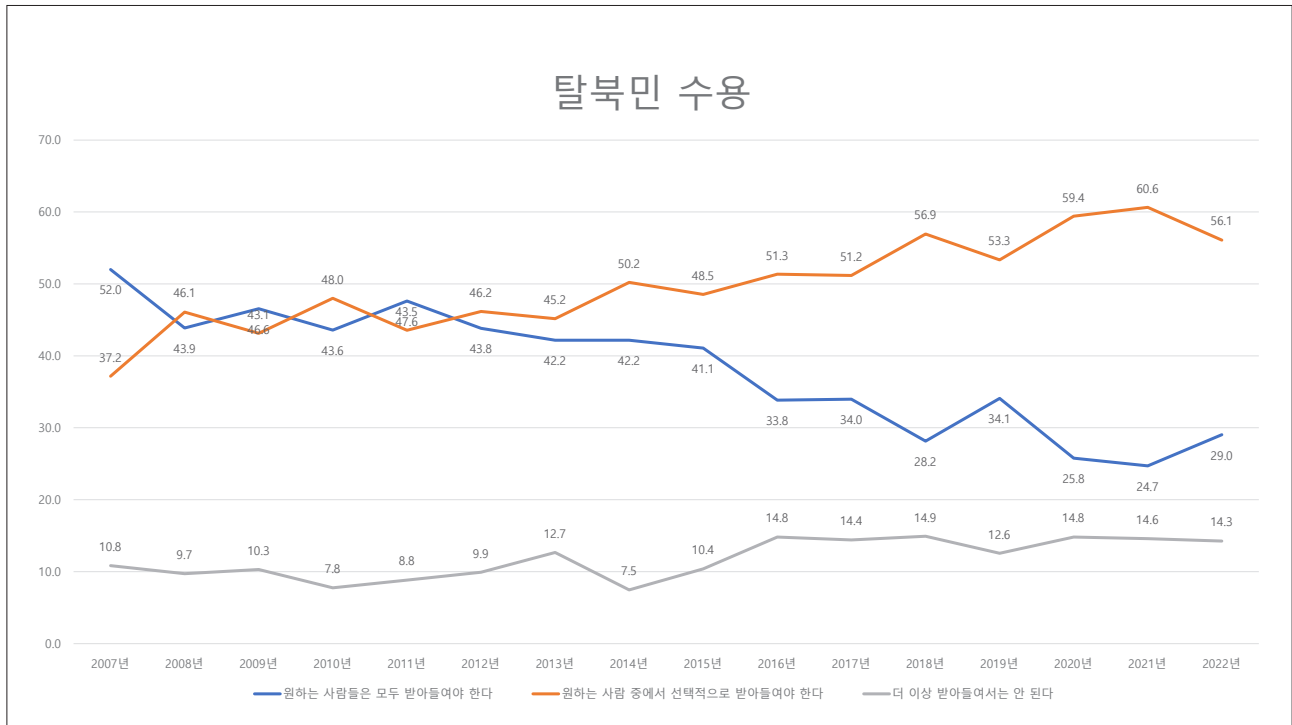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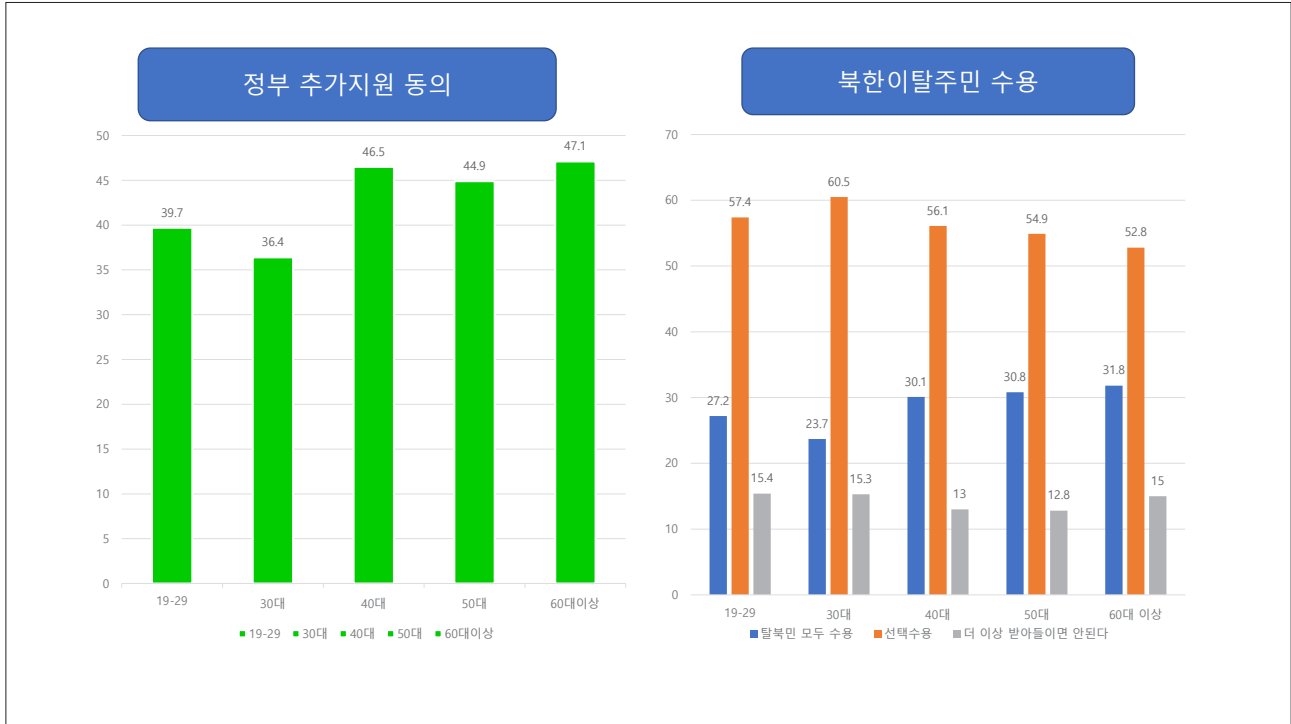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과 만남 *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㉞ 결혼상대자

조사연도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북한이탈주민과 만남	있다	빈도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㉞ 결혼상대자					전체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보통이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2022	있다	빈도	17	55	47	22	8	149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북한이탈주민과 만남 중 %	11.4%	36.9%	31.5%	14.8%	5.4%	100.0%	
	없다	빈도	184	425	291	135	16	1051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북한이탈주민과 만남 중 %	17.5%	40.4%	27.7%	12.8%	1.5%	100.0%	
전체	빈도	빈도	201	480	338	157	24	1200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북한이탈주민과 만남 중 %	16.8%	40.0%	28.2%	13.1%	2.0%	100.0%	

카이제곱 검정

조사연도	검정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2022	Pearson 카이제곱	14.014 ^a	4	.007
	우도비	11.719	4	.020
	선형 대 선형 결합	8.694	1	.003
	유효 케이스 수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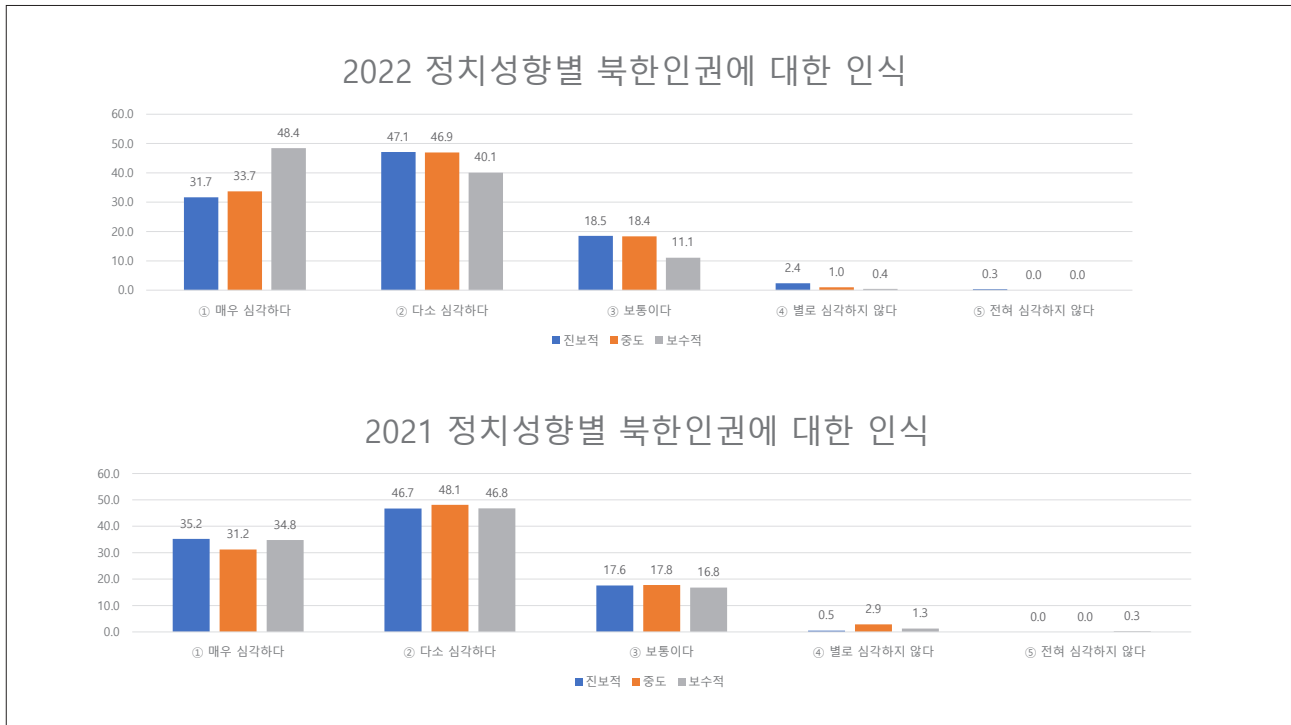


[취재파일] 북한 선원 복송 툴아봤다..."강제복송" vs "추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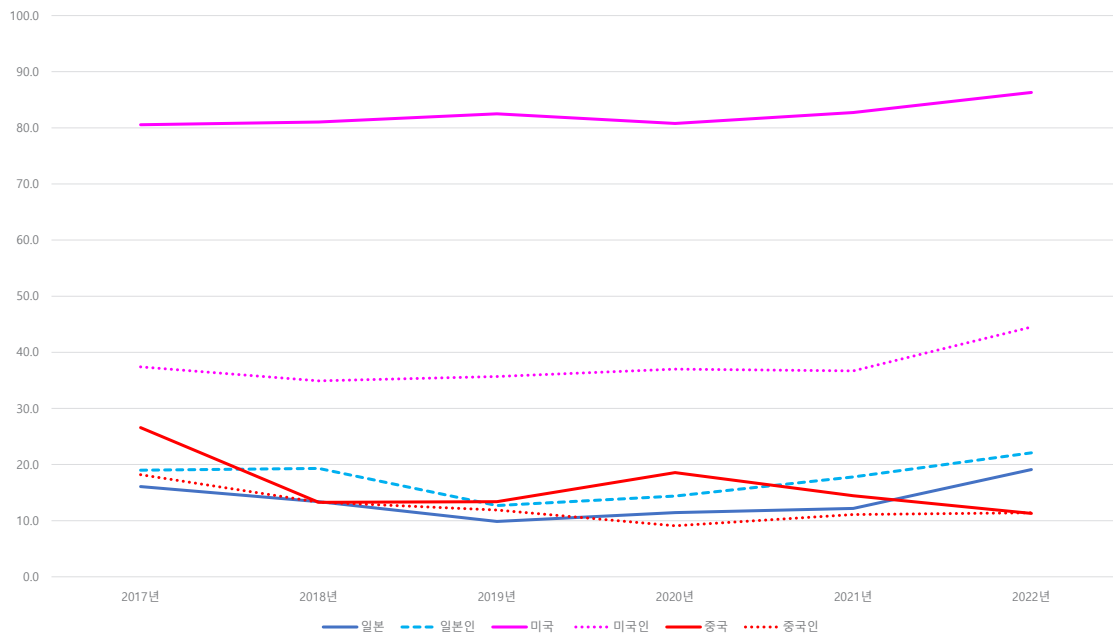


"2019년 11월 7일, 정부는 북한 오징어잡이 선원 2명을 선장과 선원 등 모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은 지금, 정국의 한복판으로 소환됐습니다. 같은 사안임에도 설명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출처 : SBS 뉴스 (김아영기자, 2022년 7월 16일)



주변국 인식(협력대상)과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



탈북민 수용정책 * 다문화 관련 인식 - ㉠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조사연도	탈북민(북한이탈주민) 수용정책	권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반대	다문화 관련 인식 - ㉠ 다문화 수용성			전체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보통이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2022		권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반대	49	196	91	12	2	350
			탈북민(북한이탈주민) 수용정책 중 %	14.0%	56.0%	26.0%	3.4%	0.6%	100.0%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반대	47	345	177	62	30	661
			탈북민(북한이탈주민) 수용정책 중 %	7.1%	52.2%	26.8%	9.4%	4.5%	100.0%
전체		무응답	반대	0	1	5	2	0	8
			탈북민(북한이탈주민) 수용정책 중 %	0.0%	12.5%	62.5%	25.0%	0.0%	100.0%
		전체	반대	107	616	339	103	35	1200
			탈북민(북한이탈주민) 수용정책 중 %	8.9%	51.3%	28.2%	8.6%	2.9%	100.0%

카이제곱 검정				
조사연도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2022	Pearson 카이제곱	67.545*	12	.000
	무도비	70.862	12	.000
	선형 대 선형결합	7.110	1	.008
	유효 케이스 수	1200		

소결 및 전망

-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이주민의 출신국가와의 국제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 신냉전의 정치 지형으로 미국인 및 일본인에 대한 친근감이 급격히 상승.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조선족에 대해 가지던 친근감이 감소하고 오히려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친근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민족적 동질성이 친근감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 특히, 20대에게는 영향이 더 적은 것으로 파악 됨.
- 연령이 낮아질수록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경험이 감소하고 이들에 대한 친근감이 감소. 특히 MZ세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낮고, 북한이탈주민의 무조건적 수용과 정부의 추가 지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
- 2022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원하는 사람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일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감소하고, 이들과 결혼 등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꺼리는 현상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북한이탈주민 수용 인식도 전체적인 추세로는 원하는 사람 모두를 수용하기보다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토론문

**통일의식, 북한인식,
대북정책인식**

■ 김규철 ■

통일의식, 북한인식, 대북정책인식 토론편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 (KDI))

1. 통일의식

- 개인이 인식하는 통일의 필요성이 주요 변수가 변함에 따라 (나이가 많아질수록, 한반도 정세가 바뀔 때 따라 등) 바뀌는지 살펴보는 조사도 있으면 좋을 듯함. 이를 위해서는 개인을 시간에 따라 추적 조사하는 패널 자료 구성이 필요함. 현재 데이터로는 pseudo-panel 방식(repeated cross-section에 기초한)으로 분석하는 것이 대안임.
- 젊은 층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원인이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에서 온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함. 몇몇 연구에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통일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통일의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음. 또한, 젊은 시절의 가치관이 평생에 걸쳐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는데, 현재 20~30대는 남북관계가 부정적인 시기에 유년, 청년기를 보냈음. 다시 말해, 생애의 많은 기간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었음. 만약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면 청년세대의 통일인식이 바뀔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김.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별, 정치적 성향별 분석이 포함되면 더 풍성한 분석이 될 것으로 기대함.
-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도 세대별 분석이 포함되면 좋을 듯함. 예상하기로는 젊은 세대는 같은 민족이니 통일해야 한다보다는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나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를 선택할 것 같고, 최근들어 이러한 추세가 강화되었을 것 같음.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추가 분석을 기대함.
- 8쪽의 그래프 추세를 보면, 2018년이 특이치(outlier)인 것처럼 보이고,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관심이 없는 추세가 10여년 넘게 강화되어 온 것으로 보임. 9쪽에서 보듯이 통일에 대한 의지 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인식은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쪽으로 강화되어 왔다고 보임. 이를 종합하면, (조금 과감히 얘기하면) 통일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미 전환된 것 아닌가 생각함.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통일은 헌법상에 규정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지만, 실제 국민들의 인식은 헌법적 가치와는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임. 만약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회의적이고 부정적이라면 통일에 대한 아젠다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혹은 이미 늦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함.
- 통일의 이익: 통일이 나에게서 이익이 안 되는데 남한에게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의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음. 개인에게도 통일이 이익이 될 것이다 (나에게도 통일이 이익이 된다) 라고 인식하게 하는 통일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여지가 있음.
-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p.18): 한국 국민은 현재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지만 북한 체제로부터 배울 것이 많지는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남한의 체제를 유지하거나, 남북한이 분리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대략 70%로 나타남. 이는 남한의 체제가 북한의 체제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만약 북한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게 된다면 이러한 인식이 바뀌게 될지 궁금함. 북한이 우리와 유사한 정치, 경제 체제로 개혁(이행)하게 되면 통일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함.

- 통일 정책의 시급성(p.19): 북한 비핵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비중이 하락 추세에 있고, “별로 시급하지 않다”라는 응답 비중이 상승 추세에 있는데, 이에 대해 남한 국민이 이미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소유했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어쩔 수없이” 인정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2. 대북인식

-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것은 2018년 이후 최근까지 정체 내지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 지원의식이 상승한 것은 2022년 코로나19로 북한의 상황이 어려워 질 것을 예상한 남한 국민들의 인도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있음 (설문 조사 시기가 북한의 코로나 발생 인정 시기와 겹치거나 가까웠을 가능성).
- 남한 국민은 2022년에 남한의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대북협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인가? 현 정부는 북한과의 협력, 지원 보다는 선제타격, 상호적 관계,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 등의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20대는 협력 비중 높아지고, 적대 비중 낮아진 반면, 30대는 협력 비중 낮아지고, 적대 비중 높아짐. 게다가 30대의 적대 비중이 모든 연령 중 가장 높음. (MZ세대를 묶어서 분석하는 것은 그동안 많이 수행되어 왔으나, 너무 넓은 연령대라는 비판이 있어왔음. MZ 세대는 ‘젊은이’의 fancy한 단어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음)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적대 비중 높아진 반면, 20대만 유일하게 적대 비중 낮아짐. 다른 연령대의 적대 비중 증가는 북한의 군사 도발(미사일 발사), 서해 공무원 피살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20대의 특이한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함.
- 영남권의 대북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바뀐 정부의 영향력일 가능성이라고 보임. 다른 지역은 모두 하락하거나 정체 하는데 반해 영남권만 상승하였음. 이를 통해 ‘대북인식이 남한 정부의 성향에 따라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됨. 보수정부가 집권하면 영남권의 대북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진보정부가 집권하면 호남권의 대북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그러나 북한정권 자체(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가 등)에 대한 인식은 영남권이 가장 낮고, 추세도 하락하는 등 혼재된 모습.
-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비중이 꾸준히 과반을 넘어서고 있음. 북한과 한국을 분리하는 인식. 통일인식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대북인식(북한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 북한정권 신뢰도 등)은 것은 남북관계의 상황과 유사한 흐름을 보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 2019년에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이전과 이후로는 크게 낮은 추세임.
-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한국 국민이 북한의 ‘실질적’ 핵보유를 인정한 상태라는 가정 하에 외교, 안보 정책을 어떻게 구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일각에서는 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는데, 충청권의 인식이 장기간 가장 높았으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궁금함. 또한, 호남권의 변동폭이 가장 크다는 특징이 발견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 본 발표에 의하면 대북인식을 분석할 때 정권교체가 일어난 연도와 아닌 연도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됨. 특히 정치성향에 따라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대북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해보게 됨. 대북인식은 북한 자체의 행동 뿐 아니라 남한의 정부나 대응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3. 대북정책 인식

- 5쪽 슬라이드: 대북정책 만족도는 정치성향 자체보다도 현재 집권정부의 정치 성향과 맞는지 여부가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임. 이를 반영한 통계분석이 포함되길 희망함. 변수에 정치성향 자체 변수와 정치성향과 집권정부의 성향의 일치도 변수를 분리하여 분석하면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는 지역별 대북정책 만족도, 불만족도와도 연관이 있어 보임. 보수정부 집권기에는 영남권의 만족도가 높고 호남권의 불만족이 높으며, 진보정부가 집권했을 때에는 호남권의 만족도가 높고 영남권의 불만족도가 높음. 따라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앞서와 같이 집권정부 성향과의 일치도를 분리해서 변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대북 정책 만족도가 정치지형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대북 정책 만족도가 다른 일반 정책(외교, 경제, 사회 등)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대북 정책 중 가장 급격한 변화는 핵무장 정책으로 시기별 큰 변동이 없는 다른 대북 정책에 비해 2021년 대비 10% 이상 상승. 이는 최근 미중갈등과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증대된 것으로 보임. Chicago Council의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힘 지지자는 물론 정의당이나 민주당 지지자의 2/3 정도가 핵무장을 찬성한다고 하는데,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핵무장을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북한의 핵위협이 실제화되었기 때문인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것인지 등의 원인 분석이 필요함. 현재 설문에서는 북한 핵포기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이유로 분석되었는데, 그 외의 요인에 대한 설문 문항(한반도 안보 상황 등)이 새로 추가될 필요가 있어 보임.
- (12쪽) 최근 대북정책의 (최종적, 궁극적) 목적으로 남북 평화적 공존 및 한반도 평화가 남북통일이나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 경제공동체 통합 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며 추세도 공존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예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정책을 지향할 것인지, 좋은 이웃 국가로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국민의 인식은 이미 통일을 최종 목표로 추구하는 과거와는 괴리가 있어 보임. 물론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평화공존을 통해 최종적(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겠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국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여론 조성과 남북관계의 구조적 개선을 추구할 것인지, 국민들의 인식에 맞추어 남북관계를 조정해야 할 것인지 학계에서 논의가 필요함.
- (13쪽) 2021년과 2022년의 통일과 평화공존에 미치는 변수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특징적임. 2021년에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2022년에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통일이 최종 정책목표로 답했는데, 반대로 2021년에 소득과 2022년의 교육이 관련이 없는 변수라는 것이 눈에 띈. 마찬가지로 평화공존이 정책목표로 답한 응답에 대한 연관 변수로 2021년에는 교육이, 2022년에는 직업과 종교가 나왔으나 다른 연도에는 연관이 없는 변수라는 것에 설명이 필요해 보임.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큰 인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지, 변수별로 유의성이 다르게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함.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대북정책 인식의 효과

이성우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대북정책인식의 효과 (요약문)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본 분석의 목적은 한국인들의 대북정책인식이 여전히 한국대통령선거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대통령선거 상황에서 소위 '북풍'으로 불리는 북한발 뉴스에 의한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선거구도를 뒤흔드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휴전 상태인 한국에서 북한과의 대결, 북한과 연관된 안보 이슈는 선거구도를 흔들고, 선거의 쟁점을 뒤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태도는 한국인의 정치성향을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과 연관된 이슈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약해보이기도 한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시마다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수에는 이념성향, 정당일체감, 사회계층인식, 세대, 이슈투표, 지역투표 등의 요인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왔지, 상대적으로 북한관련 이슈의 영향은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분석에서는 경제인식과 더불어 대북정책인식이 정당지지와 후보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관련 문항이 있었던 대통령선거 직후 시기인 2013년(18대 대선), 2017년(19대 대선), 2022년(20대 대선) 시행된 통일인식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2013년 조사에서는 후보선택에 대한 문항이 없어서 정당지지만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2017년 데이터와 2022년 데이터는 정당지지와 후보선택 모두를 분석하였다. 중요 독립변수로는 대북정책만족도와 경제상황만족도, 이념성향을 다루었고, 후보선택이 종속변수일 경우에는 정당일체감(정당지지)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2013년 분석에서는 대북정책만족도와 경제상황만족도가 모두 유의미하게 정당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7년 분석에서는 후보선택에서는 대북정책만족도변수가 문재인 후보 선택 변수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 선택에 경제인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홍준표 후보 선택에는 둘 다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정당지지에는 이념성향과 함께 대북정책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분석결과를 봤을 때, 정당지지의 경우에 후보선택 시 보다 대북정책만족도의 유의미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를 고려하여 정당일체감변수로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변수를 포함하여 후보선택 변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른 변수들의 유의미성은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정당일체감만이 두 후보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분석 결과에서도 정당일체감을 포함하지 않은 후보선택 분석에서 대북정책만족도 변수가 두 후보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경제변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정당일체감 변수를 포함하였을 때에는 대북정책만족도 변수도 유의미성을 잃게 되고, 정당일체감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2022년 분석에서는 추가로 개별 대북정책 이슈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비핵화에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대북제재, 군사억지력 강화가 각각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변수를 포함하여 개별 정책 이슈에 대한 판단이 후보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여전히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는 정당일체감 변수이고, 개별 이슈변수 중 윤석열 후보 선



세션 2 | 심화분석

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비핵화에 군사역지력강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 변수였다. 이재명 후보 선택에는 인도적 지원 변수가 음의 상관성을 보이며 유의미성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개별적 대북정책 이슈들 중 인도적 지원 문제와 군사역지력 강화이슈가 당파성별로 의견이 명확히 갈리는 이슈로 볼 수 있다.

2022년 정당지지에 미친 영향 분석에서는 국민의 힘 지지의 경우 대북정책만족도가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봤을 때,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북정책인식변수는 여전히 유의미하지만 정치적 양극화가 강화되는 속에서 정당일체감을 정하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직접적인 후보선택 시에는 정당일체감이 더 직접적인 영향 변수로 작용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대북정책인식의 효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우

목적

한국인들의 대북정책인식이 여전히 한국대통령선거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
석

북풍

1987년 대선 당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1992년 대선 당시 중부지역당 사건, 간첩이선실 사건
1996년 4. 15 총선 당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군사적 도발
행위,
1997년 대선 당시 소위 '총풍 사건', 오익제 월북사건
2000년 총선 당시 남북정상회담발표,
2002년 대선 당시 2차 북핵 위기 (북한의 핵보유선언)

한국의 이념성향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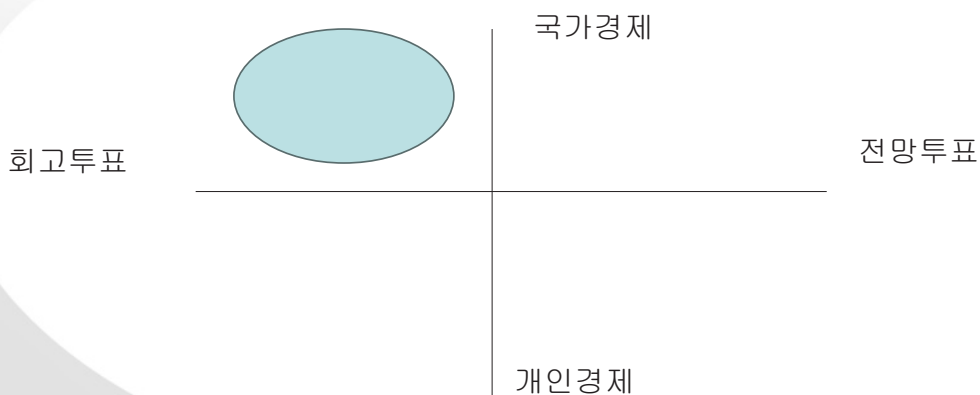
북한관련 문제에 대한 태도

한국에서 진보/보수의 이념적 속성은 계급정치적 속성에 기
반한 것이 아니라, 반공이데올로기의 수용을 둘러싼 세대간
의 상이한 사회화 경험과 밀접한 관계(강원택 2011)

개별 유권자들의 선택을 이해하는 요인

경제투표 중심 논의

유권자의 이익 극대화 = 현직자의 경제적 업적
 거시경제 지표가 좋을수록, 유권자는 여당 및 여당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야당 및 야당 후보에게 투표(Kramer 1971)
 개인적 경제투표(pocketbook voting) or 사회경제적 투표(sociotropic voting)
 회고적 투표 or 전망적 투표



개별 유권자들의 선택을 이해하는 요인

(Miller and Shanks 1996)

- ① 유권자의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적 특징,
- ② 유권자의 정당 정체성, 지속적인 정책관련 성향,
- ③ 현재의 정책이슈들에 관한 선호와 현재 경제적 그리고 다른 조건들에 대한 인식,
- ④ 유권자의 현직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명확한 평가,
- ⑤ 경쟁 후보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평가,
- ⑥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들에 대한 “전망적 평가(prospective evaluations)”

한국 투표행태 영향요인 연구

- ① 유권자와 후보의 이념성향에 따른 투표행태(강신구 2013; 강원택 2013a)
- ② 정당일체감에 따른 투표행태(박원호 2013a, 2013b)
- ③ 소득·직업 등 사회계층 따른 투표행태 (강원택 2013b)
- ④ 연령·세대별 투표행태(고원 2013; 이내영·정한울2013a, 2013b),
- ⑤ 이슈투표 현상(지병근 2013a)
- ⑥ 지역에 따른 투표행태(윤광일 2013a, 2013b; 지병근 2013b; 이동윤2013)

북한 변수의 효과

김형준 2002 - 16대 대통령 선거

- ① 안보 위협요인으로 북한은 보수층 결집에 기여
- ② 북한 변수가 반미변수로 상쇄되어 큰 영향 없었음
- ③ 대북지원에 긍정적인 유권자 - 노무현 지지
- ④ 이념변수-대북정책인식과 연계

김영태 2007 - 17대 대통령 선거

- ① 북한변수 유의미하지 않았음
- ② 경제변수가 더 영향력있고 유의미

분석내용

1. 대북정책, 경제인식의 정당지지와 후보선택에 미친 영향
2. 이념성향과 정당일체감의 후보선택에 미친 영향
3. 개인경제상황만족도 변수의 효과
4. 개별 대북정책 이슈에 대한 인식이 후보선택에 미친 영향

변수설정

분석 데이터

- ① 18대 대선 (박근혜 vs 문재인)- 2013년 조사
- ② 19대 대선(문재인 vs 홍준표) - 2017년 조사
- ③ 20대 대선(윤석열 vs 이재명) - 2022년 조사

변수설정

- ① 종속변수 : 2013 - 정당지지, 2017 - 후보선택, 정당지지, 2022 - 후보선택, 정당지지
- ② 독립변수 : 대북정책만족도, 경제상황만족도, 개인경제상황만족도(2022)
정당일체감(정당지지), 이념성향(진보, 보수)
- ③ 통제변수 : 영남거주, 호남거주, 나이, 교육, 소득수준

분석 - 2013년 (정당지지)

	새누리당지지	민주당지지
대북정책만족도	0.616*** (0.111)	-0.260* (0.126)
경제상황만족도	0.360** (0.113)	-0.287* (0.128)
진보	0.368 (0.188)	0.765*** (0.204)
보수	1.160*** (0.173)	0.105 (0.229)

분석 - 2017년 (후보선택)

	문재인	홍준표
대북정책만족도	0.415*** (0.109)	-0.272 (0.145)
경제상황만족도	-0.0928 (0.111)	0.309 (0.158)
진보	0.614*** (0.161)	-0.819** (0.286)
보수	-0.485** (0.186)	1.158*** (0.223)

분석 - 2017년 (정당지지)

	자유한국당지지	더불어민주당지지
대북정책만족도	-0.481*** (0.146)	0.412*** (0.104)
경제상황만족도	0.330* (0.162)	-0.0633 (0.106)
진보	-0.0732 (0.285)	1.075*** (0.144)
보수	1.063*** (0.236)	-0.201 (0.187)

분석 - 2017년 (정당일체감 효과)

	문재인	홍준표
대북정책만족도	0.206 (0.134)	0.0704 (0.191)
경제상황만족도	-0.0669 (0.135)	0.212 (0.202)
자유한국당 지지	-2.675*** (0.528)	3.233*** (0.326)
더불어민주당 지지	2.408*** (0.193)	-1.621*** (0.388)
진보	0.172 (0.194)	-0.737 (0.381)
보수	-0.173 (0.233)	0.880** (0.281)

분석 - 2022년 (후보선택)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대북정책만족도	0.416*** (0.116)	-0.311** (0.115)	0.189 (0.155)	-0.158 (0.159)
경제상황만족도	-0.0165 (0.124)	0.00523 (0.123)	-0.0331 (0.170)	-0.0887 (0.182)
개인경제상황만족도	0.128 (0.128)	0.0268 (0.126)	0.0181 (0.169)	0.0645 (0.176)
국민의힘 지지	-	-	3.094*** (0.264)	-2.879*** (0.445)
더불어민주당 지지	-	-	-3.184*** (0.477)	3.470*** (0.288)
진보	-1.041*** (0.174)	1.673*** (0.160)	-0.428 (0.246)	0.944*** (0.229)
보수	1.770*** (0.202)	-1.544*** (0.254)	0.615* (0.283)	-0.795* (0.373)

분석 - 2022년 (정당지지)

	국민의힘지지	더불어민주당 지지
대북정책만족도	0.440*** (0.126)	-0.233 (0.120)
경제상황만족도	0.118 (0.134)	0.241 (0.129)
개인경제상황만족도	0.203 (0.138)	0.0145 (0.132)
진보	-0.767*** (0.201)	1.884*** (0.169)
보수	2.076*** (0.194)	-1.152*** (0.288)

분석 - 2022년 (대북정책이슈인식)

	윤석열	이재명
대북정책만족도	0.167 (0.157)	-0.176 (0.161)
비핵화에 인도적지원도움	-0.0468 (0.167)	-0.413* (0.168)
비핵화에 남북경제협력도움	-0.267 (0.154)	0.269 (0.153)
비핵화에 대북제재도움	-0.0239 (0.161)	0.195 (0.171)
비핵화에 군사역지력강화 도움	0.384* (0.160)	-0.204 (0.169)
경제상황만족도	-0.0590 (0.175)	-0.102 (0.182)
개인경제상황만족도	0.0189 (0.174)	0.151 (0.181)
국민의힘 지지	3.184*** (0.271)	-2.864*** (0.447)
더불어민주당 지지	-3.206*** (0.479)	3.598*** (0.298)
진보	-0.360 (0.248)	0.903*** (0.232)
보수	0.612* (0.288)	-0.858* (0.380)

결론

정당일체감

- 투표 후보 선택에 가장 큰 영향
- 정치적 양극화 현상 속에서 중요요인으로 작용

대북정책인식

- 정당일체감에 중요요인
- 선거상황에 따라 직접 영향도 일정부분 존재
- 보수층에서 더 큰 영향

경제문제인식

- 경제인식 유의미성 사라짐
- 정치적 양극화 현상 속에서 경제문제인식의 영향력 축소



세대 간 통일인식 차이

■ 김성희 ■

세대 간 통일인식 차이 (요약문)

김성희 (수원대학교)

<서론>

-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음
- 세대를 구분하여 통일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이를 확인하고 통일을 지지하는 이유와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세대 간 차이를 비교하고자 함

<통일인식의 시간적 추세>

- 통일인식조사의 2007~2022년 자료를 사용함 (총 표본 수: 16,278)
- 분석을 위해 조영태(2019)¹의 세대 분류를 따라 다음과 같이 표본을 분류함

구분	출생연도
1차 베이비부머 세대	1955~1964
2차 베이비부머 세대	1965~1974
X세대	1975~1984
MZ세대*	1985~2010년대 초반

* 문헌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구분하나, 통일인식조사에서 Z세대의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MZ세대를 묶어서 분석함

-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지지하는 비중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높음
- 통일의 필요성은 모든 세대가 2020년 이후 점점 낮게 평가하는 추세이나, MZ세대와 윗세대 간 약 20% 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MZ세대는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
- '가능한 빨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지지하는 비중도 세대가 올라갈수록 높음
- 반면, '현재대로가 좋다' 혹은 '관심이 없다'라는 의견을 지지하는 비중은 거의 모든 시점에서 MZ세대가 타 세대보다 높으며, 2022년에는 해당 의견에 대한 X세대의 지지비율도 MZ세대의 수준으로 올라가 MZ, X세대 vs. 베이비부머 세대의 구도로 나타남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정권 및 사건에 따라 변동하는 특성이 있음

1 중앙일보(2019.11.25). "내년 베이비부머·X세대 밀레니얼 모두 바뀐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40601#home>

<회귀분석>

- 이처럼 세대별 통일인식이 다르나, 세대별로 통일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를 수 있고 이를 추세분석에서 구분하기 어려움
- 통일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함
- 통제변수는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역, 종교, 정치성향, 조사연도임
- 분석의 함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통일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세대 간 차이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문항이 2018년도 통일인식조사부터 포함되었기 때문에 본 회귀분석에서는 2018~2022년 자료를 활용함(표본 수: 5,456)
- 통일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놓고 세대더미 간 차이를 살펴봄
- 결과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예측확률(predicted probability)을 그림으로 보고함

<해석>

- 추세분석과 마찬가지로 통일의 필요성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지지할 확률이 높음
- 통일의 필요성은 통일의 시급성을 종속변수로 놓았을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세대가 내려갈수록 지지받을 확률이 높으며,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나 현상태를 선호하는 의견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 통일을 지지하는 이유는 같은 민족이니 통일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당위성'과 전쟁위협 제거 및 경제성장 등의 '실리적 당위성'이 있을 것임
-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여 세대별 차이를 살펴봄
- 민족주의적 당위성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지지하는 특성을 보임
- 반면, 전쟁위협 제거라는 실리적 당위성은 MZ세대가 윗세대보다 지지하는 양상을 보임
- 타 세대와 달리 MZ세대는 유일하게 민족주의적 이유보다 실리적 이유의 지지비중이 높은 세대임
- 다른 이유는 세대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통일이 되지 않아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한 문항에서의 응답은 세대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MZ세대가 타 세대에 비해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때문에 통일을 반대한다는 응답비중이 높음

- '통일의 이유'와 '통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간의 관계도 긴밀할 수 있음
- 통일이 '남한에게 이익'일 것이라는 의견과 '자신에게 이익'일 것이라는 문항에 대한 세대별 응답 비중을 살펴봄
- 통일이 남한에게 이익일 것이라는 응답 확률은 모든 세대가 50% 이상이나, MZ세대와 X세대가 윗세대에 비해 낮음
- 반면,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일 것이라는 응답확률은 모든 세대가 35% 이하이나, MZ세대가 베이비부머 세대에 비해 낮음
- 통일이 사회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에 관해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MZ와 X세대에 비해 이념갈등과 지역갈등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음
- 하지만 빈부격차, 부동산 투기, 실업 등의 경제문제와 범죄문제에 대한 통일의 효과에 대해서는 세대 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음

<결론>

- MZ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추세를 볼 때, 향후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통일인식 분석에 더 용이할 수 있음
- MZ세대는 과반이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유일한 세대이며, 통일을 해야 한다면 민족주의적 이유보다 실리적 이유로 통일을 지지함
- 특히 타 세대보다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를 높게 우려함



- 통일의 이익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MZ세대-X세대 vs. 베이비부머 세대로 이분화되며, 젊은 세대가 통일의 개인적 이익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 일부로 해석될 수 있음
- 현재까지 한국인은 민족주의적 당위성을 통일의 중요한 이유로 보고 있으나, 실리적 당위성을 중시하는 미래 세대가 사회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통일이식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세대 간 통일의식 차이

김성희 (수원대학교)
2022 통일의식조사 심화분석

한국의 세대 분류

구분	출생연도	특징
1차 베이비부머 세대	1955~1964년	고령자편입 본격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1965~1974년	정년 연장 혜택
X세대	1975~1984년생	중간관리자, 윗세대 관행 거부
밀레니얼 세대	1985~1996년생	대학진학률 최정점, 사회진출 가속
Z세대	1997~2010년대 초반	초저출산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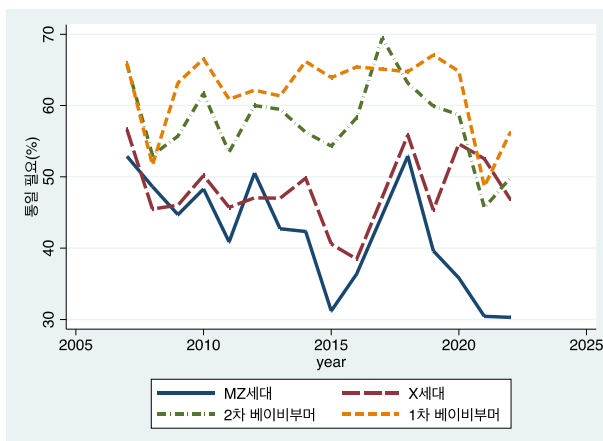
출처: 조영태(2019) 토대로 재구성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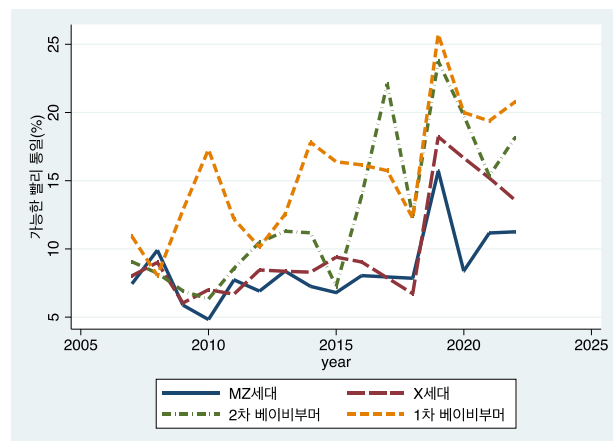
- 통일인식: 2007~2022년 통일인식조사
 - 매년 약 1200여명 조사
 - 총 표본 수: 16,278
- MZ세대: 성인(만 19세 이상)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Z세대보다 밀레니얼 세대의 비중이 큼

세대별 통일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 추이

“통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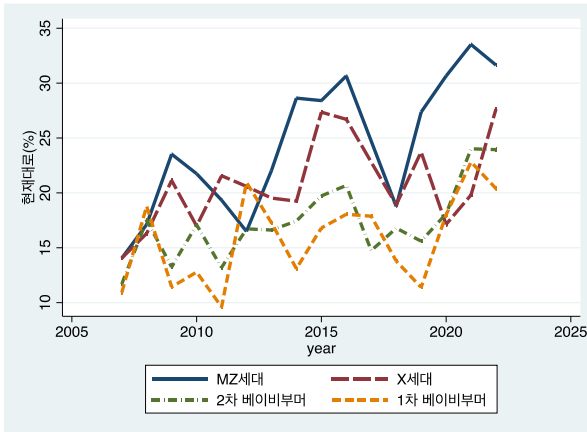


“가능한 빨리/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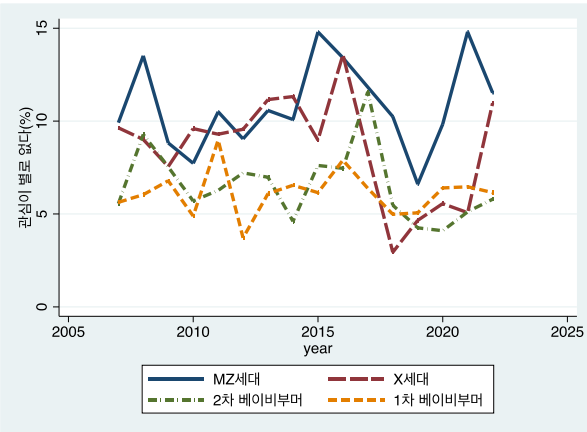


세대별 통일의식: 통일에 대한 인식 추이

“현재대로가 좋다”



“관심이 별로 없다”



세대별 통일인식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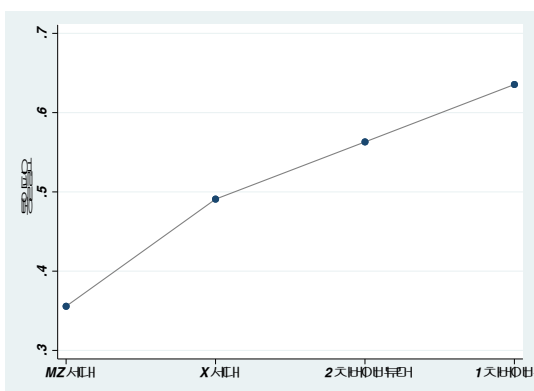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지하는 비중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높음
 - MZ세대는 최근 다른 세대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
- X세대의 경우 2020년 이후 통일보다 현상태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과 무관심의 비중이 급증하여 MZ세대와 비슷한 통일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음
- 베이비부머 세대 사이에서도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응답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정권/사건에 따라 통일의식이 변동하는 특성이 있음

회귀분석

- 통일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여 세대 자체의 효과가 있는지 분석
 - 통제변수: 성별,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역, 종교, 정치성향, 조사연도
-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젊은 세대의 최근의 경향을 볼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함께 '통일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 후자 대한 문항이 2018년도부터 포함되었기 때문에 2018~2022년 자료를 활용함 (표본 수: 5,456)
 - 2007년부터 관찰된 문항을 전체 표본으로 분석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표본을 제한하여도 결과에는 큰 변화가 없음
- 통일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놓고 세대더미 간 차이를 분석함
- 결과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세대별 통일의식의 예측확률(predicted probability)을 그림으로 보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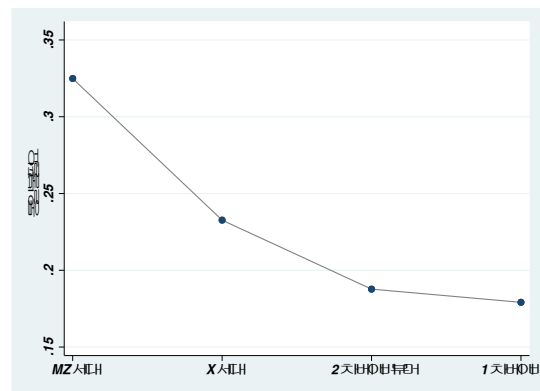
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필요하다”



→ “가능한 빨리 통일해야 한다”와 유사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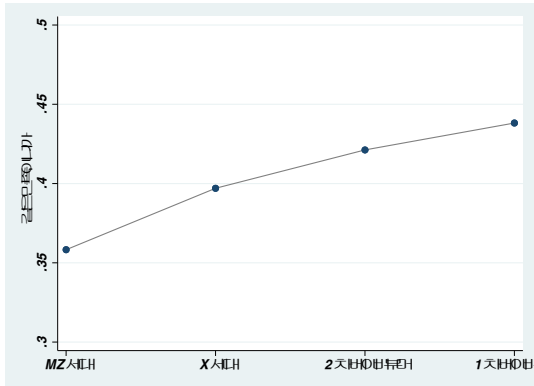


→ “무관심”, “현상태 유지”와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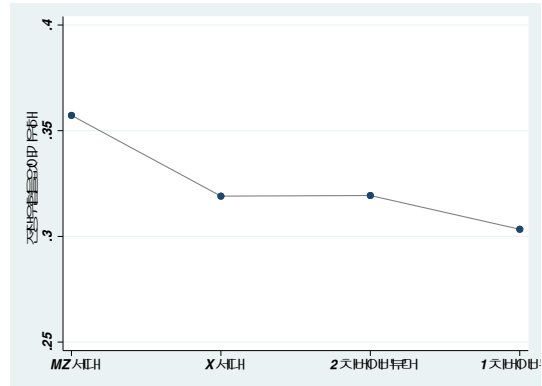
주: 회색부분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통일의 이유

“같은 민족이니까”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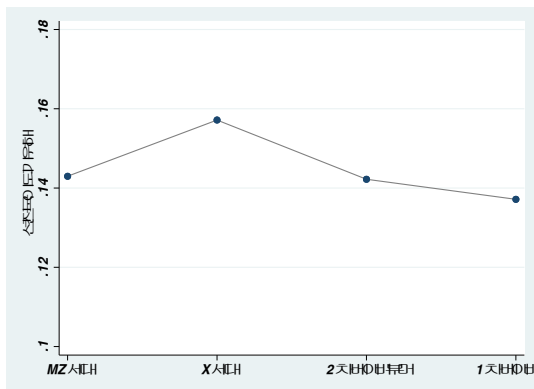


→ MZ세대: 민족주의 <실리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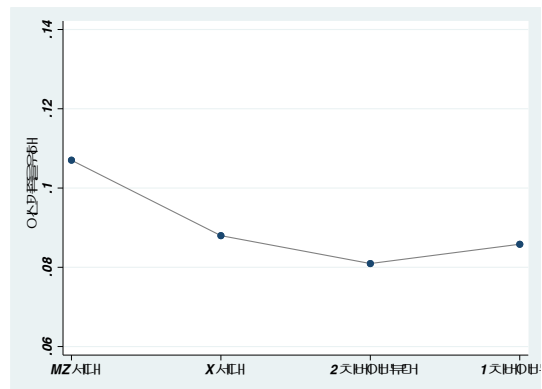
주: 회색부분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통일의 이유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이산가족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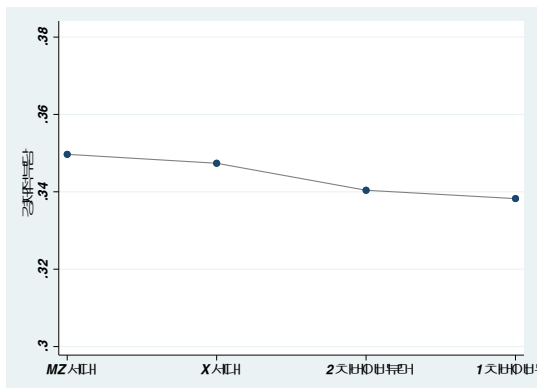


주: 회색부분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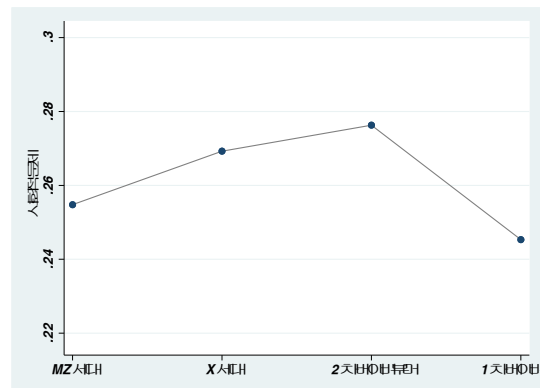


통일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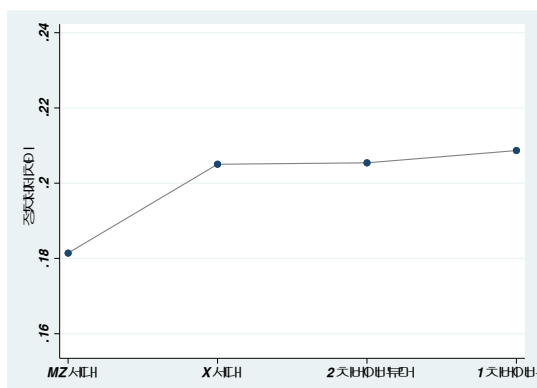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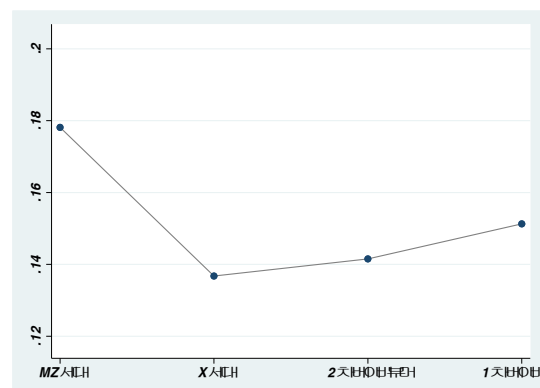
주: 회색부분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통일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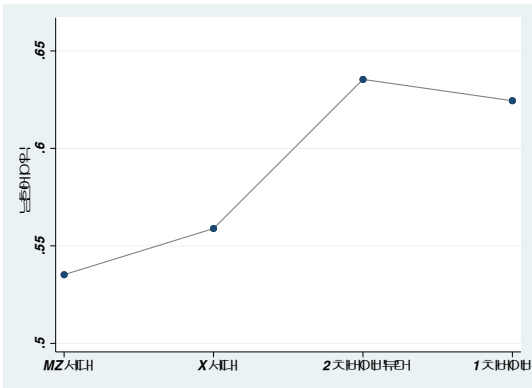


→ MZ세대: 통일 후 사회문화적 차이를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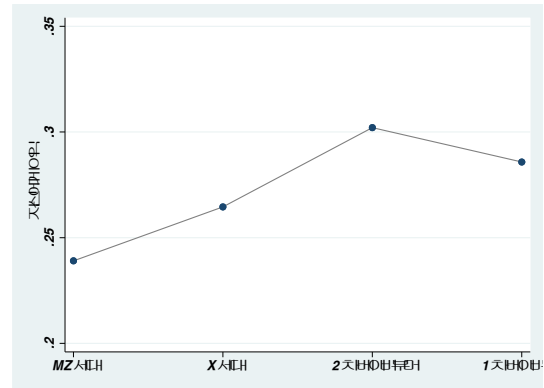
주: 회색부분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통일의 이익

“남한에게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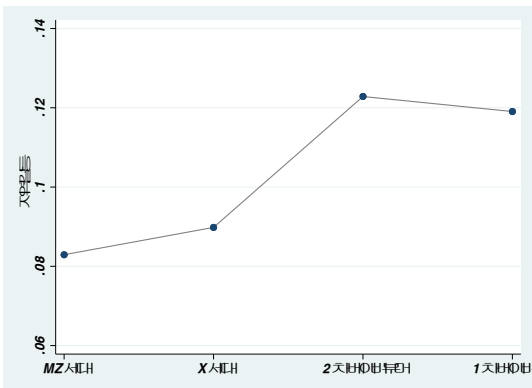
“자신에게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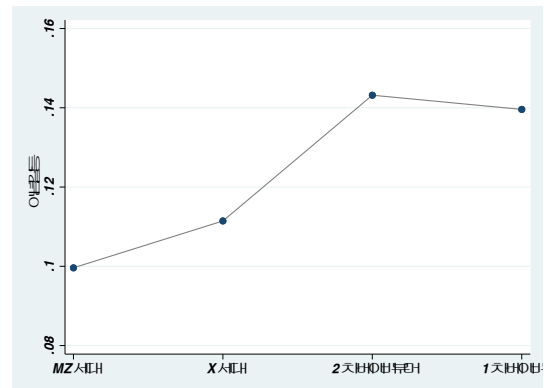
주: 회색부분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통일이 사회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

“지역갈등”



“이념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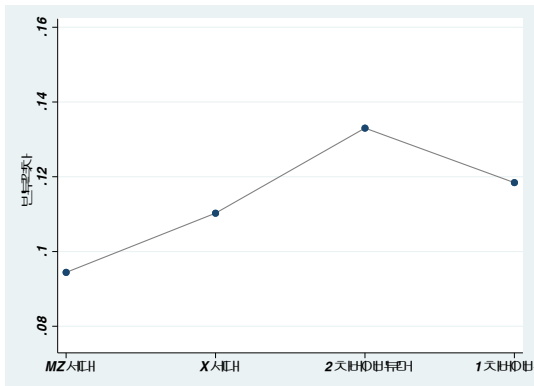


주: 회색부분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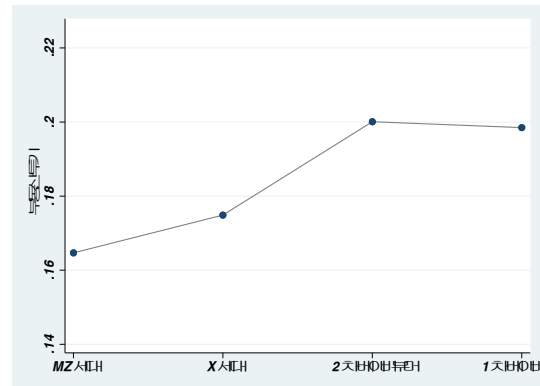


통일이 사회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

“빈부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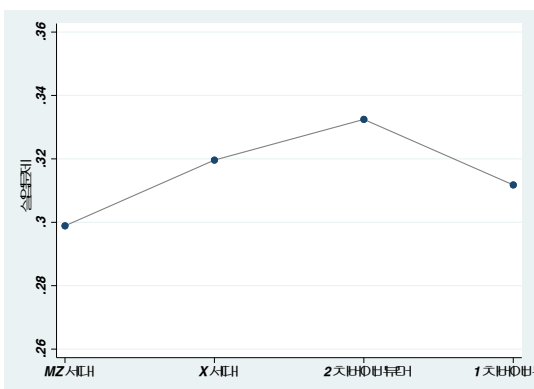
“부동산 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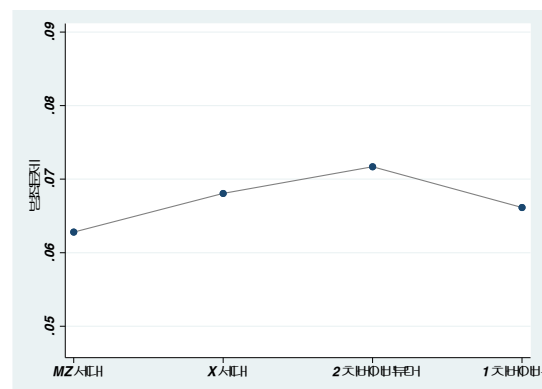
주: 회색부분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통일이 사회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

“실업문제”



“범죄문제”



주: 회색부분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종합

- 윗세대로 갈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민족주의적 이유 vs. 실리적 이유 측면에서 세대 간 차이가 뚜렷하게 관찰됨
 -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비중이 윗세대로 갈수록 높음
 - 반면,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비중은 아랫세대로 갈수록 높음
 - MZ세대는 유일하게 '전쟁위협 제거'의 비중이 가장 큰 세대임
 - 한편,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산가족을 위해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비중은 세대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MZ세대는 타 세대보다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를 통일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로 보는 경향이 있음

종합

- 통일의 국가적, 개인적 이익에 관한 문항이나 통일이 한국 사회의 이념갈등 및 지역갈등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문항에서 신규세대 간 차이가 뚜렷하게 관찰됨
 - MZ, X세대 vs. 1,2차 베이비부머 세대
- 반면, 통일이 경제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세대별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음
 - 2차 베이비부머 세대(386세대)가 통일의 국가적, 개인적 이익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관찰됨
- 통일에 대한 정의가 다를 가능성?
 - 생각하는 통일의 이미지에 대한 세대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



결론

- MZ세대의 통일을 불필요하게 느끼는 경향을 고려하면, 향후 세대 분석을 할 경우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보다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더 유용할 수 있음
- MZ세대는 과반이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유일한 세대이며, 민족주의적 이유보다 실리적 이유로 통일을 지지함
 -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를 타 세대보다 더 우려함
- 통일의 이익은 젊은 세대일수록 낮게 평가하나, MZ세대 vs. 타 세대의 구도보다 MZ, X세대 vs. 베이비부머 세대의 구도로 관찰되며, 통일로 인해 예상되는 낮은 개인적 이익이 젊은 세대가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 일부로 해석됨
- 한국인이 통일을 지지하는 이유는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기대보다 민족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임
 - 향후 미래세대의 출현으로 통일의 민족주의적 정당성이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통일인식이 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토론문

세대 간 통일외식 차이

▣ 이수진 ▣

“세대 간 통일의식 차이” 토론문

임수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 남북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통일에 대한 기대 및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보는 의견이 우세해지는 경향
- 사회 내 ‘MZ세대’의 부상에 따라, 이들의 통일의식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세대 간 통일의식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본문에서는 세대를 1차 베이비부머 세대, 2차 베이비부머 세대, X세대, MZ세대 네 구간으로 분류하고 있음.
-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 MZ세대의 분류는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경향
- 밀레니얼(M) 세대는 1991년에 출간된 ‘Generations: 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 1584 to 2069’(D. Coupland)에서 최초로 사용, 주요한 특징으로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등 디지털 환경에 청소년기부터 노출되어 익숙한 세대로 대체적으로 198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으로 보는 경향 (국회미래연구원, 2021; 김수정, 2019 등)
- 국회미래연구원의 2021년 세대 구분 관련 연구보고서를 보면, 보편적 기준으로 맥킨지코리아의 구분을 따랐음.

표 . 세대 구분

구분	통계청		맥킨지코리아		삼정 PMG	
	출생연도	연령 (2022년 기준)	출생연도	연령 (2022년 기준)	출생연도	연령 (2022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	1955-1963	58-68세	1950-1964	59-73세	1955-1969	54-68세
X 세대	1964-1978	45-57세	1965-1979	44-58세	1970-1980	43-53세
밀레니얼(M) 세대	1979-1992	31-44세	1980-1994	29-43세	1981-1996	27-42세
Z 세대	1991 이후	30세 이하	1995 이후	28세 이하	1997 이후	26세 이하

출처 : 통계청(2012); 맥킨지코리아(2018); 삼정KPMG(2019)

- 본문에서는 MZ세대가 통일의 필요성에 관해 다른 세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띄고 있다는 점을 주요하게 지적
- ‘MZ세대’와 윗 세대(‘X세대’ 및 ‘1·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통일의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을 2020년으로 평가
 - 분석의 내용을 고려할 때, 2007년에서 2019년까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인식(“통일이 필요하다”, “가능한 빨리/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이 필요하다”)이 ‘1·2차 베이비부머 세대’ vs ‘X·MZ세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던 것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통일에 대한 긍정인식 추이에 세대별 변화가 나타난 시점은 2020년으로 고려할 수 있음.
 - 2020년부터 ‘1·2차 베이비부머 및 X세대’ vs ‘MZ세대’로 통일에 대한 인식의 구도가 변화하는 모양새
 - 통일에 대한 부정인식(“현재대로가 좋다”, “관심이 별로 없다”)의 역시 세대별 차이가 2020년을 기점으로, ‘1·2차 베이비부머 세대’ vs ‘X·MZ세대’에서, ‘1·2차 베이비부머 및 X세대’ vs ‘MZ세대’로 나뉘어진 점을 볼 수 있음.

- 이를 고려하면, X세대와 MZ세대 사이의 인식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문의 분석에 따라, 2020년을 전후한 세대별 인식변화의 환경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필요
- 연구자의 논의대로 통일의식의 변화에 특정한 시점이 고려될 경우, 시점을 고려한 특정 사건의 '경험'을 고려한 후속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MZ세대의 북한에 대한 경험 고찰

- 관련하여, 김정은정권 북한에 대한 남한사회의 경험을 고려할 수 있음.
- 김정은정권 이후 냉각되었던 남북 관계가 다시 전환된 것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8-2019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및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
- 김정은 및 북한의 주요 인사들의 남한 및 해외 방문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대대적으로 공개·홍보되었고, 대중적 차원에서 남북한 사이 교류의 증진 및 평화무드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음.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2016년 43.7%, 2017년 41.9%였던 것에 비해,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된 2018년 54.6%, 2019년 54%로 증가, 2019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이. '통일의 필요성' 경우, 2016년 53.3%, 2017년 53.8%에서 2018년 59.7%로 긍정응답 비율이 증가한 데에 반해, 2018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이(2019년 53%, 2020년 52.8%, 2021년 44.6%).
-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수위 높은 북한의 대남 적대발언을 통한 남한사회 도발이 재개
- 2020년 3~4월 다섯 차례의 미사일 발사, 같은 해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2022년 4월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물 파괴 등이 계속해서 이어짐.
- 이러한 일련의 북한발 도발은 남북한 간 맺은 합의, 정책, 제도, 법령 등이 북측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부정적 경험'의 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국내 사회문화적 갈등의 심화

- 사회문화 분과 속, 현 우리사회의 주요한 해결과제로 언급되는 것이 '남남 갈등'
- 남북한의 분단 속 사상, 이념의 대립의 심화는 우리 사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간 갈등,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한 지지정당 간 갈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로 비화
- 여기에 더해 한국 정치지형이 극단적인 양극화로 심화되고, 남녀 갈등, 세대 갈등과 같은 사회 내 다양한 이익집단, 세력단체 간 '분열'의 문제가 사회 전면에 등장
-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논의 속 'MZ세대의 높은 사회문화적 민감성'의 원인을 고려할 수 있음.

- 통일 편익 관련, 남한 전체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익일 것이라는 의견이 과반 이상인데 반해, 개인 차원에서는 전 세대에 걸쳐 35% 이하라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안

- 이는 공동체와 개인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와 연계할 수 있음.
- 관련하여, 위협인식 또는 사회적 번영에 대한 개인인식이 공동체적 연대, 결속, 신뢰 문제와 연관된다는 사회적 자본 관련 논의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임(Coleman, 1988; Fukuyama, 1995 등)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MZ세대의 개인화된 특성과 사회적 네트워크·연대의 약화 등 세대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이를 변수로 설정한 통일의식의 변화를 함께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임.

